

# 국어사전의 뜻풀이 연구

강영선\*

## < 목 차 >

1. 서론
2. 표제어 뜻풀이의 문제점과 원칙
3. 표제어의 처리 방법과 뜻풀이의 실제
4. 결론

## 1. 서론

심의린(沈宜麟)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sup>1)</sup>이 1925년 10월 20일 초판 발행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1) 1938년 간행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보다 8년 앞서 1930년 4월 10일에 발행된 국어사전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제3판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국어사전은 경성사범학교 훈도 심의린(沈宜麟)이 편찬한 것으로, 출판사는 서울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문당(以文堂)으로 돼있다. 또한 3판 사전의 뒷면에는 초판 발행일로 1925년 10월 20일이 명시된 판권지가 보존돼 있어, 이 사전의 처음 발행 시점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보다 13년 앞선 것으로 증명됐다. 이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은 표제어와 뜻풀이에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고 일본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명실상부한 최초의 한국어 단일어 사전이라는 점에서 국문학사에서의 위상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총독부도 문세영의 사전과 동일한 명칭의 『조선어사전』을 1920년 발행한 바 있지만, 이는 표제어만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고 뜻은 일본어로 풀이한 한국어-일본어 사전이었다. 이 국어사전의 용도는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일제 강점기 보통학교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으로, 가로 13cm, 세로 19cm 크기에 부록인 ‘보통학교 한자사전’ 43쪽을 포함해 총 241쪽 분량이다. 수록 단어는 모두 6천 106개로,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해당하는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나오는 4천 985개 단어에 967개의 어휘를 보충했다. 또한 현대 국어사전과 같이 자음과 모음 순에 따라 표제어와 그 뜻풀이를

되어 우리 국어사전의 터전을 마련한 이래 많은 사전들이 편찬되었다. 1938년에 문세영의 『조선어사전』<sup>2)</sup>이 간행된 바가 있고, 1957년 10월에 조선어학회(한글학회)가, 百科事典적이기는 하지만, 『큰사전』 6권을 完刊함으로써 본격적인 언어사전으로서 국어사전의 새 장을 열었다. 이어서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신기철·신용철 편 『새우리말큰사전』, 한국어사전편찬회 편 『한국어대사전』,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등이 시기를 달리하여 간행되면서 우리의 국어사전은 계속 발전되어 왔다.<sup>3)</sup> 물론 이러한 대사전들 이외에 학습용·휴대용으로 中小辭典들도 많은 종류가 간행되어 우리 국민들의 語文生活의 기초를 확립하고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국어대사전들이 편찬·간행된 것은 우리의 국력과 민족문화가 그만큼 힘차게 뻗어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만한 성과와 업적을 이룬 것은 先學들의 인내와刻苦의 노력의 결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수십만의 어휘를 수록한 한 권의 국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어휘의 수집과 정리, 개별 표제어 선정, 음운·문법의 정보, 어원, 표제어의 뜻풀이, 유의어·반의어 등의 제시, 용례 제시 등 살펴 보아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국어사전 편찬은 오랜 세월을 투자해야 하는 고난과 외로움의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국어사전들이 간행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국어사전들이 널리 사용되고 일반인들의 語文生活에 아주 큰 영

한글로 실었으며, 각 표제어마다 낱말이 사용된 교과서의 권수와 쪽수를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연합뉴스』(2004. 2. 26)

- 2)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의 내용 태반이 이윤재가 만든 재료와 원고를 바탕으로 했다. 문세영은 이윤재와 함께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을 위한 카드작업을 하다가, 이윤재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자 혼자서 자료와 명예를 독차지해 버렸다.(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책과 함께, 2005. 참조)
- 3)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와 “大辭典”들 간의 비교에 대한 연구로는, 이병근,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제7호(국어연구소, 1986), 8~35쪽, 김문창, 「국어대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제4권 제3호(국립국어연구원, 1994), 41~62쪽등이 대표적이다.

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국어학계에서는 既刊된 국어사전들을 분석·비교하여 국어사전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밝히는 데 소홀한 면이 있었다. 특히, 언어학 이론에 입각한 사전학의 관점에서 이론적인 논의가 모자랐다. 다행히 1980년대 말부터 뜻있는 이들이 사전학에 관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기존 국어사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시킨 名實相符한 『종합대국어사전(가칭)』 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를 위해 꾸준히 연구에 역량을 집중시킨 것은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작업으로 ‘국립국어연구원(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종합대국어사전(가칭)』 편찬 사업을, ‘연세대학교한국어사전편찬회’(현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는 『새한국어사전(가칭)』 편찬 사업을 전개하였다. 모두 기존 국어사전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국어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9년 10월 9일 『표준국어대사전』을 상·중·하의 세 권으로 편찬하였고, ‘연세대학교한국어사전편찬회’에서는 1998년 10월 9일에 『연세한국어사전』을 중대형사전으로 편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나 ‘연세대학교한국어사전편찬회’에서 ‘사전 편찬 이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sup>4)</sup> 사전 편찬의 실천적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 그에 앞서 既刊된 국어사전들에 대한 분석·비교와 문제점 도출을 통한 체계적인 ‘사전학’의 이론적 정립이 모자란 점이 있고, 종합적이고 일관된 ‘사전학’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표제어를 뜻풀이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의 ‘의미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뜻풀이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가 아직도 미흡하다.<sup>5)</sup>

4)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사전학·사전편찬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前身인 國語研究所의 『국어생활』을 포함하여) 『새국어생활』에 특집으로 꾸준히 발표하였고,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회에서는 그 연구 성과를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제9집에 발표하였다.

5) 이 글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과 『연세 한국어사전』(연세대학교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이 편찬되기 이전에 쓰였다. 이 글이 탈고된 이후에 우리 국어학계의 위대한 업적물인 두 사전이 편찬되었기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을 했으나, 『표준국어대사전』만 추가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미흡한 점을

국어사전은 巨視構造(macrostructure)와 微視構造(microstructure)가 결합되어 이중적 構造로 이루어진다. 거시구조는 조직화된 표제어의 總體로서 사전이 용자들이 찾아보기 편리하게 표제어를 일정한 순서로 체계화시켜 배열한 것을 말하며, 미시구조는 일정한 내적 구성을 지닌 사전 항목들로 標題項과 관련 하위 표제항에 대한 맞춤법·발음 표시의 음운론적 정보, 품사 및 그 하위분류의 표시·통사구조 등의 문법적 정보, 뜻풀이, 용례, 유의어·반의어·기타 관련어들의 정보 등 표제어에 이어서 전개된 항목들을 말한다. 이러한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는 사전 편찬자의 사전학적 결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현대 한국어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결과를 충분히 받아들여 우리 한국어 어휘의 요소 하나하나에 관련된 주요한 언어적 속성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등재·기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전 그 자체는 연구물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고 연구물로서 사전을 편찬하는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가 ‘辭典編纂學(Lexicography)’ 또는 ‘辭典學’<sup>6)</sup>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사전편찬학’과 ‘사전학’은 어떻게 다른가?

‘사전편찬학’은 서양의 용어인 ‘Lexicography’를 옮긴 용어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여러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사전 편찬을 위한 실천적 연구에 초점이 놓인다. 이와 달리 ‘사전학’은 일본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에 도입된 개념으로 이론적인 연구에 초점이 놓이는 학문이다. 이미 이루어진 연구물로서 사전이란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바로 사전학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사전학은 사전이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음운, 문법, 의미 등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

보완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6) 이러한 견해와 용어에 대해서는, 이상섭, 「현대 사전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인문과학』 62 (연세대학교, 1989), 『사전편찬학연구』 제3집(탑출판사 재수록), 77~81쪽, 이병근, 「사전 및 사전학」,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동아출판사, 1990), 555쪽 참조.

두 필자의 견해는 상이하다. 이병근은 ‘사전학’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상섭은 서양용어 그대로 ‘사전편찬학’만 인정하면서 ‘사전학’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필자는 이병근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사전학’의 개념을 재정립해 보았다.

다. 이러한 사전학은 국어사전에 담아야 할 언어정보의 記述 方式 이외에 編輯·出版 등의 실천적이고 技術的인 문제들에 앞서 국어사전에 실릴 標題項들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언어학적인 면에서 검토·분석하여 사전 편찬의 기본 이론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사전편찬학은 다른 과학·기술 영역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應用言語學이라 할 수 있고, 사전학은 標題項에 대한 언어학의 여러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종합적인 純粹言語學에 가까운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학'의 관점에서 우리 국어사전에서 표제어의 '뜻풀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실천적 연구로서 '사전편찬학'을 度外視한다는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는 '사전학'은 없고 '사전편찬학'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전 편찬을 위한 언어학적 이론들이 일찍부터 발전하였고 이 연구에서 말하는 '사전학'은 '사전편찬학'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사전학에서 정립되어야 할 이론적 체계에 새로운 시야를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연구에서 표제어의 '뜻풀이' 문제를 다루려는 것은 이것이 일차적인 정보라는 생각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사전은 미시구조로서 음운론적 정보, 문법적인 정보, 표제어의 의미 정보, 정확한 용법의 用例 情報, 유의어·반의어 등의 관련 항목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제어의 의미 정보, 곧 '뜻풀이'라 생각한다. 왜냐 하면 사전이용자들이 일차적으로 사전을 찾는 이유가 단어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올바른 어문생활에 深大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뜻풀이는 표제어 문제와 함께 국어사전의 2대 구성 성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트만도 "사전 제작에서 기본 단위는 語彙素(lexeme), 또는 語彙單位(lexical unit), 즉 형태와 의미의 긴밀한 結合體"라고 했다. 곧 언어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소, 즉 표제어들을 선정·배

7) R.R.K. Hartmann, *Theory and Practice in Dictionary Marking,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R.R.K. Hartmann, ed.), London: Academic Press, 1983, pp. 4~11.

열하는 것과 뜻을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임을 언급한 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필자는 기존의 국어사전들 가운데서 신기철·신용철 편 『새우리말큰사전』,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이기문 편 『동아 새국어사전』 등 5종의 사전<sup>8)</sup>과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sup>9)</sup>을 텍스트로 하여 그 뜻을풀이를 비교·분석하여 비체계적이고 부정확하며 난해한 뜻풀이 방식을 검토해서 ‘의미론’의 이론에 충실하고 체계성과 정확성, 간결성, 용이성을 갖춘 표제어의 뜻풀이 방법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2. 표제어 뜻풀이의 문제점과 뜻풀이 원칙

### 1) 뜻풀이의 문제점

우리 국어사전들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미 이상복(1987), 이기동(1987), 심재기(1989), 이익환(1992) 등의 연구자들이 지적했다.

- 8) 이 5종의 사전을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국어대사전』과 『새우리말큰사전』은 가장 널리 애용되는 국어사전이며, 『우리말큰사전』은 순수국어사전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금성판 국어대사전』은 신정서법 적용·어원 최초 제시·여러 작품에서 수집한 용례 제시 등 다른 국어사전들이 지니지 못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아 새국어사전』은 휴대용이지만 국어학자가 직접 감수하고 대사전적 체계를 따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사전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다른 휴대용 사전(중사전)들보다 정보 표시에 충실하고 있어서 既刊된 국어사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사전들에 대한 비교·검토는 ‘김문창, 『상세서』(1994) 참조 중사전들에 대한 비교·검토는, ‘김술용, 『어휘평가에 따른 고교생용 사전 활용의 문제점』, 『함께 여는 국어교육』 제16호(전국국어교사모임, 1993), 45~74쪽’ 참조.
- 9)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은 1992년부터 착수하여 1999년 10월 9일 발간될 때까지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국가적 사업이었다. 이 사전은 기존의 사전 편찬의 문제점과 표제어 선정 및 뜻풀이 방식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편찬되었다. 그리고 기존 사전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잡음으로써 언어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새국어생활』 10권 1호(2000)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http://www.korean.go.kr/06\\_new/dic\\_view.jsp](http://www.korean.go.kr/06_new/dic_view.jsp))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사전도 실제 표제어의 뜻풀이 방식에서는 기존 사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상복은 엄격한 의미의 언어사전으로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①백과사전과 언어사전의 혼합 성격, ②표제어에 대한 언어정보가 부정확하고 빈약, ③뜻풀이 방식의 순환 정의가 많음, ④통시적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기동은 기존 국어사전의 뜻풀이 문제로 ①단순 대치형, ②무용한 풀이[풀이가 주어졌으나 사실과 맞지 않는 것], ③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처리 문제, ④부족한 풀이[여러 가지 풀이가 주어졌으나 어느 풀이가 어느 경우에 쓰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를 지적했다. 또한 심재기는 ①전문 용어의 바른 뜻풀이를 찾는 일, ②체계가 없는 뜻풀이, ③잘못된 뜻풀이, ④불충분한 용례 제시 등을 말했고, 이익환은 ①순환성의 문제, ②뜻풀이 어휘의 난해성, ③여러 가지 뜻의 나열 순서를 들고 있다. 필자가 5종의 사전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과 견해가 大同小異한데 표제어의 뜻풀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내린 국어사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순환성의 문제

순환적 뜻풀이의 문제점은 주로 類義語群에 관련된 문제로서 국어사전을 많이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는 어떠한 낱말의 뜻을 찾았을 때 單純代置式의 뜻풀이를 볼 수 있는데, 그 대치된 낱말을 찾아가면 또다시 처음 낱말로 뜻풀이가 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회승 편 『국어대사전』에서 뽑은 다음의 예를 본다.

(1) 대:강<sup>2</sup> 【大綱】(大綱) / 대강령(大綱領). (大綱) 일의 중요한 부분만으로 대총.

일추. 건정~ 해치위랴.

대:총<sup>2</sup> 【大總】(大總) 대강으로서의 온통. (大總) → 대총.

대총<sup>4</sup> (大總) [←대총(大總)] 대체로 추리는 정도로 대강(大綱). 『일이 ~ 끝나다.

대:강-대:강 【大綱大綱】(大綱) 여러 가지를 다 대강. 대총대총. 『시간이 없으니

~ 하시오

대충-대충 ㉞ 여럿을 다 대충. 대강대강. ㉞~ 해치우자.

얼추 ㉞ ①대강. 대충. ㉞일이 ~ 끝났다. ②거의 가깝게. ㉞~ 다 왔다.

건정<sup>2</sup> ㉞ 대강. ㉞~ 해치우다.

‘대강’이란 말을 찾을 때는 큰 혼란이 없다. 그렇지만 유의어로서 처리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충, 얼추, 건정’의 뜻을 함께 찾아보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고 뜻을 이해하는 데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 ‘얼추’와 ‘건정’은 ‘대강/대충’의 두 낱말 또는 한 낱말로써 유의어를 이용한 뜻풀이를 하고 있다. 사전 이용자가 ‘얼추’와 ‘건정’의 뜻을 알고자 ‘대강’과 ‘대충’을 찾는다면 서로 유의어임을 밝히고 있으나 그 뜻풀이는 ‘대강’은 “일의 중요한 부분만으로”, ‘대충’은 “대체로 추리는 정도로”로 되어 있어 서로 다른 뜻의 낱말로 인식되게 한다.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혼란은 겹말인 ‘대강대강’과 ‘대충대충’에서는 더욱 커진다. 뜻풀이에 ‘대강/대충’을 서로 사용하여 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한다.

(2) 노랗다<노라니·노라오>㉞(ㅎ 변) ① [개나리꽃같이] 새뜻하고 매우 노르다.

<누랗다. ② [속] 매우 위축(萎縮)되거나 시들어 기세가 꺾여 있다. \*삭이 ~.

노르다<-니·-러>㉞(리 변) 등색(橙色)과 녹색 중간의 빛으로 황금이나 쇠쇠의 빛깔같이 노랗다. 새뜻하고 질게 누르다. <누르다.

누랗다<누러니·누러오>㉞(ㅎ 변) 몹시 누르다. >노랗다①.

누르다<sup>2</sup><누르니·누르러>㉞(리 변) [빛같이] 황금이나 호박꽃의 빛과 같다.

무지개의 셋째 빛깔과 같다. >노르다.

- 『새우리말큰사전』<sup>10)</sup>

10) 자료로 삼은 국어사전들의 배열순서는 필자가 텍스트로 삼은 사전들의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① 『새우리말큰사전』(1974), ② 『국어대사전』(1982), ③ 『우리말큰사전』



- (3) 노랗다<sup>형</sup><sup>어</sup> ① 개나리꽃 같은 빛이다. 매우 노르다. <누렇다. ② <속>매우 위축(萎縮)되거나 시들어 기세가 꺾여 있다. 『싸수가~ /노랗게 시들다. 노르다<sup>형</sup><sup>어</sup> 황금이나 낫쇠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 <누르다. 누렇다<sup>형</sup><sup>어</sup> 매우 누르다. >노랗다. 누르다<sup>2</sup><sup>형</sup><sup>어</sup> 낫쇠나 금의 빛과 비슷한, 좀 어두운 노른 빛이 나다. >노르다. - 『국어대사전』

- (4) 노랗다<sup>그</sup><sup>어</sup> ① 질게 노르다. (비)노란 개나리꽃. 노란 저고리. <sup>㉠</sup>누렇다. ② 싸수가 노랗다. ⇨ 싸수. 노르다<sup>2</sup><sup>그</sup><sup>어</sup> 산뜻하게 누르다. <sup>㉡</sup>누르다. 누렇다<sup>그</sup><sup>어</sup> 질게 누르다. (비)누런 강아지. 누렇게 익어 가는 벼. <sup>㉢</sup>노랗다<sup>1</sup>. - 『우리말큰사전』

- (5) 노랗다[-라타]<sup>형</sup><sup>어</sup> <노라니, 노라오, 노래>[<sup>㉠</sup>누렇다] ① 산뜻하게 매우 노르다.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었다. <sup>㉡</sup>누렇다. ② 매우 위축되거나 시들어 기세가 꺾여 있음을 알잡아 이르는 말. 노르다<sup>형</sup><sup>어</sup> <노르니, 노르러>[<sup>㉢</sup>누르다] 황금, 낫쇠 등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 <sup>㉣</sup>누르다. 누렇다[-러타]<sup>형</sup><sup>어</sup> <누러니, 누러오, 누레> [ $\sqrt{\text{누렁}} = (\sqrt{\text{누르}} = 2 + \text{어} + \sqrt{\text{하}} = \text{') + -다}]$  매우 누르다. 『보리가 누렇게 익다. <sup>㉤</sup>노랗다. 누르다<sup>2</sup><sup>형</sup><sup>어</sup> <누르니, 누르러> 황금이나 낫쇠의 빛과 비슷하다. -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2), ④ 『금성판 국어대사전』(1992), ⑤ 『동아 새국어사전』(1996), ⑥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6) 노랗다(노라니·노랄)㉞㉟ ① 빛깔이 매우 노르다. ㉞누렇다. ②[있이 노랑  
게 시들 듯]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다. ㉞썩수가 -.

노르다(노르러·노르러서)㉞㉟ ㉞개나리꽃이나 호박꽃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  
㉞누르다.

누렇다(누러니·누럴)㉞㉟ ㉞ 매우 누르다. ㉞누렇게 익은 벼 이삭. ㉞노랗다.  
누르다(누르러·누르러서)㉞㉟ ㉞ 개나리꽃이나 호박꽃의 빛깔과 같다.

-『동아 새국어사전』

(7) 노랗다[노 : 라타] [노래[노 : -], 노라니[노 : -], 노랑소[노 : 라쏘]]「형」  
「1」 병아리나 개나리꽃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노르다. 「2」 영양 부족이나  
병으로 얼굴에 핏기가 없고 노르께하다. 노르다노르러, 노르니」「형」 달걀  
노른자위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누렇다[누 : 러타] [누레[누 : -], 누러니[누 : -], 누렇소[누 : 러쏘]]「형」  
「1」 익은 벼와 같이 다소 탁하고 어둡게 누르다. 「2」 영양 부족이나 병으  
로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누르께하다. 누르다02[누르러, 누르니]「형」 황금이  
나 낫쇠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탁하다.

-『표준국어대사전』

(2)~(6)에서 보듯이 모두 순환적 뜻풀이를 하고 있다. (5)의 경우, ‘노랗다’  
의 기본뜻이 ‘산뜻하게 매우 노르다.’여서 ‘노르다’를 찾아가면 ‘황금, 낫쇠  
등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뜻을 이해하기가  
몹시 어렵다. ‘노랗다’에는 ‘노르다’를, ‘노르다’에는 ‘노랗다’를 이용하여 동  
의어 반복이나 다름없이 뜻풀이를 하고 있다. (2)의 경우는 혼란이 더욱 심하  
다. ‘노랗다’와 ‘노르다’에서 서로 엇바뀌가면서 순환적 뜻풀이를 하는 문제  
점과 동시에 ‘노르다’보다 느낌이 센말이 ‘누르다’임을 ‘<’ 기호로 표시하고  
있으나, ‘노르다’의 뜻풀이를 보면 ‘~ 질게 누르다’라고 하여 오히려 ‘노르  
다’가 ‘누르다’보다 느낌이 센말인 듯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적 뜻풀이는 사전 이용자들이 표제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전을 이용하여 일차적인 단어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의미관계에 놓인 어휘들의 체계’를 살피 이러한 순환적 뜻풀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비해 (7)은 순환적 뜻풀이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안고 있다. 기준 낱말(표제어)을 설정하지 않고 뜻풀이를 함으로써 네 개의 낱말이 각각 다른 뜻을 가진 낱말처럼 생각하게 한다. 순환성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계열화, 체계화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 (2) 뜻풀이의 난해성 문제

뜻풀이에서 표제어보다 어려운 말의 사용은 더욱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여러 연구자들이 우리 국어사전의 뜻풀이에서 어휘 사용이 난해함을 지적하고 있다.<sup>11)</sup> 이익환(1992)의 논의에서 제시한 예를 보면, ‘이미/별써/기이/기위’의 뜻풀이에서 ‘이미’보다는 ‘기이(既已)’나 ‘기위(既爲)’가 사용빈도수가 낮고 더 어려운 말일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미’의 뜻풀이에 동의어라는 표시 없이 ‘기이’와 ‘기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표제어 ‘이미’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 이익환(1992)의 논의에서 한 가지 예를 직접 인용해 본다.

보온(保溫) : 일정한 온도를 보전함.

보전(保全) : 보호하여 안전하게 함.

보호(保護) : 보전하여 호위함.

안전(安全) : 평안하여 위험이 없음.

호위(護衛) : 따라다니며 지켜 보호함.

11) 이익환, 「국어사전 뜻풀이와 용례」,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국립국어연구원, 1992), 30~54쪽, 김슬음, 『전개서』(1993) 등 참조.

이 예를 보면, ‘보온’의 뜻을 알려면 ‘보전’의 뜻을 알아야 하고, 다시 ‘보전’의 뜻을 알려면 ‘보호’와 ‘안전’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호’의 뜻을 알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 이외에 또 ‘호위’의 뜻을 알아야 한다.<sup>12)</sup>

표제어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뜻풀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어휘의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한다. 국어사전은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쉽고 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사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을 이용할수록 어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누가 국어사전을 펼쳐 보겠는가. 그러므로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뜻풀이를 해야 한다.

### (3) 뜻풀이 항목의 배열순서 문제

여러 가지 뜻의 배열순서 원칙의 결여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뜻,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뜻, 또는 표제어의 역사적 의미 변천상 먼저인 뜻 등을 알려주는 데 미흡하다. 이는 우리 국어사전편찬에서 국어 어휘의 통시적인 면에서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와 공시적인 면에서 한 표제어가 갖는 여러 뜻의 사용 빈도에 대한 기초 연구가 빈약한 실정이고, 어휘 의미의 聯關關係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뜻풀이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에서 뜻의 배열순서가 제각각인 것은 본격적인 ‘사전학’ 연구가 없어 뜻의 배열순서에 대한 체계 없이 집필자의 直觀에 따라 그때그때 뜻을 배열하면서 풀이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최근에 사전편찬학 연구에서 ‘몽치언어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상섭(1991)은 ‘Corpus Linguistics’를 ‘몽치언어학’이란 용어로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를 했으며 사전 편찬의 필수적 개념으로 여

12) 이익환, 『상계서』(1992), 43쪽.

기고 몽치언어학에 따른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문제를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한 언어의 사례를 대량 수집함으로써 그 언어의 판단에 관한 타당성의 확률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최소한 100만 마디의 ‘말뭉치’를 기본으로 그 빈도수를 측정하여 빈도수가 높은 차례로 뜻을 배열하는 것도 역시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sup>13)</sup>

뜻풀이 항목의 배열순서는 특히 ‘다의어’의 뜻풀이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어휘들이 ‘다의어’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뜻풀이를 하는 것이 올바른 뜻풀이 과정이라 한다.

#### (4) 잘못된 뜻풀이와 표제어 선정의 문제

우리의 국어사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오류들은 과학 분야, 일본식 한자어, 무분별하게 도입한 일본식 영어 따위에서 찾을 수 있다.<sup>14)</sup>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국어사전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어휘들이나 이제는 순화해서 바꿔 써야 할 말들을 그대로 실고 있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국어학자들도 순수 일반어휘가 아닌 전문어, 학술어 따위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정확하게 뜻풀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휘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오류 없이 사실에 맞는 뜻풀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미승우(1987)에 따르면 동물명의 표제어인 경우 무작위로 추출해서 살펴 보더라도 많은 어휘가 우리 국어사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일본에서 ‘때

13) 이상섭, 「몽치언어학 : 사전 편찬의 필수적 개념」, 『사전편찬학연구』 제3집(담출판사, 1991), 173~183쪽.

14) 우리말에서 청산하거나 삼가서 써야 할 일본식 한자 어휘에 대한 연구는 ‘국립국어연구원’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돋보이는 몇 편의 논문이나 단행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신항, 「일본 한자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국립국어연구원, 1995), 27~60쪽, 김광해,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국립국어연구원, 1995), 3~26쪽, 미승우,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들」(범우사, 1987), 121~142쪽, 송민,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국어연구소, 1988), 25~34쪽, 최규일, 「방송과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말 순화」,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국립국어연구원, 1995), 116~162쪽.

까치'를 뜻할 때에 쓰는 한자말인 '百舌鳥'나 '자주호반새'로 풀이한 '山翽翽' 따위를 표제어로 올려놓는 잘못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자주호반새'는 우리말에 없으며, 우리나라에는 자춧빛 호반새도 없고, 이는 우리말로 '청호반새'인데 과학적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본식대로 표제어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식 어휘를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잘못된 어휘를 바로 잡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표준국어대사전』마저 '자주호반새'를 표제어로 싣고 '청호반새'와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어휘의 근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표제어를 설정하고 등재했다는 말이 된다.

최규일(1995)은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어휘의 실태와 그 순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예시되고 있는 일본식 어휘 대다수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다. 서구 문명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말에 일본어의 간섭이 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체성을 살려야 할 용어들마저 주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본식 관점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크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전문 용어, 순화되지 않은 일본식 어휘들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보충 설명도 없이 국어사전에 올라 있다.

국어사전은 어휘에 관해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어사전은 교육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실었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지식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특히,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에서도 일본식 한자어나 잘못 받아들여 쓰는 말 따위는 엄밀히 가려내어 신지를 앓거나 신더라도 어원을 밝히고 바른 풀이로 안내해야 할 것이다.

##### (5) 용례 제시의 문제

“사전에 용례를 보이는 일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로, 표제어가 나타나는 용례는 그 표제어의 풀이된 뜻을 사전이용자에게 분명히 밝혀 준다. 즉, 풀이된 뜻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쓰이고 있는

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용례는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이 문장 구성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즉, 학습자가 익힌 표제어의 뜻을 근거로 하여 구축될 수 있는 가능한 문장에 대한 안내 구실을 한다. 따라서 용례는 평이하고 표준 문형을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sup>15)</sup> 특히 동사, 형용사 항목인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모범적인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용례만 보고 표준 문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용례는 어휘에 대한 살아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낱말의 의미가 그 자체의 의미보다 문맥 안에서 사용된 의미가 더욱 중요한 법이다. 그러므로 용례 제시를 통해서 사전 이용자들에게 뜻풀이 정보나 문법 정보의 미진한 점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낱말에 관해 이해를 더욱 쉽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 국어사전들은 용례 제시가 빈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국어사전에서는 일반적인 용례가 부족할뿐더러, 뜻풀이에 따른 적절한 용례가 제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sup>16)</sup>

(8) 굶다<sup>1</sup> ㉠ 이곳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되다. \*그는 빛을 얻어 돈을 벌려다가 도리어 굶았소

굶다<sup>2</sup> ㉠ 한쪽으로 휘다. <굶다<sup>1</sup>.

굶다<sup>3</sup> ㉡ [작은 물체가] 곧지 않고 한쪽으로 휘어 있다. <굶다<sup>1</sup>.

굶다<sup>6</sup> ㉢ ① [식초나 살구 따위 신 것을 먹어서] 이뿌리가 저리고 시금시금하다. ② [추위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 놀리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 『새우리말큰사전』

(9) 굶다<sup>1</sup> ㉠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다. ¶장사를 하려면 굶기도 일

15) 이익환, 『전제서』(1992), 51쪽.

16) 정호성, 『종합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Ⅱ』,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국립국어연구원, 1995), 63쪽.

수니라.

굽다<sup>4</sup> ㉞ 바르지 아니하고 고부라져 휘어 있다. <굽다<sup>3</sup>.

굽다<sup>5</sup> ㉞ ① 신 것을 먹은 뒤에 이 뿌리가 저리고 시금시금하다. ②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몹시 차서 감각이 없고 잘 움직여지지 아니하다.

—『국어대사전』

(10) 굽다<sup>4</sup> ㉞(제)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되다. (비)그는 큰 돈을 벌  
어 보겠다고 광산업에 손대었다가 도리어 곱고 말았다.

굽다<sup>5</sup> ㉞ 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몹시 시리어 놀리기가 어렵다. (비)손이 곱  
아 글씨를 잘 쓸 수 없었다. ② 신 것을 먹어서 이가 저리다. (비)모과,  
살구 같은 열매는 말만 들어도 이가 곱아지는 것 같다.

굽다<sup>6</sup> ㉞ 비교적 작은 물체가 곧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휘어 있다. (비)안으로  
좀 곱은 듯한 아기의 다리. ㉞굽다<sup>3</sup>.

—『우리말큰사전』

(11) 굽다<sup>4</sup> [- 따] ㉞(자)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다.

굽다<sup>4</sup> [- 따] ㉞ ①(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자유  
롭지 못하다. ㉞손이 곱아 글씨를 쓸 수 없다. ②(신 것을 먹은 뒤에 이뿌  
리가) 저리다.

굽다<sup>5</sup> [- 따] ㉞ 곧지 않고 휘어 있다. ㉞굽다.

—『금성판 국어대사전』

(12) 굽다<sup>1</sup> ㉞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다.

굽다<sup>2</sup> ㉞ 한쪽으로 조금 휘어 있다. 고부라져 있다. ㉞굽다<sup>3</sup>.

굽다<sup>3</sup> ㉞ ①신 것이나 찬 것을 먹은 뒤에 이뿌리가 저리다. ②추위 때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차서 잘 움직여지지 아니하다.

—『동아 새국어사전』



이 (8)~(12)은 우리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어휘들이다. 사전 이용자들은 이 어휘들을 찾았을 때 용례를 보고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휘들일수록 뜻풀이 항목마다 충실하게 용례 제시를 해야 하는데 (10)를 제외하고는 거의 용례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특히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에는 용례의 중요성이 크므로 그 용례를 보고서 문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용례 제시를 더욱 충실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어사전들은 그런 점에서 매우 부족하다.

이 용례 제시의 문제만큼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장 개선이 잘 되었다. 용언인 경우는 모든 뜻풀이 항목마다 용례를 제시하여 언어생활의 편의를 도모했다.

## 2) 뜻풀이 원칙

제1절에서 논의한 뜻풀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뜻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뜻풀이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표제어 문제와 함께 국어사전의 2대 구성 성분을 이룬다.<sup>17)</sup> 하트만도 “사전 제작에서 기본 단위는 어휘소(*lexeme*), 또는 어휘 단위(*lexical unit*), 즉 형태와 의미의 긴밀한 결합체”<sup>18)</sup>라고 했다. 곧 언어 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소, 즉 표제어들을 선정·배열하는 것과 뜻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임을 언급한 말이다. 사전 이용자들은 일차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사전 이용자들에게 가장 표준적이고 규범적이며 언어생활의 길잡이 구실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17) 정순기·리기원, 『사전편찬이론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4), 9쪽[『복한어학 자료총서』 411(담출판사, 1989)].

18) R.R.K. Hartmann, *Theory and Practice in Dictionary Marking, Lexicography : Principles and Practice*(R.R.K. Hartmann, ed.), London : Academic Press, 1983, pp.4~11.

는 기존 국어사전들이 뜻풀이를 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뜻풀이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는 일은 바람직한 뜻풀이를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선 기존 사전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 뜻풀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이 순서이다. 기존의 사전들이 채택하고 있는 뜻풀이의 원칙은 사전의 첫머리에 있는 ‘일러두기’에 제시되고 있다. 辭典別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보기’는 생략함]

#### (가) 새우리말큰사전

##### \* 풀이<sup>19)</sup>

1. 어휘의 풀이는 소략(疏略) 추상에 흐르지 않고 정확한 독립적 개념을 잡아 과학적인 방식으로 뜻을 간명하게 쉬운 말로 밝히기에 힘썼다.
2. 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풀이 끝에, 동의어·예문·삽화도 많이 실어, 익히기에 편하도록 했으며, 준말·원말·변한말·사투리·센말·거센말·상대말·반대말·취음·참고어·큰말·작은말·높임말·낮춤말 등의 관계도 밝혔다.
3. 동의어 및 원말·변한말·준말 등은 따로 풀이하지 않고 주된 말에서 찾도록 표시했다.
4. 변칙 용언은 원칙적으로 변칙 부호와 끝바꿈의 예를 보이되, ‘-스럽다’·‘-하다’와 복합되거나 파생된 말은 변칙 부호만을 보였다.
5. 말뜻이 여럿으로 갈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것, 어원에 가까운 것부터 ①②③의 번호를 붙여 열기(列記)했으며, 더욱 세분(細分)할 경우에는 ㉠㉡의 부호를 썼다. (하략) …

#### (나) 국어대사전

##### \* 해석의 방식

19) 이 소제목은 각 사전마다 뜻풀이 원칙을 밝히고 있는 일러두기의 ‘소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1. 어휘의 풀이는 소략(疏略) 추상에 흐르지 않고 정확한 개념을 잡아 쉽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다.
2. 어휘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풀이 끝에 동의어(同意語), 용례(用例), 변한말, 준말, 어감의 강약과 대소, 상대어, 참고어 등을 밝혔다.
3. 한 어휘의 뜻이 여럿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원에 가까운 것 또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①②③…의 순으로 벌였다. 또, 한 표제 항목(標題項目)을 둘 이상의 품사(品詞)로 나누어 해설할 때에는 각각 그 품사 표시 앞에 □□□…의 번호를 붙였다.
4. 동의어에는 일일이 주석을 붙이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을 풀이하여 그 곳에 가 보도록 하였다.
5. 원말과 변한 말에 있어서도 그 중 하나에만 주석을 달았다. :※널리 쓰이는 말에 뜻풀이를 하였다.
6. 원말과 준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말에 주석을 달았다. (하략) …

(다) 우리말큰사전

\* 뜻풀이

- (1) 기본 뜻을 앞세우고 변저 나간 차례로 ①②③ …의 갈래를 보인다. 뜻의 갈래가 복잡한 경우는 먼저 I, II, …로 큰 갈래를 보이며, 또한 기본 뜻갈래에 포함되면서도 약간의 다른 특징을 띠는 경우에는 ㉠㉡…으로 나타낸다.
- (2) 한뜻말의 뜻풀이
  - ㄱ. 표준말과 표준말:※ 뜻풀이를 보인 말을 제시하여 찾아보도록 한다.<sup>20)</sup>
  - ㄴ. 준말과 본말:※ 본말에 뜻풀이를 하고 준말을 보인다.
  - ㄷ. 원말과 변한말:※ 널리 쓰이는 변한말에 뜻풀이를 하고 원말을 보인다.
  - ㄹ. 한자말·들은말들과 우리말:※ 우리말을 중심으로 뜻풀이 하고, 들은말

20) ※는 ‘보기’만을 제시하여 뜻풀이 방식을 밝히고 있는 것을 필자가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로는 한뜻말을 보이지 않는다.

口. 표준말과 표준말 아닌 말

사투리는 ‘→’표로 그 표준말을 가리켜 주거나, 표준말이 없는 사투리는 뜻풀이를 하고 그 지역을 도 단위로 밝혀 준다. 이때 전국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투리는 지역 밝히기를 생략한다.

비. 변말, 결말, 속된말, 낮은말 따위:※ 표준어를 제시하고, 변말, 결말, 속된말, 낮은말 따위를 밝힌다.

사. 잘못 쓰는 말, 쓰지 말아야 할 들은말 따위:※ →표로 표준어를 찾아가도록 한다.

(3) ‘~하다’ 풀이씨 따위의 뿌리.

ㄱ. 종래 이름씨로 다루어 온 ‘한자말-하다’꼴 그림씨의 뿌리와 서양말들 가운데 자립성이 없는 것은 이름씨로 다루지 않고 뿌리로 다룬다.

ㄴ. 종래 이름씨로만 풀이하고, ‘~하다’ 파생 움직임씨를 풀이 끝에 형태만 보이던 것을 이름씨와 아울러 ‘~하다’ 파생 움직임씨도 기본 올림말 자리에 다루도록 한다. 다만, 뜻풀이는 그 뿌리인 이름씨에 바로 기댈 수 있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고, 그 이름씨에 ‘가보라’는 표(ㄷ)로 대신한다.

(4) 그 밖

ㄱ. 풀이하는 월의 마침은 이름꼴(‘-ㅁ, -음’)로 하되, 둘째 월 이하는 베품꼴(‘-다’)로 한다.

ㄴ. 입음꼴, 하임꼴의 풀이도 ‘~을 당하다, ~게 되다/ ~게 하다’ 따위로 일반스럽게 풀이한다. (하략) …

(라) 금성판 국어대사전

\* 풀이

2.1. 풀이 원칙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되, 적확하고 구체적으로 핵심을 찌르도록 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막연하거나 너무 한정적이어서 편협하지 않도록 정보의

수위를 적정하게 하였다. ‘양말’을 ‘서양식 버전’으로 묘사하는 식의 한 시대 전의 표현법을 청산했고, ‘양복’을 ‘서양식 의복’으로만 묶어 놓는 시대착오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 2.2. 갈래

### 2.2.1. 품사의 갈래

한 표제어 안에서 품사가 둘 이상일 때는 I, II, III,……으로 갈랐으며, 같은 품사이나 종속 단위로 나눌 때에는 1, 2, 3,……으로 갈랐다.

### 2.2.2. 뜻 갈래

한 어휘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때에는 ①, ②, ③……으로 가르되, 사용 빈도가 높은 것, 또는 역사적으로 근원이 된 것부터 배열했다. (하략) …

## (마) 동아 새국어사전

### ▣ 어의(語義) 풀이

- ➡ 뜻 갈래: 말뜻의 갈래가 여럿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의(本義)를 먼저 풀이한 다음, 전의(轉義)·파생의(派生義)·변의(變義)의 차례로 늘어놓았다.
- ➡ 본의(本義)와 전의(轉義): 본의로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그 전의(轉義)나 변의(變義)가 널리 쓰이는 단어는, 본의를 [ ]로 묶고 전의 또는 변의를 내세웠다.
- ➡ 고사(故事)나 뒷이야기를 가진 말은, 그 고사나 뒷이야기의 대강을 말하여 개념 파악에 깊이와 정확성을 더하게 하였다.
- ➡ 용례(用例): 말뜻 풀이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절한 용례를 들어 그 말의 생동하는 모습을 보이였다.
- ➡ 동의어(同義語)의 풀이: 동의어가 여럿인 경우 일일이 풀이하지 않고 그 대표적인 표제어에서 풀이하였다.
- ➡ 분야 또는 시기 표시: 표제어나 말뜻의 갈래가 어떤 특수한 분야(부문)나 시대(시기)에 국한될 경우에는 풀이 앞에 그것을 밝혔다. [공, ‘조선 때, 고려 때, 지난날,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한방에서’ 따위.]

➡ 관련어(關聯語): 말뚝 풀이 끝에는 여러 가지 관련어(동의어·유사어·상대어·큰말·작은말 등)를 보이어 사전의 활용도를 높였다. (하략) ...

(바) 표준국어대사전

2. 뜻풀이 원칙

(1) 기본 원칙.

① 백과사전이 아닌 언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짧고 간결하게 뜻풀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더 주었다.

② 뜻풀이는 ‘정의항+ 부가 뜻풀이’로 나누었다. 정의항은 ‘종차+ 유개념’의 형식을 사용하였고 각 품사에 따라 그에 맞는 형식을 취하였다. 부가 뜻풀이에서는 서술형 종결 어미 ‘- 다’를 사용하였다.

<예> 가렛-장1[- 래짱/- 램짱]Ⅱ[민] 고싸움놀이에서 쓰는, 고의 머리 쪽에 가로로 댄 통나무. 땀꾼들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손으로 받쳐 들어 고를 움직인다.

③ 뜻풀이에서는 가능한 한 고유어와 본말을 사용하였다.

④ 다의어의 뜻풀이는 품사별로 Ⅰ, Ⅱ, Ⅲ .....과 같이 나누고 문형 정보별로 ①, ②, ③, .....과 같이 나누며 의미별로 ①, ②, ③ .....과 같이 나누었다.

⑤ 표제어가 특정한 문맥이나 상황에서 사용될 경우 뜻풀이 앞부분에서 그것을 밝혔다. 다만 용언의 경우 정의항이 용언의 형태일 때는 괄호 안에 밝혔다.

<예> 수건Ⅱ 궁중에서, ‘수건’을 이르던 말.

쉬2[쉬: ] ⅠⅡ 어린아이의 말로, 오줌이나 오줌을 누는 일을 이르  
는 말. =쉬야. ¶ 집에 와서 아기 기저귀를 보니 쉬도 한 번  
하지 않았다. ....

감다3[감: 따] [감아, 감으니] Ⅱ ..... ②(낮잡는 뜻으로) 웃을 입

다. ㉑ 비싼 옷을 몸에 감았다고 다 멋쟁이는 아니다.

- ⑥ 시대나 세부적인 전문 영역은 정의항 처음에 제시하고 쉽표로 다음 부분과 구분하였다.

<예> 곡-사위[-씨-]㉒[예] 탈춤에서, 오른발로 ‘ㄱ’ 자 모양으로 올리면서 오른손을 무릎 위에 얹고, 다시 발을 내리고 손은 원을 그리며 뒤로 가져가고, 반대쪽으로도 되풀이하는 춤사위.

- ⑦ 명사는 명사구로, 동사·형용사는 동사구·형용사구로, 부사는 부사구로 보이는 방식으로 정의항을 주었다.

<예> 가는-다랠다[-라타] [다래, -다라니, -다랠소[-라쏘]] ㉓  
아주 가늘다. ……

매우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

(사) 조선말대사전<sup>21)</sup>

## 5. 뜻풀이

### 1) 뜻풀이의 기본원칙과 일반준칙

… (상략)<sup>22)</sup>

- ③ 올림말에 대한 뜻풀이는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올림말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풀이하도록 하였다.
- ④ 뜻풀이에서는 문화어의 뜻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대사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쓰이지 않는 낡은 뜻도 일정한 전제밑에 다 밝혀주도록 하였다.
- ⑤ 사회정치용어와 일부 과학기술용어들은 그 본질적 내용 또는 개념을 정확히 풀이한 뒤에 필요한 보충 풀이를 덧붙여 주었다.
- ⑥ 고사와 유래가 있는 한자성어와 속어 및 성구, 속담은 그 고사, 유래와 의

21) ‘(사)조선말대사전, (아)조선말사전’은 이 연구에서 논의대상이 아니지만 뜻풀이 원칙을 우리 국어사전들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참고로 인용하였다.

22) ‘①, ② 항목’은 주체사상과 관련지어 뜻풀이 원칙을 설명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미적 근거를 밝혀주면서 그 뜻을 풀이하였다.

- ⑦ 한 올림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등<sup>2</sup>에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적극적인 뜻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발전의 과정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차례로 뜻 배열을 하였다.

## 2) 뜻풀이의 방식

- ① 올림말에 대한 풀이는 원칙적으로 뜻같은말로 대치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뜻의 기본표식을 잡아 직접 풀이를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뜻이 꼭 같은 뜻같은말에 대하여서는 그 중 하나에 풀이를 주고 다른 것은 풀이한 뜻같은말과 관계를 지어주었다.
- ② 한 단어 안의 여러 뜻은 수자를 부호 ○ 안에 넣어서 가라주었으며 아직 용근뜻으로까지 갈라지지 않은 뜻은 같은 번호 안에서 부호 D로 갈라서 주는 방식을 썼다.
- ③ 단어의 뜻과 쓰임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올림말이나 개별적인 뜻이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부문에만 한정되거나 일정한 문체론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제 또는 특성을 풀이의 앞과 뒤에 달아주었다.
- ④ 명사말뿌리와 《하다》,《되다》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동사가 새 뜻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풀이를 주지 않았고 명사말뿌리와 하다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형용사는 풀이를 주고 그의 어근적 단어는 《<○>하다》의 어근적 단어》라고 준 것으로 풀이를 대신하였다.
- ⑤ 여러 개의 뜻을 가진 올림말에서 뜻 파생의 갈래가 다르거나 문법적으로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하는 뜻은 I, II, III, IV 등으로 크게 갈라주는 방식으로 풀이를 하였다.
- ⑥ 올림말의 뜻풀이가 끝난 뒤에 필요한 경우에 뜻같은 말 또는 반대말을 주었다. 이때 그 뜻같은말이나 뜻반대말 앞에 부호 ⊕, ↔를 붙이었다.

## (아) 조선말사전

### 3. 올림말의 뜻풀이



- ① 뜻풀이는 일반적인 뜻을 쉬운 말로 간결하게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설명을 가할 때에도 되도록 간결하게 주기에 힘썼다.
- ② 사회력사적배경을 달리할 수 있는 일부 단어의 뜻풀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뜻을 기본으로 하여 풀이하는 원칙을 취하였다.
- ③ 올림말의 뜻과 개념은 오늘날 표준어에서 쓰이고 있는 기본적인 뜻을 주면서 중국에서의 조선어사용실정에 맞게 풀이하였다.
- ④ 한 올림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경우에는 ①, ②, ③...으로 갈라서 풀이하되 본의를 앞에 놓고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의가 우리의 언어생활과 떨어져 소극화되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의 뒤에 놓고 풀이하였다.
- ⑤ 뜻갈래가 복잡한 단어에서 몇 개의 중심적인 뜻이 갈라질 때에는 I, II, III...으로 갈라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 ⑥ 뜻이 같은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에서 뜻풀이를 하고 그 밖의 단어들은《⇒》로 보낸 단어에 가서 뜻풀이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뜻풀이를 한 단어의 뒤에는《=》를 하고 뜻이 같은 단어를 들어 주었다. (하략) ...

뜻풀이의 기본 원칙을 별도로 밝히고 있는 것은 (라)와 (바), (사)의 사전뿐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전마다 그 뜻풀이 원칙과 방식이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전들이 채택하고 있는 뜻풀이 원칙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풀이한다.
- ② 분명하고 쉬운 말로 풀이한다.
- ③ 어원에 가까운 것, 또는 일반적인 것(사용 빈도가 높은 것)부터 풀이한다.
- ④ 주된 말-본말과 가장 대표적 동의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변한말

-에만 풀이한다.

- ⑤ 풀이 끝에 동의어, 용례, 변환말, 준말, 원말, 센말·거센말·큰말·작은말, 높임말·낮춤말, 상대어, 참고어 등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표제어의 뜻풀이에서는 이와 다르게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면에서는 미흡함이 많다. 가령, 영어사전에서는 “뜻풀이로 사용하는 어휘의 수를 제한하고, 그 제한의 범위를 믿을 만한 연구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sup>23)</sup>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국어사전들은 뜻풀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그 원칙에 맞는 뜻풀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막연하다. 그리고 모든 표제어를 뜻풀이 원칙에 맞는 뜻풀이 방식에 따라 뜻풀이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기존 국어사전들이 채택하고 있는 뜻풀이 원칙을 바탕으로 앞으로 편찬될 우리 국어사전들이 지향해야 할 뜻풀이의 일반적 원칙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sup>24)</sup>

### (1) 체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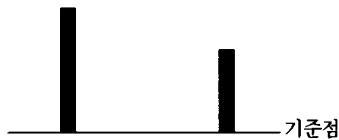
어휘의 의미관계는 형태와 의미가 1 대 1 대응관계인 系列關係와 結合關係, 1 대 다 대응관계인 複合關係로 대별할 수 있다. 계열관계는 어휘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를 말하며, 결합관계는 어휘소가 횡적으로 맺는 관계이다. 그리고 복합관계는 하나의 형태나 표현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23) 이익환, 『전개서』(1992), 44쪽.

24) 뜻풀이 원칙에 대해서는, 양명희, 『종합국어대사전의 집필지침 I』,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국립국어연구원, 1995), 36~57쪽, 정호성, 『전개서』(1995), 58~77쪽. 등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종합국어대사전』(가칭)을 편찬하기 위해 일반어 집필자들이 집필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뜻풀이 방식의 설명에 치우쳐서 기본 원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표제어 뜻풀이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표제어의 뜻풀이에서 이 ‘뜻풀이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뜻풀이의 원칙이 일반적 대원칙부터 구체적 세부 원칙까지 잘 제시된다면 표제어의 뜻풀이를 이에 맞춰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다음 기획에 해 볼 작정이다.

지니는 관계이다.<sup>25)</sup> 계열 관계를 이루는 어휘로는 유의어, 상·하위어, 반의어들이 있으며, 결합관계를 이루는 어휘로는 합성어, 관용어, 연어들이 있고, 복합관계를 이루는 어휘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들이 있다. 이렇게 의미관계로 체계화된 틀 속에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체계성<sup>26)</sup>의 원칙이다. 즉 국어사전의 표제어들을 유의어·반의어, 다의어·동음이의어 등으로 어휘군을 묶고 어휘의 의미를 서로 비교하여 뜻의 연관이나 구별이 뚜렷하도록 뜻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길다’의 뜻을 이해할 경우 대상을 비교하여 길이의 정도를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짧다’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연관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길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림 1>에서처럼 어떤 기준점(위치)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를 통해 그 정도를 인지하게 된다. 곧, ‘길다/짧다’는 평가 기준이 이처럼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없이 ‘길다’라든가 ‘짧다’라는 속성의 정도를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길다/짧다’는 그 뜻풀이를 같은 체계 안에서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의미 본질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25) 임지룡, 『국어의미론』(담출판사, 1995), 135~244쪽 참조

26) 체계성에 따라 어의(語義)를 밝히려는 연구보다는 ‘어휘 분류’의 전제로 삼는 연구 경향이 강하다. 이을환(1985)의 경우 소쉬르의 방법에 따라 “語義는 所記間의 聯想으로 인한 聯合關係, 能記間의 聯想으로 인한 聯合關係로, 다음은 所記와 能記의 兩面에 依한 聯合關係” 등으로 정리,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 어휘를 동의어, 반의어, 다의어, 동음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어휘를 체계화하여 의미를 살펴야 바람직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 (2) 정확성

뜻풀이에서 '정확성'의 원칙은 사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뜻을 보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뜻풀이 내용은 사실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 (13) 동요<sup>2</sup>(童謠) ㉠ 《문》 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心理)를 나타낸 정형시(定型詩), 또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구전 가요(歌謠). 동가(童歌).

— 『새우리말큰사전』

- (14) 동요<sup>2</sup> 【童謠】 ㉠ [문] 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心理)를 나타낸 노래 또는 가요(歌謠). 아동 문학의 한 부문으로, 아동이 쓰는 말로 아동을 위하여 어른이 지은 가요와, 아동 자신이 지어서 아동이 부르는 노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래(傳來) 동요와 아동 생활 중심으로 정서(情緒) 교육을 위하여 어른이 쓰는 현대의 동요로도 구분함. 동시(童詩)보다는 율동적(律動的)이고 민요적(民謠的)임. 동가(童歌). \*동시(童詩).

— 『국어대사전』

- (15) 동요(童謠) ㉠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노래. 동가(童歌).

— 『동아 새국어사전』

- (16) 동요<sup>2</sup>(童謠)[동: -]「명」 문학 장르의 하나로, 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를 표현한 정형시. 또는 거기에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 ≍ 동가<sup>05</sup>(童歌).

— 『표준국어대사전』

(13)는 ‘문학’ 분야에 한정하여 뜻풀이를 해 놓았다. (14)도 마찬가지이다. 百科事典의으로 전문 지식에 대한 뜻풀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 분야에서 ‘동요’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나쳐 사실에 맞지 않는 뜻풀이가 되고 있다. 『음악대사전』<sup>27)</sup>에서는 동요를 “①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심리 등을 아동 문학 용어으로써 표현한 定型的인 詩謠. … (중략) … ② 1항의 동요에다 곡을 붙인 것. 어린이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뜻풀이만 하고 있는 (15)의 뜻풀이가 더 합리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15)처럼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 오늘날처럼 대중가요가 전파를 타고 확산되는 시대에 어린이들이 특정 대중가요를 즐겨 부른다고 할 때 과연 이 노래를 동요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므로 좀 더 제한적이고 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16)은 문학과 음악의 두 분야에 맞춰 뜻풀이를 해 놓았다. 하지만 풀이상으로는 두 분야로 나뉘서 뜻풀이가 이루어졌지만, 문학 분야에서는 ‘문학 장르의 하나로’라는 전제를 한 반면 음악 분야에서는 음악 장르임을 밝히지 않고 뜻풀이(‘또는 거기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를 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정확성과 함께 국어사전의 교육적 측면을 생각할 때, (13), (14)의 잘못된 사항을 고치고 (15), (16)의 뜻풀이를 함께 아울러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풀이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내용, 창작자, 노래 주체 등이 드러나도록 일반적 뜻풀이를 먼저 하고 다음 항목부터 전문적 뜻풀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요(童謠) ㉠ ① 어린이들의 생활이나 심리·사상을 담아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에 의해 지어져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② [문학]……. ③ [음악]…….

이렇게 名詞類의 뜻풀이뿐만 아니라 문법 정보, 활용 등에 관련한 뜻풀이

27) 世光音樂大事典編纂委員會, 『音樂大事典』(世光音樂出版社, 1984).

도 마찬가지로이다.

- (17) 울다<우니·우오>㉠(르변) ①슬프거나 아프거나, 또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 <낮은>아가리질. ②[새나 벌레·짐승 따위] 지저귀거나 소리를 지르다. … (중략) … ⑦[병적으로]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다.

—『새우리말큰사전』

- (18) 울:다㉠(르변) ①정신적·육체적 자극을 견디다 못해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 ②새·짐승·벌레 따위가 소리를 내다. … (중략) … ⑦짐짓 어려운 체하다. ¶우는 소리를 하다. \*울음.

—『국어대사전』

- (19) 울:다<sup>2</sup>㉠(제)(르벳) ①아프거나 슬프거나 또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 ②짐승이나 벌레 따위가 소리를 내거나 지저귀다. … (중략) … ⑤발라 놓은 면이나 바느질 자리 따위가 우글쭈글하여지다. (비)슬기가 운다. 습기가 차서 장판이 운다. — ㉠ ‘울음’을 부림말로 쓰기도 한다. (비)구슬픈 울음을 ~.

—『우리말큰사전』

- (20) 울:대㉠(자)<우니,우오> ①슬프거나 아프거나, 또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 ¶우는 아기를 달래다. ②(새·짐승·벌레 따위) 소리를 내다.¶꽃 피고 새 우는 봄 동산. … (중략) … ⑦귀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다. ¶귀가 ‘앵’하고 ~.

—『금성판 국어대사전』

- (21) 울:다㉠ ①[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 ¶어

머니를 생각하며 - ② 새나 짐승·벌레 따위가 소리를 내거나 부르  
 짓다. 『새(귀뚜라미)가 - (중략) ⑦ 짐짓 어려운 채하다. 『네가 운다고  
 누가 도와 줄 줄 아니?

- 『동아새국어사전』

(19)에서 보듯이 ‘울다’는 ‘웃다’, ‘자다’, ‘살다’ 등과 같이 同族目的構文을  
 갖는 ‘타동사’의 용법이 있다. 그러나 (18)~(21)를 보면 (19)를 제외하고는 전  
 부 ‘자동사’로만 그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소리를 내어 눈물  
 을 흘리다.’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소리 없이 울고 있  
 다.’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는 모순된 표현인가? 문장 쓰임[용례]을 고려  
 하지 않은 사전 편찬자의 직관에 의해 뜻풀이가 행해진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우리 국어사전의 부정확한 뜻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의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표제어의 뜻풀이는 낱말 하나하나에 심  
 혈을 기울여서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 (3) 간결성

표제어의 뜻풀이를 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sup>28)</sup>, 실용적  
 이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 간단하고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결성  
 은 동사와 형용사 따위는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풀이하고, 명사 따위는 정의  
 형식에 따라 “被定義項(標題項 / 올림말)=定義項(意味 明示 / 뜻풀이)”<sup>29)</sup>  
 [종차+유개념]의 기본 구조로 뜻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고유 명사, 부사, 관형사, 대명사, 감탄사 등과 전문 용어, 호칭어,  
 관용구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흔히 메타언어<sup>30)</sup>적 정의를 피하려는 경향

28) 李庸周, 「辭典 註釋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7호(국어연구소, 1986), 84~101쪽, 김현권, 「언어사전의 정의의 유형과 原則」, 『한글』 제196호(1987), 457~468쪽, 이병근, 「辭典 定義의 유형과 原則」,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1992), 8~17쪽, 양명희, 『전개서』(1995), 37~49쪽 참조

29) 이병근, 『상개서』(1992), 8쪽.

30) ‘메타언어(metalanguage)’란 “어떤 언어를 분석·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고차원의 언어[기호]

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결성의 원칙은 기존 국어사전에 이미 채택되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는 대체로 간결하게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사나 부사, 조사 따위의 뜻풀이를 보면 장황하고 산만하게 뜻풀이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새우리말큰사전』에서 뽑은 다음의 예를 보자.

- (22) 마지기<sup>2</sup> [馬]는 · 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한 말 곡식의 씨를 뿌릴 정도의 넓이를 뜻하는 것으로 각 지방마다 다르나, 대개 논 150~300평, 밭은 100평 안팎임. 두락(斗落). \*한 ~. 스무 ~. x나기. 말디기.

(22)은 정의 형식에서 벗어난 장황한 뜻풀이이다. 이는 “한 말 곡식의 씨를 뿌릴 정도의 논·밭의 넓이. 두락(斗落). [대개 논 150~300평, 밭 100평가량.]처럼 뜻풀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곧 정의 형식에 따르고 부가적 설명이 있으면 [ ] 속에 덧붙여 놓으면 된다.

- (23) 머리<sup>1</sup> [頭]①<<생>>동물체의 목 위의 대뇌·소뇌·연수 따위의 감각기와 중추 신경이 들어 있는 부분. 두개골로 싸여 있음. 골2②. 두상(頭上). [한] 골통이. 대갈빠리. 대갈빠기. 대가리. 대갈머리. 대강이. 머리뺨. 머리통. 머릿골②. \*~에 운동모자를 쓰다. ②[사람의] 목 위의 부분. ①동물의 대가리. 곤충 따위에서는 배, 가슴을 제외한 부분. 더듬이, 겹눈, 또는 홑눈, 입 따위가 있음. ↔꼬리①. ③[어떤 사물의] 꼭대기 부분. \*삼각산 ~에 흰 눈이 덮이다. ①[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두목. \*그가 깡패의 ~로 놀 사람은 아니다. (하략) ...

체계”를 말한다. “언어가 아닌 어떤 대상에 관하여 말하는 언어를 對象 言語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대상 언어의 표현 내용에 관하여 말하는 언어를 이르는 말”(이희승, 『국어대사전』)이다.



‘머리①’과 ‘머리②’의 뜻풀이를 보면 ‘머리①’은 전문적 뜻풀이, ‘머리②’는 일반적 뜻풀이인데, 언어 사전에서는 구태여 ‘머리①’처럼 전문적 뜻풀이가 필요 없다고 여겨진다. ‘머리②㉠’의 부가적 뜻풀이도 오히려 상황함만을 준다. 그러므로 ‘머리①·②㉠’의 내용을 한꺼번에 풀이하여 “동물·사람의 목 위의 부분. 곤충 따위에서 배·가슴을 제외한 부분.”로 하는 것이 간결한 뜻풀이가 된다. 전문적 뜻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일반적 뜻풀이 항목 다음에 뜻풀이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뜻 항목 배열이다.

이처럼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면서도 짧고 간단하게 뜻풀이하는 것이 간결성의 원칙이다.

#### (4) 용이성

사전이 편찬되고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전이용자들이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이용자들이 일차적으로 사전을 찾는 이유는 단어의 뜻풀이를 알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뜻풀이는 쉽게 해야 한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많이 쓰이는 어휘들을 이용하여 쉽게 뜻풀이를 함으로써 사전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어사전들의 뜻풀이가 난해함은 이미 ‘뜻풀이의 난해성 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른 예를 더 보기로 한다.

- (24) 하늘㉠①<<천>>지평선(地平線)으로 한정되어 아득히 높고 멀리 궁륭상(穹窿狀)을 이루는 시계(視界)의 공간. 지평선상으로 보이는 반구형(半球形)의 것만이 아니라 지평선 밑으로 있을 다른 반구형을 포함하는 무한대의 공간으로서 공기의 분자(分子) 및 대기(大氣) 속에 부유하는 잔 먼지에 의하여 일광이 산란(散亂)되기 때문에 푸르게 보임. 한울. 상천(上天). 천(天). 태허(太虛). 민천(旻天). ¶답게 갠 푸른 ~. ②고대(古代)이 사상으로 천지 만물의 주재자(主宰者). 하느님. ¶~같이 민다. ③<<종>>천공(天空)에 있어 신(神) 또는 천인(天人)·천사(天使)가 살며 청정무구(淸淨無垢)하다는 상상(想像)의 세계. 사람이 죽은 뒤 그 영혼이 올라가

서 머무른다고 하는 곳. 천국(天國), 낙원(樂園), 神의 신(神), /~ 나라. ④ 자연의 이치(理致)·造化(造化)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인력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것. ⑤《불교》인간 이상의 것으로 삼승(三乘)의 과보(果報)를 얻은 성자(聖者), 곧, 모든 부처의 통칭.

—『국어대사전』

- (25) 하늘(天)①《천》지평선(地平線) 위 까마득하게 높고 먼 궁륭형(穹窿形)의 시계(視界). 천문학에서는 지평선 위에 보이는 반구형(半球形)의 것만이 아니라 지평선 아래에도 있을 다른 반구형을 포함하는 무한대의 공간을 이룸. 공기의 분자(分子) 및 대기(大氣) 속에 떠 있는 잔 먼지에 의하여 일광이 산란(散亂)되기 때문에 푸르게 보임. 한울, 상천(上天)①. 천(天). 태허(太虛). ②고대(古代)이 사상으로 천지 만물의 주재자(主宰者). ③《종》천공(天空)에 있어 신(神) 또는 천인(天人)·천사(天使)가 살며 청정무구(淸淨無垢)하다는 상상(想像)의 세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올라가서 머무른다고 믿어지는 곳. 천국(天國), 낙원(樂園). ④자연의 이치(理致)·造化(造化)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인력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것. ⑤《불》인간 이상의 것으로 삼승(三乘)의 과보(果報)를 얻은 성자(聖者), 곧 모든 부처를 두루 이르는 말.

—『새우리말큰사전』

이 (24)·(25)을 보면 그 뜻풀이가 꼭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전문적인 뜻풀이를 함으로써 보통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지하는 ‘하늘’에 대해 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名詞類의 경우에 어려운 낱말을 써서 뜻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늘’의 경우는 ‘사람의 머리 위로 보이는 넓은 공간’이라는 일반적 뜻풀이를 기본뜻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 뜻 項目부터 전문적인 풀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사전을 보더라도 ‘하늘’은 “sky : 1. the space we look up to from the earth, where we see the sun, moon and stars.”<sup>31)</sup>[해·달·별

들을 보게 되는, 지상에서 위로 바라다 보이는 공간]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제어보다 어려운 낱말을 사용하여 뜻풀이하거나, 일반적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고 전문적인 뜻풀이만을 하는 경우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낱말의 뜻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낱말을 이용하여 뜻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어사전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때 중학교 졸업 이상이면 사전의 뜻풀이를 보고 그 단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에 널리 쓰이는 기초 어휘에 관한 조사·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뜻풀이에 반영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뜻풀이 원칙은 서로 대립적이거나 별개의 것이 아니다. 상호 의존적이며 竝立的이다. 어떤 어휘를 뜻풀이하더라도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충실한 뜻풀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표제어의 처리 방법과 뜻풀이의 실제

지금까지 우리 국어사전에서 표제어의 뜻풀이는 ‘의미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제어의 뜻풀이는 어휘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므로 이론적인 틀 속에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이미 뜻풀이 원칙에 제시했지만 바른 뜻풀이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성과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뜻풀이를 체계적으로 하자면 ‘의미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 관계에 맞추어서 一目了然하게 해야 한다. 이 의미관계는 ‘계열관계’, ‘결합관계’, ‘복합관계’<sup>32)</sup>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계열관계’는 어휘

31) A.S. Hornby & A.P. Cowie,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1482.

32) 임지룡, 『전개서』(1995), 135~244쪽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의미론’에 대한 논리 전개가 쉽고 비교적 체계적이어서 그의 논의를 많이 참고하였다.

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로 유의관계, 상하관계, 대립관계 등이 있으며 ‘결합관계’는 대등합성어, 혼성어, 연어 따위처럼 어휘소가 횡적으로 맺는 관계이다. 이 둘은 1 대 1 대응관계라 하겠는데 이에 비해 ‘복합관계’는 형태와 의미가 1 대 다 대응관계를 말함이다. 사전의 뜻풀이에서는 이러한 의미관계에 따른 어휘들을 함께 살펴서 뜻풀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고 체계적인 뜻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체계성과 정확성을 갖춘 뜻풀이인가?

- ① 의미의 연관 관계에 있는 어휘군으로 묶는다.
- ② 기본 어휘를 선정하고, 원형적인 뜻을 찾아내어 ‘기본뜻’을 삼는다.
- ③ 기본뜻을 중심으로 확장 의미, 계열 의미 등을 살펴가면서 뜻풀이 한다.

①은 어휘군을 의미의 계열관계에 따라 유의어·반의어로, 복합관계에 따라 다의어·동음이의어로 묶는 것을 말한다. 그런 다음 뜻풀이를 하는 데 중심에 설 수 있는 어휘를 선정하고, 그 원형적인 뜻을 파악한다.②

③은 기본뜻을 기준으로 삼아 多義와 同音異義關係, 類義關係 등이 드러나도록 뜻풀이함을 말한다.

필자는 국어사전의 뜻풀이에서 체계를 세워야 할 것으로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문법형태소의 뜻풀이라 생각한다. ㉠·㉡·㉢는 의미의 연관관계에 따라 어휘군으로 묶고 그 연관성을 살펴서 뜻풀이를 하는 것으로 체계성과 정확성을 보장받게 된다. ㉣는 ‘격조사/활용어미/파생접사’ 따위로 ㉠나 ㉡과 같은 방식으로 뜻풀이가 가능하지만 문법적 기능을 갖는 어휘 소군들이기 때문에 그 뜻풀이를 따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유의어·반의어 및 다의어·동음이의어의 뜻풀이 방식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유의어의 처리 방법과 뜻풀이의 실제

### (1) 유의어의 처리 방법

어휘소간의 의미관계에서 형식 부문을 이루는 기호(symbol)들, 즉 S1과 S2가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어휘소들이 의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어휘소들은 형식 부문인 기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같거나 혹은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유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에 놓이는 어휘를 ‘유의어’라 한다.

우리가 보통 유의어라 함은 ‘의미상으로 비슷한 단어’를 말한다. 뜻이 같고 모든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하다면 ‘동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겠지만, 완전히 의미가 같은 동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의미론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임지룡(1995)에서는 동의관계를 인정하면서 ‘개념의미·연상의미·주제의미가 동일하며 모든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한 절대적 동의어’와 ‘문맥상 치환은 가능하나 개념의미만 동일하거나 제한된 문맥에서 개념의미·연상의미·주제의미가 동일하고 치환이 가능한 상대적 동의어’로 그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상대적 동의어’가 ‘유의어’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김광해(1993)의 견해를 따라 ‘유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sup>33)</sup> ‘동의어’라는 용어를 쓸 경우 아무래도 낱말의 뜻을 보거나 이론적 관점에서나 ‘뜻이 같은 말’의 용어로서 ‘뜻이 비슷한 말’의 의미까지 담아내기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의어’란 용어로서 ‘동의어[절대적 동의어]’까지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일정한 체계를 갖춘 국어사전이 되기 위해서, 유의어군에 관한 검토는 국어사전 전체의 체계성을 확보해 주는 하나의 방법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sup>34)</sup>

33) 임지룡(1995)은 ‘synonymy’를 ‘동의관계’, ‘synonym’을 ‘동의어’로 해석하는 데 비해, 김광해(1993)는 ‘synonymy’를 ‘유의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한 학자의 용어 사용에서도 단행본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울환(1985)에서는 ‘synonym’을 ‘동의어’란 용어로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 이울환·이용주(1985)에서는 ‘synonym’을 “유의냐? 동의냐?”란 문제 제기를 거쳐 ‘유의어’란 용어를 채택하여 기술해 나가고 있다.

## (2) 유의어 뜻풀이의 실제

김광해(1992)는 “좋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유의어군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유의어군의 검토가 표제어 뜻풀이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준다는 지적을 이미 한 바 있다<sup>35)</sup>.

따라서 유의어의 뜻풀이에서 ‘체계성’과 ‘정확성’을 갖춘 뜻풀이가 되기 위해서는,

- ① 유의어군에서 기본 어휘를 설정한다.
- ② 기본 어휘의 ‘기본뜻’을 일차적인 뜻으로 삼아 의미의 연관 관계에 따라 뜻풀이 한다.
- ③ 의미의 공통성이 큰[동의 관계에 가까운] 어휘군끼리 계열화하여 뜻풀이하고, 유의어를 제시한다.
- ④ 유의어 나열에서 그 순서는 사용 빈도수의 조사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어휘부터 나열하되, 고유어를 앞에 한자어를 뒤에 제시하도록 한다.
- ⑤ 의미의 공통성이 적은 어휘는 ‘ㄷX참고표’를 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뜻풀이를 하여야 하겠다.

특히 ①의 과정을 거쳐 어떤 뜻을 표제어의 첫 번째 뜻으로 삼을 것인가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정순기·리기원(1984)도 뜻의 분석에서 기본뜻을 확정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한다. 기본뜻은 여러 뜻 가운데 해당 어휘를 내용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뜻으로 언어생활의 기본

34) 김광해,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유의어」,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국립국어연구원, 1992), 121~122쪽.

35) 김광해, 『상계서』(1992). 類義語群 검토의 세 가지 이유로 ①사전 전체의 체계성 확보, ②각 단어의 뜻풀이에 정확성 확보, ③사전의 실용성 제고'임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어사전들은 ‘산만함과 비체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정확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풀이의 실제에 대한 논의에서 ‘의미 관계’에 대한 검토가 없이 類義語群 어휘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뜻풀이 역시 비체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영역에서 하는 구실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언중들의 현재 어휘 사용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그를 바탕으로 뜻의 배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언중들의 어휘 사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그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러므로 짧은 기간에 수고를 덜 들여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말뭉치’를 이용해서 어휘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일이다. 특히 오늘날은 컴퓨터를 이용한 ‘말뭉치’의 분석 작업이 수월하여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언제든지 자료를 추가할 수 있고 수정을 가할 수도 있어서 오늘날 전자사전 편찬 시대에 가장 알맞은 방법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컴퓨터 이용과 ‘말뭉치’ 활용에 의한 사전 편찬의 실제에서나 전통적 사전 편찬의 실제에서나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뜻풀이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사전 편찬의 실제 작업과정이 쉬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전 속에 포함될 내용, 곧 미시구조는 확고한 언어학 이론의 바탕 속에 놓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광해(1992)는 “예7: ‘바보’의 유의어”에서 ‘바보’를 기본 어휘로 삼아 다음의 인용처럼 모든 유의어군 어휘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바보 :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을 농으로 일컫는 말. 돈견(豚犬). 돈어(豚魚). 둔패기. 등상(等象). 등신(等神). 만황씨(萬黃氏). 맹꽂이, 맹추. 머저리. 먹통. 멀건이. 멍청이. 멍추. 멍텅구리. 목우인(木偶人). 못난이. 무너리. 바사기. 반병신. 반편. 반편이. 밥통. 방통이. 병신(病身). 부기. 북숭이. 상우(上愚). 숙맥(菽麥). 숙맥불변(菽麥不辨). 썩. 아둔패기. 어리배기. 어리보기. 얼간. 얼간이. 얼뜨기. 우물(愚物). 우부(愚夫). 우인(愚人). 우자(愚者). 인승무레기. 주우(朱遇). 죽반승(粥飯僧). 치매(癡呆). 치인(癡人). 치자(癡者). 치한(癡漢). 칠뜨기. 칠삭둥(七朔童-)이. 팔불용(八不用). 팔불출(八不出). 팔불취(八不取). 팔삭둥(八朔童-)이.<sup>36)</sup>

이러한 무원칙적인 나열보다는 위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I. 바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 못난이. 멍청이. 머저리②. 癡人. 癡者. 癡漢①.

菽麥②. 上愚. 萬黃氏. 朱遇②. <속>먹통①. 멍텅구리. <비>방통이.

못난이: =바보 멍청이. 머저리②. 癡人. 癡者. 癡漢①. 菽麥②. 上愚. 萬黃氏. 朱遇②. <속>먹통①. 멍텅구리. <비>방통이. ……

주우②: ①癡呆. ②=바보 못난이. 멍청이. 머저리②. 癡人. 癡者. 癡漢①. 菽麥②. 上愚. 萬黃氏. <속>먹통①. 멍텅구리. <비>방통이.

II. 맹추. 무엇이든지 곧잘 잊어버리고 흐리멍덩한 사람. <맹추. 멀건이.

멀건이: =맹추. 맹추.

III. 병신: (생략)④지력이나 재능이 보통사람보다 낮은 사람. 반편이. 반병신②. 반편②.

반편이: =병신. 반병신②. ㉞반편②. ……

IV. 팔불출. 몹시 어리석은 사람. 칠삭둥이. 等神. 八不用. 愚人. 愚者. 愚物. 八不取. 等像. <속>칠뜨기.

팔불출: =팔불출. 칠삭둥이. 等神. 愚人. 愚者. 愚物. 八不取. 等像. <속>칠뜨기. …… (하략) …

등과 같이 계열화하여 뜻풀이를 함으로써 ‘의미 관계’에 따른 뜻풀이를 하더라도 그 뜻의 차이가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① ‘노르다’의 유의어

우리 국어사전들은 유의어군 어휘들을 사전에 실을 때 과연 체계성을 갖

36) 김광해, 『전개서』(1992), 134~135쪽. 그런데 김광해는 유의어의 문제를 부사와 명사에 한정하여 살핌으로써 동사, 형용사 등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한 듯하다. 예를 들어, 동사 ‘죽다’의 유의어 정보를 제공할 경우 모든 뜻풀이 항목의 끝에 나열해야 할 것인지, 각 뜻풀이 항목마다 대치 가능한 유의어를 나열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동사나 형용사는 문형 정보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고 정확하게 뜻풀이를 하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상)’의 ‘3. 언어와 국어 (3)국어의 특질’ 단원에서 ‘어휘상의 특질’로 ‘감각어의 발달’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일례로 들었다.

노랗다, 노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노르톡톡하다, 노리께하다, 노리끼하다, 노리끄레하다, 노리무레하다, 노릿하다, 노릿노릿하다, 노리톡톡하다, 누렇다, 누리께하다, 누르끄레하다, 누르무레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릇하다, 누릇누릇하다, 누르톡톡하다, 누르칙칙하다, 셋노랗다, 시누렇다

이 어휘들의 의미의 유사점을 찾아내고 구분하려 할 때 과연 우리 국어사전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국어사전들은 어떻게 뜻풀이를 하였으며,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일까?

‘노랗다, 노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의 어휘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 (26) 노랗다<노라니·노라오>㉠(ㅎ 변) ①[개나리꽃같이] 새뜻하고 매우 노르다. <누렇다. ②[속] 매우 위축(萎縮)되거나 시들어 기세가 꺾여 있다.  
\*씩이 ~.

노르께-하다㉠(여 변)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누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르께하다.

노르무레-하다㉠(여 변) 산뜻하지 않고 열게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여 변) 태가 나고 산뜻하며 빛깔이 가장 열게 노르다. 노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릇-하다㉠(여 변) 좀 흐릿하게 노르스름하다. <누릇하다.

노릇노릇- 하다(㉠)(여변)

\*노릇- 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 『새우리말큰사전』

(27) 노랗다(㉠)(㉠) ①개나리꽃 같은 빛이다. 매우 노르다. <누랗다. ②<속>매우 위축(萎縮)되거나 시들어 기세가 꺾여 있다. ㉠썩수가~ /노랗게 시들다.  
노르께- 하다(㉠)(여변)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노르끄레하다. <누르께하다.

노르끄레- 하다(㉠)(여변) 노르께하다.

노르무레- 하다(㉠)(여변) 산뜻하지 아니하고 열게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 하다(㉠)(여변) 산뜻하고 열게 노르다. <누르스름하다.

노릇- 하다(㉠)(여변) 노르스름하다. ㉠벼 이삭이 ~. <누릇하다.

노릇노릇- 하다(㉠)(여변)

\*노릇- 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 『국어대사전』

(28) 노랗다(㉠)(㉠) ①질게 노르다. (비)노란 개나리꽃. 노란 저고리. ㉠누랗다.

②썩수가 노랗다. ⇨ 썩수.

노르께- 하다(㉠)(여변)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비)노르께한 은행잎. 얼  
굴이 ~. ㉠누르께하다. ㉠노리끼리하다.

노르끄레- 하다(㉠)(여변) →노르끄무레하다.

노르무레- 하다(㉠)(여변) 태가 나지 않게 약간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 하다(㉠)(여변) 빛깔이 조금 노르다. ㉠누르스름하다. ㉠노름하다?

노릇- 하다(㉠)(여변) 좀 노르스름하다. ㉠누릇하다.

노릇노릇- 하다(㉠)(여변) 군데군데가 다 노릇하다. ㉠누릇누릇하다.

- 『우리말큰사전』

(29) 노랗다[ - 라타]㉠㉡ <노라니, 노라오, 노래>[노누랗다] ①산뜻하게 매우 노르다.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었다. ㉡누랗다. ②매우 위축되거나 시들어서 기세가 꺾여 있음을 알잡아 이르는 말.

노르께 - 하다㉠㉡ [노누르께하다]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노르끄레하다. ㉠노르께한 탕자. ㉡누르께하다.

노르끄레 - 하다㉠㉡ [노누르끄레하다] =노르께하다.

노르무레 - 하다㉠㉡ [노누르무레하다] 산뜻하지 않고 열게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 - 하다㉠㉡ [노누르스름하다] 산뜻하고 열게 노르다. 노르스레하다. 노릇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르스름 - 히㉠㉡ 전을 노르스름히 부치다.

노릇하다. 표제어로 설정되지 않음(필자 주).

노릇노릇 - 하다㉠㉡ [나무에 병이 들어 잎이 모두 노릇노릇하다. / 빵을 노릇노릇하게 굽다.

\*노릇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 『금성판 국어대사전』

(30) 노랗다(노라니 · 노랄)㉠㉡ ①빛깔이 매우 노르다. ㉠누랗다. ②[잎이 노랗게 시들 듯]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다. ㉠썩수가 - .

노르께 - 하다㉠㉡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누르께하다.

노르끄레 - 하다㉠㉡ 노르께하다.

노르무레 - 하다㉠㉡ 산뜻하지 않고 열게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 - 하다㉠㉡ 산뜻하고 열게 노르다. 노르스레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릇하다. 표제어 없음.

노릇노릇 - 하다

노릇 - 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 『동아 새국어사전』

(31) 노랗다[노 : 라타] [노래[노 : -], 노라니[노 : -], 노랑소[노 : 라쏘]] 「형」

「1」병아리나 개나리꽃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노르다. 『생략』 「2」영양 부족이나 병으로 얼굴에 핏기가 없고 노르께하다. 『생략』

노르다[노르러, 노르니] 「형」 달걀 노른자위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노르께-하다 「형」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 노리끼리하다. 『생략』

노르끄레-하다 「형」 곱지 않고 얇게 노르다. 『생략』

노르무레-하다 「형」 산뜻하지 않고 얇게 노르다. §

노르스름-하다 「형」 조금 노르다. ≡ 노르스레하다, 노름하다<sup>02</sup>, 노릇하다.

『생략』

노릇-하다[ - 르타- ] 「형」 = 노르스름하다.

노릇노릇-하다[ - 른- 르타- ] 「형」 「1」 => 노릇노릇[1]. 『생략』 「2」 => 노

릇노릇[2]. 『생략』

노릇-노릇[ - 른- 른] 「부」 「1」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 노름노름

[1]. 노릇노릇이[1]. 『생략』 「2」 매우 노르스름한 모양. ≡ 노름노름

[2]. 노릇노릇이[2]. 『튀김이 노릇노릇 잘 튀겨졌다. §

- 『표준국어대사전』

이 (26)~(30)를 보면 표제어의 선정과 뜻풀이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표제어 선정의 비체계성을 볼 수 있다. (29)의 경우는 ‘노르스름하다’의 뜻풀이에 ‘노릇하다’를 유의어로 나열해 놓고도 ‘노릇하다’를 표제어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30)도 ‘노릇하다’를 표제어로 삼지 않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순환적 뜻풀이의 문제점이 눈에 띈다. (30)의 경우, ‘노랗다’의 기본뜻이 ‘산뜻하게 매우 노르다.’여서 ‘노르다’를 찾아가면 ‘황금, 낫쇠 등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뜻을 이해하기가 몹시 어렵다. ‘노랗다’에는 ‘노르다’를, ‘노르다’에는 ‘노랗다’를 이용하여 동의어 반복이나 다름없이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적 뜻풀이는 비체계적

뜻풀이의 대표적이라 할 만한데, 사전 이용자들이 표제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전을 이용하여 일차적인 단어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의미 관계에 놓인 어휘들의 체계’를 살펴 뜻풀이를 해야 한다.

‘노르스름하다’인 경우는 (26)~(30)에서 거의 같게 뜻풀이를 하고 있으나, ‘노릇하다’의 경우는 (26)~(28)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뜻풀이를 해 놓았다. ‘(26)좀 흐릿하게 노르스름하다, (27)노르스름하다, (28)좀 노르스름하다’로 되어 있어 그 색의 농도에서 차이가 나는 별개의 단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26)의 경우는 혼란이 더욱 심하다. ‘노랗다’와 ‘노르다’에서 서로 엇바뀌 가면서 순환적 뜻풀이를 하는 문제점과 동시에 ‘노르다’보다 느낌이 센말이 ‘누르다’임을 ‘<’ 기호로 표시하고 있으나, ‘노르다’의 뜻풀이를 보면 ‘~ 짙게 누르다’라고 하여 오히려 ‘노르다’가 ‘누르다’보다 느낌이 센말인 듯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26)~(30)의 뜻풀이를 보면 상호 연관성을 찾는데 혼란스러움이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어떤 낱말을 ‘기본 어휘’로 삼느냐이다. 그러나 우리 국어사전들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2)~(6)(10~11쪽)에서 보듯이 ‘노랗다/노르다/누렇다/누르다’ 중 어느 한 낱말을 기본 어휘로 삼아서 뜻풀이를 하고 있지 않다. (3)을 보면 ‘노랗다’는 ‘개나리꽃 같은 빛이다. 매우 노르다.’로, ‘노르다’는 ‘황금이나 놋쇠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로 뜻풀이해 놓아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가 어원 정보에 의해<sup>37)</sup> ‘노르다’를 기본 어휘로 삼는다면, 이 모든 어휘의 뜻풀이는 ‘노르다’의 뜻을 중심으로 삼아 뜻풀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31)은 체계화를 갖춰서 뜻풀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31)에서는 기본 어휘인 ‘노르다’의 뜻풀이가 부정확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달걀 노른자위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로 풀이함으로써 색깔은 비유 대상이 되어

37) ‘노르다’는 ‘노르다(석보상절:1447)’, ‘노랗다’는 ‘노라하다<노르+아+하다>(구급방언해:1466)’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노르다’를 기본 어휘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버리고 의미 중심이 ‘밝고 선명하다’에 놓이고 있다. 사전 이용자들이 하여금 ‘노란빛이 밝고 뚜렷하다.’의 의미로 받아들일도록 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노르다’의 뜻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가?

영어사전에서 보면, “yellow : the colour of gold or the yolk of a hen's egg.”<sup>38)</sup>[노랑 : 황금 또는 달걀의 노른자 색깔]로 색깔과 관련된 낱말의 뜻풀이는 자연물에 빗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로서도 이러한 뜻풀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르다’를 ‘활짝 핀 개나리꽃 또는 황금빛이나 달걀노른자의 색깔이다.’로 뜻풀이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사전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 이렇게 기본 의미가 확정되면 이 기본 어휘를 바탕으로 연관된 어휘의 뜻풀이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어휘 간의 의미 차이까지 드러나는 뜻풀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뜻풀이를 체계적이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노르다(-니 · -러)㉠(러변) 활짝 핀 개나리꽃이나 황금빛의 색깔이다. ㉠ 예문.

<누르다.

노랗다(노라니 · 노라오)㉡(ㅎ 변) ① 매우 밝게/산뜻하게 노르다. ㉠ 예문. ⇨ 노

르다. <누렇다.

누렇다(누러니 · 누러오)㉢(ㅎ 변) 약간 어둡게 노르다. ㉠ 예문. >노랗다①.

누르다(누르니 · 누르러)㉣(러변) 매우 짙게 노르다. ㉠ 예문. >노르다.

노르께-하다㉤(여변) 곱지도 짙지도 않게 노르다. ㉠ 예문. <누르께하다.

(하략) ...

## ② ‘홍’의 유의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어는 1 대 다 대응 현상을 보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순수 국어 어휘의 유의관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유어와

38) A.S. Hornby & A.P. Cowie(1974), op. cit. , p.1847.

한자어의 유의관계 어휘들을 한꺼번에 살펴서, 서로의 의미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뜻풀이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련의 유의어군에서는 현재 널리 쓰이는 고유어를 기본 어휘로 삼아서 이 기본 어휘의 뜻과 관련하여 다른 어휘들의 뜻풀이를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유의어들은 김광해의 『유의어·반의어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그 뜻을 5종의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것이다. 대체로 모든 어휘들이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32) 결점(缺點)[-점]㉠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흠으로 되는 점. 결함. 단점. 흠절

(欠節)①. \*~을 고치다. 그는 재주는 있으나 딱하는 것이 ~이다.

군:-티㉠ 물품의 조그마한 허물.

일'㉠ ①결에 드러난 흠. \*조금도 ~이 없다. ② →인결.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나 해.-필자 주.] ③사고 또는 탈. \*자네가 ~ 없이 잘 해 준다면 나중 일은 걱정 없네.

자병(疵病)㉠ : 표제어 없음.

자하'ᄃᆞᆫ(疵瑕)㉠ =하자(瑕疵).

티'㉠ ①재·흠 그 밖의 모든 물건의 아주 잔부스르기 혹은 찌꺼기. ②조그마한 흠집을 이르는 말. \*옥에도 ~가 있다. ③→개암②.

하루ᄃᆞᆫ(瑕累)㉠ =하자(瑕疵)①.

하자(瑕疵)㉠ ①흠. 결점. ②《법》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기(豫期)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缺如)되어 있는 일. 자하(疵瑕).

허물'㉠ ①살가죽에서 일어나는 꺼풀. ②뺨·매미 같은 것이 벗는 껍질. ③저질러 놓은 잘못이나 흠으로 되는 점.

허물'㉠ ①그릇 저지른 실수. 과실(過失). 건과(愆過). 소실(所失)①. ② =흠②.

흠'㉠ '흠(欠)'의 변한 말.

흠'㉠ ①상처·부스럼이 났던 자국. ②남의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흠(欠)

①. 허물. ③→흉내.

흠:<sup>1</sup>(欠<sup>1</sup>罅) ① = 흠<sup>1</sup>. ②물건이 이지러지거나 깨어진 자리. \*사기그릇에 ~이 생  
 기다. ③사물이 불완전하게 되어 잘못되거나 모자라는 부분. \*그에게서 ~  
 잡을 점이 없다. 지나치게 똑똑한 것이 ~이라면 ~이다. ④사물의 불충분하  
 거나 불완전한 부분. \*~ 잡을 데 없는 물건 ⑤사람의 언행이나 성격에 흠  
 이 될 만한 점. \*~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루(瑕累). 하자(瑕疵)①

흠:사(欠事)罅 흠이 되는 일. 흠전(欠典).

흠:전(欠典)罅 = 흠사(欠事).

흠:절(欠節)罅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불완전(不完全)하여 흠이 되는 곳. 결점  
 ②. 흠점(欠點). 흠처(欠處).

흠:점(欠點)罅 = 흠절(欠節).

흠:집(欠-)[-집]罅 흠이 진 자리나 흔적. 병이 난 부분. 탈을 잡을만한 자리.

흠:처(欠處)罅 = 흠절(欠節).

—『새우리말큰사전』

(30) 결점【缺點】[-점]罅 ①완전하지 못한 점. 단점. 결함(缺陷). 약점(弱點). ②  
 흠절(欠節).

군-티罅 물건의 조그마한 허물.

얼<sup>1</sup>罅 ①밖에 드러난 흠. ②/언걸.

자병【疵病】罅 흠. 결점.

자하<sup>3</sup>【疵瑕】罅 하자(瑕疵).

티<sup>1</sup>罅 ①재·흠 그 밖의 온갖 물건의 잔 부스러기 혹은 찌꺼기. 고체(固體)  
 의 극히 잘게 부스러진 조각. ¶눈에 ~가 들어가다. ②조그마한 흠절(欠  
 節). ¶~ 없는 어린이. /옥에도 ~가 있다. ③<방>개암②.

하루<sup>3</sup>【瑕累】罅 흠. 하자(瑕疵).

하자<sup>2</sup>【瑕疵】罅 ①흠. 결점. 자하(疵瑕). ②【법】법을 또는 당사자가 예기(豫  
 期)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缺如)되어 있는 일. ¶~ 있는 의사 표시(意思  
 表示).



허물<sup>㉠</sup> ①살갓에서 일어나는 꺼풀. ㉡~이 벗겨지다. ②뺨·매미 등이 벗는 껍질. ㉢뺨이 ~을 벗다. ③흠①. ㉣~이 지다.

허물<sup>㉡</sup> ①그릇된 실수. 소실(所失). 과실(過失). 건과(愆過). ㉢~이 없는 사람은 없다. ②흠 ②. ㉣~.

흠<sup>㉠</sup> ㉡ ← 흠(欠).

흠<sup>㉡</sup> ①상처(傷處)나 부스럼이 아문 자리. 허물. 창반(瘡癩). ②비웃을 만한 거리. 비난 받을 만한 점. 흠(欠). 허물. ③<방> 흉내.

흠<sup>㉢</sup> 【欠】㉠ ①흠<sup>㉡</sup>명성에 ~이 가다. ②물건이 이지러지거나 깨어진 곳. ㉢~이 있는 사기 그릇. ③물건이 썩거나 좀먹어 성하지 아니한 부분. ㉣물건의 ~을 들추어내다. ④물건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국부(局部). 하루(瑕累). 하자(瑕疵). ㉤공사(工事)의 ~이 드러나다.

흠사 【欠事】㉠ 흠절(欠節)이 있는 일. 흠전(欠典).

흠전 【欠典】㉠ 흠사(欠事).

흠절 【欠節】㉠ 부족하거나 잘못 된 점. 불완전하여 흠이 되는 곳. 결점(缺點). 흠점(欠點). 흠처(欠處).

흠점 【欠點】㉠ 흠절(欠節).

흠-집 【欠-集】[-집]㉠ 흠이 있는 곳. 병이 난 부분. 탈을 잡을 만한 자리. ㉢얼굴에 ~이 생기다. →험집.

흠처 【欠處】㉠ 흠절(欠節).

- 『국어대사전』

(31)결점[-점] ㉠ 모자란 점. (㉡)~을 보완하다. ㉢단점<sup>1</sup>. 단처<sup>1</sup>①. 단행<sup>1</sup>. 부족점. 부족처. [참고] 결함<sup>2</sup>. [缺點]

군-타이 ㉠ 물품의 조그마한 흠.

얼: ㉠ ①밖에 나타난 흠. (㉡)~ 가다. ~ 들다. ②'언결'의 준말. (㉢)~ 입다. ③ 탈이나 사고 (㉣)~ 없이 잘 지내기만 한다면...

자병(疵病) ㉠ : 표제어 없음.

자하<sup>ㄹ</sup> → 흠<sup>1</sup>. [疵瑕]

티<sup>ㄹ</sup> ①먼지처럼 아주 잔 부스러기. (b)눈에 ~가 들어갔다. ②조그마한 흠.  
(b)~ 없는 목소리. 티 없이 밝은 얼굴. [참고] 옥에 티. 옥에도 티가 있  
다. ⇨옥! <sup>ㄹ</sup> 자린! 휴흠. 흠절. 흠점. 흠처.

하루<sup>ㄹ</sup> → 흠<sup>1</sup>. [瑕累]

하자<sup>ㄹ</sup> → 흠<sup>1</sup>. [瑕疵]

허물<sup>ㄹ</sup> ①저지른 잘못. (b)만일 자기의 ~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어이  
대장부라 할 수 있으리오 <옥루몽>. [한]건과<sup>2</sup>. 건려! 꺾실. 소설6 ①. 위  
실<sup>2</sup>. 일벌<sup>3</sup>. ② → 흠<sup>1</sup>. ③ → 흠<sup>1</sup>.

험<sup>ㄹ</sup> '흠'이 변한 말. [<欠>]

흠<sup>ㄹ</sup> ①헌데나 상한 데의 아문 자국. ②남에게 비웃음을 받을 만한 잘못된점.

흠<sup>ㄹ</sup> ①물건이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리. (b)백자를 구워 낼 때  
에는 티 하나 내려와도 그대로 ~이 난다. 약간의 ~이 있는 사과가 더  
맛이 있다고 한다. ②사물의 됴됨이가 잘못되거나 모자라는 부분. (b)난  
은 ~ 없이 자라야 하고 티 없이 가꾸어야 한다. ③인격이나 행동들에  
잘못된 점이나 흠이 되는 점. (b)도둑은...백행에 ~ 없음으로 거의 신명  
께 죄 지은 것 없음이라. <옥루몽>. [欠]

흠:사<sup>ㄹ</sup> 흠이 되는 일. [欠事]

흠:전<sup>ㄹ</sup> = 흠사. [欠典]

흠:절<sup>ㄹ</sup> = 티<sup>ㄹ</sup>②. [欠節]

흠:점<sup>ㄹ</sup> = 티<sup>ㄹ</sup>②. [欠點]

흠:-집<sup>ㄹ</sup> 흠이 진 흔적. ㉠병이 붙은 부분. ㉡탈을 잡을 만한 자리. [欠-]

흠:처<sup>ㄹ</sup> = 티<sup>ㄹ</sup>②. [欠處].

- 『우리말큰사전』

(32)흠:[欠] [명] ①깨어지거나 상한 자리. [접시에 ~이 생기다. ②사물의 불완전하  
거나 잘못된 부분. 하자(瑕疵). [이 소설은 문장은 유려하나 구성이 단조로

운 게 ~이다. ③사람의 언행에 나타나는 결점.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나 얼른 대답을 시원히 하지 않고, 꾸물꾸물 오래 하는 것이 ~이다』 <田榮澤 화수분>. ㉞힘.

흉명 ①상처가 나온 자리. ②남의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허물. ③ ⇨ 흉내 (방언).

힘:명 '흠(欠)'의 변한 말.

군:티명 물품의 조그마한 허물.

얼'명 ①밖으로 드러난 흠.『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가을 하늘에는 ~ 하나 없 구나』 <李熙昇, 淸秋數題>. ②'언결'의 준말.

티'명 ①고체(固體)의 극히 잘게 부스러진 조각.『눈에 ~가 들어가다. ②조그 마한 흠집. 『옥(玉)에도 ~가 있다. /~ 없이 맑은 얼굴.

허물'명 ①그릇 저지른 실수. 과실(過失). 소실(所失). 『~을 덮어 주다. ② =흠. 흠:집[欠-][ -집]명 흠이 진 자리나 흔적. 『~하나 없는 이조 백자. x힘집.

하루[瑕累]명 =흠(欠).

하자[瑕疵]명 ① =흠②.『~가 없는 물건. ②【법】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 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 있는 의사 표시.

자하[疵瑕]명 =흠(欠).

결점[缺點][ -점]명 완전하지 못한 점. 단점.『용기가 부족한 것이 네 ~이다. /~을 찾기 어려운 완벽한 작품.

흠:절[欠節]명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결점(缺點). 흠점(欠點). 흠처(欠處).

흠:점[欠點]명 =흠절(欠節).

흠:처[欠處]명 =흠절(欠節).

흠:전[欠典]명 =흠사(欠事).

흠:사[欠事]명 흠이 되는 일. 흠전(欠典).

자병[疵病]명 흠. 또는, 결점.

(33) 흠:(欠)罨 ①흠:罨얼굴에 -이 있다. /남의 -을 들추다. ②물건의 이지러진 곳. 또는 성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부분. 하자(瑕疵):罨-이 있는 그릇. /공사의 -이 드러나다.

흠罨 ①헌데나 다친 곳의 아문 자리. ②비난을 받을 만한 점. 비웃을 만한 거리. 허물. 흠. 罨-을 보다.

흠:罨 → 흠:(欠).

군:-티罨 [물건의] 조그마한 허물.

얼'罨 ①밖에 드러난 흠. 罨-이 없는 물건. ②<언걸>의 준말.

티'罨 ①[은갖 물건의] 잔 부스러기나 찌꺼기. 罨눈에 -가 들어가다. ②조그마한 흠집. 罨옥에도 -가 있다.

허물'罨 ①잘못. 실수. 과실(過失). 罨그에게는 -이 없다. ②흠.

흠:-집[-점]罨 흠이 있는 곳. 또는 그 흔적. 흠잡힐 만한 자리. 罨이마의 -.

하루(瑕累)罨 :표제어 없음.

하자(瑕疵)罨 ①흠. 결점(缺點). 罨이무런 -도 없다. /- 없는 물건. ②법률이 나 당사자(當事者)가 예상한 완전한 상태나 조건 따위가 결여(缺如)되어 있는 상태. 罨- 있는 의사 표시.

자하(疵瑕)罨 :표제어 없음.

결점(缺點)[-점]罨 잘못되거나 완전하지 못한 점. 단점(短點). 결함. 罨남을 헐뜯는 버릇이 그의 -이다. ↔장점(長點).

흠:절(欠節)罨 잘못된 점. 모자라는 점. 흠점(欠點). 흠처(欠處).

흠:점(欠點)罨 ⇒ 흠절(欠節).

흠:처(欠處)罨 흠이 진 곳. 흠절(欠節).

흠:전(欠典)罨 :표제어 없음.

흠:사(欠事)罨 흠이 되는 일.

자병(疵病)罨 :표제어 없음.

(34) 결점(缺點)[ -점]「명」 잘못되거나 부족하여 완전하지 못한 점. 『결점을 보완하다. (하략) §「비」 단소03(短所).「비」 단점01(短點).「비」 단처.「비」 단행02(短行).「참」 결합01.

군-티[군 : -]「명」 물건에 생긴 조그마한 흠. 『그 도자기는 군티 하나 없이 깨끗했다. §

열01「명」 「1」 곁에 드러난 흠. 『일이 가다.(하략) §「2」 =언결. 「3」 탈이나 사고 『그곳에 가면 돌보아 줄 사람이 없으므로 일 없이 잘 지내야 한다.(하략) § 자하03(疵瑕) 「명」 =흠03(欠) [2].

티01「명」 「1」 먼지처럼 아주 잔 부스러기. 『눈에 티가 들어갔다/하늘에는 구름은커녕 티 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홍성원, 육이오>>(하략) § 「2」 조그마한 흠. 『티를 찾다.(하략) §[ <티<번박> ]

하루03(瑕累)「명」 =흠03(欠) [2].

하자02(瑕疵)「명」 「1」 =흠03 [2]. 『하자 없는 물건/다리에 하자가 너무 많다./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 「2」 『법』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허물02「명」 「1」 잘못 저지른 실수. ≍ 건려02(愆戾). 『허물을 들추어내다.(하략) § 「2」 =흠01 [2].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버릇없이 굴어도 큰 허물이 되지 않아요. § [ <허물<용가> ]

흠01[흠 : ]「명」 ‘흠03(欠)’의 변한 말.

흠01「명」 「1」 =흠02. 『상처에 자꾸 손을 대면 흠이 지기 쉽다./이마에 어릴 때 넘어져서 다친 큰 흠이 하나 있다. § 「2」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 허물02 [2]. 『청풍 김가라는 것이 자랑이 아닌 것처럼 무식한 것도 흠이 아니오 <<염상섭, 삼대>>(하략) § [ <흠<소연> ]

흠03(欠)[ 흠 : ]「명」 「1」 어떤 물건의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아이들이 가구에 흠을 내었다.(하략) § 「2」 어떤 사물의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 자하03(疵瑕) 하루03(瑕累) 하자02(瑕疵) [1]. 『이 물건은 품질은 좋은데 비싼 게 흠이다. § 「3」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

족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다.(하략)』 「비」 <2> <3> 흠절.

흠사(欠事)[흠 : -] 「명」 흠이 되는 일. ≒ 흠전(欠典).

흠전(欠典)[흠 : -] 「명」 = 흠사.

흠절(欠節)[흠 : -] 「명」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 흠점 흠처. 「비」 흠03(欠)

[2] [3].

흠점(欠點)[흠 : 점] 「명」 = 흠절(欠節). 『흠점이 없다.(하략)』

흠-집(欠-)[흠 : 점] [흠집만[흠 : 점-]] 「명」 흠이 생긴 자리나 흔적.

『이마의 흠집(하략)』

흠처(欠處)[흠 : -] 「명」 = 흠절.

- 『표준국어대사전』

(33)의 경우 ‘흠’을 기본 어휘로 한 비체계적인 뜻풀이는 물론 표제어보다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뜻풀이가 눈에 뜨인다.

‘흠/흠/허물’을 먼저 살펴본다면, ‘흠1①’은 ‘=흠1②’라고 해야 하며, ‘흠1④’는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불충분하다/불완전하다’보다 ‘충분하다/완전하다’가 더 잘 쓰인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물건이 충분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부분’으로 뜻풀이를 해야 한다. [‘局部’보다는 ‘部分’이 널리 쓰이는 낱말로 인지된다.] ‘흠’의 유의어로서 ‘하루/하자’를 제시한 것을 보면 ‘하루’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했고 ‘하자’②의 뜻이 없으므로 ‘하루/하자’①로 정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허물’③에는 ‘흠①’로 간접적 풀이를 하고 있는데 ‘흠①’에는 ‘허물’로만 유의어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허물’③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흠②’의 뜻풀이에서도 ‘흠’은 ‘흠①’로, ‘허물’은 ‘허물②’로 제시되어야 한다. 역시 ‘흠’을 기본 어휘로 삼아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흠’과 연관관계에서 체계성이 확보되도록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얼’은 역시 ‘밖으로 드러난 이지러지거나 깨어진 자리’로, ‘흠절’의 두 번째 뜻인 ‘불완전하여 흠이 되는 곳’은 ‘완전하지 못하여 이지러지거나 깨어지거나 한 곳’으로 풀이함이 좋겠다.

(34)의 경우는 ‘티’와 ‘흠’을 기본 어휘로 삼아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흠/흠’의 뜻풀이인 경우는 다른 사전보다 비교적 잘 풀이하고 있으나 나머지 어휘는 다른 사전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는 유의어 처리가 안 된 ‘자린/휴흠/건과/건려/필실/소실/위실/일벌’ 등 어렵고 생소한 어휘를 ‘한뜻말’로 제시한 것은, 비록 현재에는 쓰이지 않지만 관련 어휘를 충실히 조사하고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어휘들을 국어사전에 모두 반영해야 하는지는 논의거리가 된다.

(36)의 경우는 서로 의미적 공통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어휘를 무작위로 나열시켰는데, 이 모든 어휘를 1 대 다 대응의 유의어로 간단하게 처리해 버릴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어휘 상호간의 의미 관계를 직접 살펴보면서 찾아보기로 한다.

고유어 ‘흠’으로서 기본 어휘를 삼아 논의한다. ‘흠/흠/허물’을 상호 비교해 보면, ‘흠①’의 뜻에는 ‘흠①, ②’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흠①’이 뜻은 ‘얼굴에 흠이 있다.’의 ‘흠’의 뜻에 해당하고, ‘흠②’의 뜻은 ‘남의 흠을 들추다.’의 ‘흠’의 뜻이므로, ‘흠②’에서 유의어로 ‘흠’이라 한 것은 ‘흠①’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흠②’에 유의어로 제시한 ‘하자’는 ‘하자①’이라 표시를 해 줘야 하고, ‘하자①’의 뜻풀이에서 단순대치형으로 ‘흠. 결점.’이라 한 것은 ‘=’ 기호를 써서 ‘①=흠②. 결점.’이라 해야 바람직하다. ‘흠②’의 뜻에는 ‘하자②’의 법률적 의미가 없다. ‘허물2②’인 경우도 ‘흠’으로서 단순대치를 시키고자 한다면 ‘②=흠②’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에서 다른 어휘의 뜻들을 살필 경우, ‘얼1①’은 ‘밖으로 드러난 이지러지거나 상한 자리’와 같이 풀이해야 하며, ‘티1②’도 ‘이지러지거나 떨어져나간 조그마한 자리’로 풀이해야 한다.

‘흠절/흠점/흠처’의 한자어인 경우를 보면, 서로 유의관계임은 뚜렷한데 ‘흠처’의 표제항에는 ‘흠절’과는 다른 뜻풀이를 함으로써 의미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다른 사전들과 마찬가지로 ‘흠절’에 뜻풀이를 하고 ‘흠점/흠처’인 경우는 각각 ‘=흠절’로서 간접적 풀이를 함이 바람직하다.

(32), (35)의 경우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이를 보면 상당 부분이 『국어대사전』의 뜻을 풀이를 그대로 베껴서 풀이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손쉽게 사전을 편찬하려는 태도는 고쳐나가야 한다.

(37)도 유의어끼리 계열화,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미찬가지이다. ‘결점’의 ‘잘못되거나 부족하여 완전하지 못한 점’이나 ‘흠03’‘2’의 ‘어떤 사물의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흠질’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등은 동일한 뜻풀이이다. 그런데 ‘흠질’ 항목에는 ‘흠점’과 ‘흠처’가 유의어임을 밝히고 있는데, ‘흠전’에는 ‘흠사’와 동의어임을 밝혔고 ‘흠처’에는 ‘흠질’과 동의어임을 밝히고 있다. 표제어마다 뜻풀이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결점’ 항목에서는 ‘흠질/흠점/흠처/흠03’의 어느 어휘와도 의미의 관련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호의 사용에 있어서도 (37)의 ‘일러두기’에서 동의어는 ‘=’로 처리하고 있으나 유의어의 부호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표제어의 뜻풀이에서는 ‘=’를 유의어의 부호로 사용하고 있다. 뜻풀이를 할 때는 계열화, 체계화가 필요하고 부호 사용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③ ‘이따금’의 유의어

(38) 가끔(間) 동안이 조금씩 뜨게. 드문드문. ⇨ 이따금.

가다가(間) 어떤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 간혹. 이따금. \*암전한 그도 ~ 몹시성을 낸다.

간간-이(間間-)(間) ① 드문드문 때를 따라. 드문드문. 이따금. ㉞ 간간(間間). ② 듬성듬성 곳을 따라. 띄엄띄엄. ③ 각각의 간살마다.

간혹(間或)(間) 이따금. 어쩌다가. 간간이. 혹간. ㉞ 혹(或)②.

더러(間) ① [전체의 양에 비해서] 얼마쯤. \*관객이 ~ 있더라. ② 이따금. \*~ 싸우기도 한 사이죠

드문-드문(間) ① [시간적으로] 잦지 않고 동안이 뜨게. 이따금. \*창설이는



~ 놀러옴 하였다. ②[공간적으로] 배지 않고 사이가 뜨게. 띄엄띄엄.\* 서 있는 가로수. 멀리 안개 속에서 ~ 보이는 멧부리. ×뜨문뜨문. 드문드문. 드뭇드뭇. >다문다문. - 하다(○)(여번)

때로(ㄱ) ①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바다도 ~ 거센 풍랑을 일으킨다. ②잡지 않게 가끔. \*늘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때때-로(ㄱ) 가끔. 시시(時時)로 \*~ 생각에 잠긴다.

때로-는(ㄱ) '때로'를 강조한 말. 경우에 따라서는.(※'때로'의 부표제어.- 필자 주.)

무시-로(ㄱ) 특별히 정한 때가 아닌, 아무 때나 수시(隨時)로 \*~ 드나들다. (※'무시'(無時)의 부표제어로 다름. - 필자 주.)

\*무시(無時)→무상시(無常時)(\*\*무상시(無常時)(ㄱ) =무시(無時)로 풀이되어 있음.)

수시-로(ㄱ) 드리없이. 아무 때나.

\*수시(隨時)(ㄱ)그때그때. (ㄱ)때때로 때에 따라.

시시-로(ㄱ) 가끔. 때때로 이따금.

\*시시(時時)(ㄱ) 시각마다. \*~로

어찌다가(ㄱ)[→어찌하다가] ①[드물게 있는 것을] 우연히 간혹. \*클로우버 [토기풀] 밭에 앉아 있는 옥수는, ~ 네 잎을 골라낸다. ②[동안이 뜨게] 이따금. 가끔. \*그도 요즘 바쁘지, ~ 놀러 온다. (○)어찌다.

연차(連次)(ㄱ) 여러 차례를 계속하여. 가끔. 번번이.

왕.왕(往往)(ㄱ) 이따금. 때때로

이따금(ㄱ) 얼마씩 있다가 때때로 얼마쯤씩 동안을 띄워서. 가끔. 때때로 \*~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 놀러 왔다.

종.종(種種)(ㄱ)[모양이나 성질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갖가지. (ㄱ)가끔 또는 때때로 \*~ 오너라.

혹(或)(ㄱ) ①→혹시(或是). \*낯선 모임에 ~ 실수라도 하면 하는 생각도 들

있소 좋은 수가 ~ 있을지 누가 아오? ②→간혹(間或). \*~ 그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

혹간(或間)㉑ 이따금. 때때로 간혹(間或).

혹시<sup>1</sup>(或是)㉑ ①만일에. \*~ 내가 가지 못하게 된다면 남이라도 시키겠소

②어쩌다가 더러. \*~ 복권에 당첨될지 누가 아오 ③행여나. \*나는 ~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렸다. 혹야(或也). 혹여(或如). 혹자(或者). ㉑혹(或)①.

혹시<sup>2</sup>(或時)㉑ 어떤 때에. 어쩌다가.

혹시-나㉑ :표제어 없음.

혹야(或也)㉑ =혹시(或是).

혹여(或如)㉑ =혹시(或是).

혹자(或者)㉑ 어떤 사람. \*~는 말하기를. ㉑ =혹시(或是).

-『새우리말큰사전』

(39) 가끔㉑ ①동안이 조금씩 뜨게. 이따금. 어쩌다가. ②회수(回數)를 거듭하는 모양. 종종. ㉑사고가 ~ 있다.

간간-이<sup>2</sup>(間間-)㉑ ①드문드문. 이따금. ㉑그런 일은 ~ 있다. ②듬성듬성. 띄엄띄엄. ㉑집이 ~ 있다. ㉑간간(間間)

드문-드문㉑ ①시간으로 찾지 아니하게. 이따금. ㉑손님이 ~ 찾아오다.

②공간적(空間的)으로 배지 아니하게. ㉑나무를 ~ 심다. ①②: " ( " :어

감이 센 말 앞에 -필자 주)드문드문.>다문다문. -하다(행)㉑

때때-로㉑ 가끔. 시시(時時)로 이따금. ㉑생각이 난다.

무시-로 【無時-】㉑ 정한 때가 없이 수시(隨時)로 ㉑드나들다.

수시-로 【隨時-】㉑ 때때로 때를 따라. ㉑계획이 ~ 바뀐다.

시시-로 【時時-】㉑ 때때로

어쩌다가㉑ [ /어쩌하다가 ] ①뜻밖에 우연히. ㉑만난 친구. ②가끔가다

가.ㅍ~ 일어나는 사건. ㉞어쩌다.

이따금(ㅍ) 조금씩 있다.가. 얼마씩의 동안을 띄어서. 가끔. 가다가. 때때로 왕왕(往往). 드문드문. ㅍ~편지를 받는다.

중.종<sup>1</sup>【種種】(ㅍ) ㉠ 근신하는 모양. ㉡머리가 짧은 모양. ㉢여러 가지. 물건의 가지가지. ㉣(ㅍ) 가끔.ㅍ~ 찾아오는 친구.

가다가(ㅍ) 어떤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 간혹. 이따금. 어쩌다.ㅍ은순한 편인데 ~ 신경질을 부리는 때가 있다.

간혹【間或】(ㅍ) 이따금. 간간이. 어쩌다가. 혹시. ㅍ~ 눈에 띄다.

더러(ㅍ) ㉠얼마쯤. ㅍ사람이 ~ 모였더라. ㉡이따금. ㅍ~ 만난다.

때-로(ㅍ) 경우에 따라서. ㅍ원숭이도 ~ 나무에서 떨어진다.

때로-는(ㅍ) 「때로」를 강조한 말. 경우에 따라서는.

왕왕<sup>1</sup>【往往】(ㅍ) 이따금. 때때로 ㅍ~실수를 한다.

혹<sup>1</sup>【或】(ㅍ) /혹시(或是)·혹자(或者).ㅍ~ 비가 내릴지도 모르니 우산을 준비해 가져라.

혹간【或間】(ㅍ) 간혹(間或).

혹시<sup>1</sup>【或是】(ㅍ) ㉠「만일에, 행여나」의 뜻의 접속 부사. ㉡「어떠한 경우에, 혹시나」의 뜻의 접속 부사. 혹야(或也). 혹여(或如). 혹자(或者). ㉞혹(或).

혹시-나【或是-】(ㅍ)행여나. 혹시(或是). ㅍ~ 하고

혹야【或也】(ㅍ) 혹시(或是).

혹여【或如】(ㅍ) 혹시(或是).

혹자【或者】(ㅍ)어떠한 사람.ㅍ~는 말하기를. ㉣(ㅍ)혹시(或是)의 뜻의 접속 부사. ㉞혹(或).

혹시<sup>2</sup>【或時】(ㅍ) 어떤 때에. 간혹(間或).

-『국어대사전』

(40) 가끔(ㅍ) 동안이 얼마쯤씩 뜨게. (비)선생님을 ~ 찾아뵙다. ~ 비가 내리고 바

람이 볼다.

간간-이<sup>2</sup>어 ①이따금씩. (비)~ 들려오는 뱃고동 소리. [한] 간간<sup>3</sup>. ②듬성듬성.

띄엄띄엄. (비)붉은 바탕에 ~ 흰 점이 있는 옷감. [한] 간간<sup>3</sup>. [間間-]

드문-드문어 드문드문한 꼴. (비)~ 뜨기 시작한 별들. ~ 서 있는 나무. ~

찾아오는 손님. [한] 드문드문. (작은) 다문다문. [한] 뇌락히<sup>1</sup>②. 소소히<sup>2</sup>.

때때-로어 가끔. 한 때 한 때마다.(비)~ 생각난다.~ 찾아간다. [한] 곁곁이

②.때때<sup>1</sup>①.수시<sup>2</sup>. 수시로 시시로

무시-로어 일정한 때가 없이. [無時-]

시시-로어 =때때로. [時時-]

어쩌다-가어 ①뜻밖에. 우연히. (비) 말이 ~ 헛나왔네. [한] 어쩌다①. ②

=이따금. (비)~ 놀러 온다.

이따금어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비)어렸을 때 ~씩 좋아리도 맞아

가며 자라났다. [한] 어쩌다②. 어쩌다가②. 왕왕<sup>2</sup>. (참고)간혹.

종종<sup>1</sup>어 물건의 가지가지. 어 =가끔가끔. [種種]

가다가어 어쩌다가 이따금. (비)~ 실수를 저지르는 수가 있다.

간혹어 간간이. 어쩌다가. (비)~ 만나는 친구. ~ 들르는 차집. [한]혹<sup>6</sup>②. [한]

혹간. (참고)간간이<sup>2</sup>. 이따금. [間或]

더러<sup>1</sup>어 ①얼마쯤. (비)사람들이 ~ 모였다. ②이따금. 또는 때때로 (비)~

만나다. — [어] 얼마간의 수량. (비)~는 못마땅히 여겼다.

때-로어 ①경우에 따라서. (비)원숭이도 ~ 나무에서 떨어진다. ②찾지 않

게 가끔. (비)~ 찾아뵙고 문안이나 한 번씩 드리게. 배우고 ~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때로-는어 '때로'의 힘줄말.

왕.왕<sup>2</sup>어 =이따금. (비)전에도 ~ 그런 실수를 하였다. [往往]

혹<sup>6</sup>어 ①'혹시<sup>2</sup>'의 준말. ②'간혹'의 준말. [或]

혹간어 =간혹. [間或]

혹시<sup>1</sup>어 어쩌다가. 어떠한 때에. [或時]

혹시:<sup>2</sup> [어] ① 만일에. (비)~ 못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존혹<sup>6</sup>①. [한]혹야. 혹여. 혹자. ② 가다가 더러. (비)~ 나쁜 소문이 날지도 모르겠다만 너무 개의하지 말아라. [존혹<sup>6</sup>①. [한]혹야. 혹여. 혹자. ③ 행여나. (비)~ 오늘 은 임이 오시려나. [존혹<sup>6</sup>①. [한] 혹야. 혹여. 혹자. [或是]

혹시:- 나[어] ‘혹시’의 힘줄말. [或是-]

- 『우리말큰사전』

- (41) 가끔[문] 동안이 조금씩 뜨게. 드문드문. 때때로 종종. ¶ 그는 요즘도 ~ 찾아온다. / 비가 곳에 따라 ~ 오겠습니다. / 바람이 ~ 불어와 시원하다.
- 간간-이[間間-] [문] ①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 이따금씩. ¶ ~ 들려오는 기적 소리. ② 들성들성 곳을 따라. ¶ 산골짜기에 농가가 ~ 눈에 띈다.
- 드문- 드문[문] ① 시간적으로 찾지 않게. 이따금. ¶ 이런 일이 ~ 일어난다. / 그 는 우리집에 ~ 찾아온다. ② 공간적으로 배지 않게. 띄엄띄엄. ¶ 거리에 가로등이 ~ 서 있다. 잣다문다문. 쉼드문드문.
- 때때-로[문] 때에 따라 가끔. 시시로. ¶ ~ 그가 생각한다.
- 무시-로[無時-] [문] 정한 때가 없이 수시로. ¶ ~ 드나들다. / 춘호 처는 다 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돼지같이 ~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꾸러이다 <<金裕貞 소낙비>>.
- 수시-로[隨時-] [문] 아무 때나 늘. ¶ 기계를 ~ 점검하다. / ~ 변하는 여자의 마음.
- 시시-로[時時-] [문] =때때로
- 어찌다가[문] ① 뜻밖에 우연히. ¶ ~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 ② 이따금. 가끔가다가. ¶ ~ 오는 손님. ③ 어찌하다가. ¶ 나만 뒤떨어지게 되었다. [어찌다.
- 이따금[문] [이따+ -금]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 때때로 참참이. ¶ ~ 길에서 만난다. / ~ 고향에 내려간다.
- 종종<sup>2</sup>[種種] [문] =가끔. ¶ ~ 놀러 오너라.
- 가다가[문] [√가=+ -다가]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간혹. ¶ ~ 그럴 수도 있지.

간:혹[間或]〔문〕 어쩌다가 간간이. 혹간.〔함께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는 법이다.〕(생략)

더러'〔문〕 어쩌다 드물게. 또는, 전체로 보아 일부. 〔개중에는 ~ 똑똑한 사람도 있다. / 같이 살다 보면 ~ 싸울 때도 있다. / 두 사람의 성격은 ~ 비슷한 데가 없지 않다.〕

때-로〔문〕 경우에 따라서. 〔~ 늦기도 한다.〕

때로-는〔문〕 '때로'의 힘줄말. 〔고향의 친구들이 ~ 몹시 보고 싶다.〕

왕:왕[往往]〔문〕 이따금. 때때로. 〔그런 일은 ~ 있는 일이다. / 그는 한가할 때면 ~ 나를 찾아 왔다.〕(생략)

혹[或]〔문〕 '혹시'의 준말. 〔~ 안 올지도 모른다. / ~ 이게 아닐까?〕

혹간[或間][ - 간]〔문〕 =간혹(間或).

혹시[或是][ - 씨]〔문〕 ① 만일에. 〔~ 안 되더라도 서운해 하지는 마시오 ② 어떠한 경우에. 혹자 (或者). 〔~ 합격될지 아오? ㉞혹(或).〕

혹시[或時][ - 씨]〔문〕 어떤 때에 어쩌다가.

혹시-나[或是-][ - 씨- ]〔문〕 '혹시'의 힘줄말. 〔~ 하고 기대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혹야〔문〕 : 표제어 없음.

혹여〔문〕 : 표제어 없음.

혹자[或者][ - 짜] I 〔문〕 어떤 사람. 〔~는 말하기를. II 〔문〕 =혹시(或是).

-『금성판 국어대사전』

(42) 가끔〔문〕어쩌다가. 드문드문. 때때로 이따금. 종종. 무시로. 〔지나다가 - 나는 사람.〕

종:종(種種)〔문〕 가끔. 때때로. 〔- 찾아온다.〕

때때-로〔문〕 가끔. 시시로 간간이. 〔- 놀러 온다. / - 생각이 난다.〕

이따금〔문〕 조금씩 있다가. 가끔. 때때로 왕왕(往往). 〔- 내리는 비. / - 들르곤 한다.〕

어찌다가<sup>ㄱ</sup> ① 뜻밖에 우연히. ㄱ 실수를 저지르게 되다. ② 이따금. ㄱ 한 번씩 일어나는 일. ㄱ 어찌다.

드문-드문<sup>ㄱ</sup> ① (시간적으로) 잦지 않고 동안이 꽤 뜨게. 간간이<sup>2</sup>. ㄱ 지는 못해도 편지는 - 보낸다. ② (공간적으로) 배지 않고 꽤 뜨게. 띄엄띄엄. ㄱ 서 있는 가로수. 짝다문다문. ㄱ 드문드문.

무시-로(無時-)<sup>ㄱ</sup>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자주. 가끔. ㄱ 드나드는 손님. 시시-로(時時-)<sup>ㄱ</sup> 때때로 ㄱ 변하다.

간간-이<sup>2</sup>(間間-)<sup>ㄱ</sup> ① (시간적으로) 드문드문. 때때로 이따금. ㄱ 지나치는 길에 - 들르곤 한다. ② (공간적으로) 듬성듬성. 띄엄띄엄. ㄱ 대개가 양복 차림인데 한복 입은 사람이 - 눈에 띈다. ㄱ 간간(間間)

때로<sup>ㄱ</sup> ① 경우에 따라서. ㄱ 사람마다 - 실수 할 수도 있지. ② 이따금. ㄱ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때로-는<sup>ㄱ</sup> <때로>의 힘준말.

간혹(間或)<sup>ㄱ</sup> 이따금. 어찌다가. 간간이. 혹간. ㄱ 그런 일이 - 있다. ㄱ 혹(或). ㄱ 혹(或)<sup>ㄱ</sup> ① <혹시(或時)>의 준말. ㄱ 그를 만나더라도 꾸짖지는 마시오 ② <혹시(或是)>의 준말. ③ <간혹(間或)>의 준말. ㄱ 작년까지만 해도 그는 - 장터에 나타나기도 했다.

혹시(或時)<sup>ㄱ</sup> 어떠한 때에. 어찌다가. ㄱ 혹시(或是). ㄱ 혹(或).

혹시(或是)<sup>ㄱ</sup> ① 만일에. ㄱ 혹여(或也). ㄱ 혹여(或如). ㄱ 실패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② ⇒ ㄱ 혹시(或時). ㄱ 혹(或).

혹간(或間)<sup>ㄱ</sup> ⇒ ㄱ 간혹(間或)

가다가<sup>ㄱ</sup> 이따금. 간혹. 가끔. ㄱ 한 번씩 심술을 부린다.

더러<sup>ㄱ</sup> ① 얼마만큼. 어마간. ㄱ 참석한 관중도 고작 시골 노인들뿐이었다. ② 이따금. 흔하지 않게. ㄱ 전에는 - 외출도 하곤 했지만 요즘은 집에 만 있다.

왕왕(往往)<sup>ㄱ</sup> 때때로. 이따금. ㄱ 초보자는 - 그런 실수를 하는 법이다.

(43) 가끔「부」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뜨게. ≡ 종종04(種種)『II』· 종종

히01. 『김 선생은 요즘도 가끔 술을 마신다(생략)』 § 「참」드문드문.

[ <갓곰<어룩-초> ]

가다가「부」(주로 「간혹」, 「가끔」과 같은 부사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계속하  
는 동안에 어쩌다가 이따금. 『간혹 가다가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기도 하지(생략)

간간-이(間間-)[간 : -]「부」,「1」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이따  
금’으로 순화. ≡ 간간05(間間) [1]. 『간간이 들려오는 기적 소리(생  
략)』 2,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들성들성. ≡ 간간05 [2]. 『바다 위에  
간간이 떠 있는 고깃배들(생략)』 「비」, <1>때때로.

간혹(間或)[간 : -]「부」어쩌다가 띄엄띄엄. ≡ 혹05(或) [4] · 혹간(或間).

『간혹 있는 일(생략)』

더러이「부」,「1」전체 가운데 얼마쯤. 『방과 후 학생들이 더러 남아 공부하고  
있다(생략)』 2, 이따금 드물게. 『그의 아버지는 더러 보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만나지 못했다(생략)』

드문-드문「부」,「1」시간적으로 잦지 않고 드문 모양. ≡ 드문드문 [1]. 『  
드문드문 찾아드는 손님. (생략)』 2, 공간적으로 배지 않고 사이가 드문  
모양. ≡ 드문드문 [2].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생략)』 「비」, <1>이따  
금. 비, <2>띄엄띄엄 [1]. 「참」다문다문.

때-로「부」,「1」경우에 따라서.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함께 술도 한잔할 수 있으면 좋겠다(생략)』 2, 잦지 아니하게 이따금.

『때로 지각을 하다(생략)』 §

때때-로「부」경우에 따라서 가끔. ≡ 결결이 [2]. 시시로 『때때로 바람이  
분다/그는 때때로 나를 실망시키곤 했다. 「비」간간이 [1]. [ <때때로  
<마경> ← 때 + 때 + -로 ]

무시-로(無時-)「부」,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손님이 무시로  
찾아오다/부엌을 무시로 드나들다/아버지는 무시로 입버릇처럼 아들 자



량을 했다.(생략)

수시-로(隨時-)「부」아무 때나 늘. 『수시로 드나들다. (생략)

시시-로(時時-)「부」=때때로. 『시시로 바뀌다/시시로 변하다. (생략)

어찌다가「1」「부」「1」뜻밖에 우연히. 『어찌다가 굴러 들어온 돈을 그는 헌신  
 짝처럼 차 버렸다.(생략) §「2」이따금 또는 가끔가다가. 『그는 말수가 적  
 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다가 말을 해도 느릿느릿하고 더듬기까지 했다.  
 (생략) §「II」‘어찌하다’가 줄어든 말. 『이 시계를 어찌다가 이 모양을  
 만든 거야? 「준」&< I >어찌다02「1」.

연차03(連次)「부」「1」여러 차례 계속하여. 「2」=번번이01.

왕왕04(往往)[왕 : -]「부」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따금. 『그런 일은 전에도  
 왕왕 있었던 일이다.(생략) §「참」가끔.「참」때때로

이따금「부」얼미쯤씩 있다가 가끔. 『심심할 때면 이따금 산에 올라간다.(생  
 략) § < <잇다감<구방>←잇- + -다가+ -口

종종04(種種)[종 : -]「1」「명」모양이나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II」「부」=  
 가끔. 『종종 일어나는 일/지나다 종종 들르다/들어가신 어머니가 종종  
 생각이 난다.(생략)

혹05(或)「부」「1」=혹시01(或是) [1]. 『혹 일이 잘 안되더라도 너무 실망하  
 지 마라. § 「2」=혹시01 [2]. 『혹 그를 만나면 내 안부를 좀 전해 주세  
 요. § 「3」=혹시01 [3]. 『혹 그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소릴 한 것이 아  
 아닐까?(생략) § 「4」=간혹(間或). 『혹 그분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

혹시01(或是)[-씨]「부」「1」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혹05(或) [1] ·혹야  
 (或也) [1] ·혹여(或如) [1] ·혹자01(或者)「II」 [1]. 『혹시 내일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니?(생략) § 「2」어찌다가 우연히. ≍혹05 [2] ·혹야 [2] ·혹  
 여 [2] ·혹자01「II」 [2]. 『혹시 그 사람을 만나거든, 내 말을 꼭 전해 주  
 게.(생략) § 「3」짐작대로 어찌면. ≍혹05 [3] ·혹야 [3] ·혹여 [3] ·혹자01  
 「II」 [3]. 『혹시 편찮으신 것은 아닐까.(생략) § 「4」(의문문에 쓰여) 그러리

라 생각하지만 다소 미심쩍은 데가 있어 말하기를 주저할 때 쓰는 말. 『혹시 절 모르시겠습니까』(생략)

혹시-나(或是-)[ - 씨- ] 「부」, '혹시01(或是)'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혹시 나 일이 잘못되면 곧 알려라』(생략)

혹시02(或時)[ - 씨 ] 「부」, 어쩌다가. 또는 어떠한 때에.

혹여(或也) 「부」, 「1」=혹시01(或是) [1], 「2」=혹시01 [2], 「3」=혹시01 [3].

혹여(或如) 「부」, 「1」=혹시01(或是) [1]. 『혹여 오해하실 분이 계시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생략) 「2」=혹시01 [2]. 『혹여 찾으시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3」=혹시01 [3]. 『혹여 네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나 그런 생각은 말하지 마라』

혹자01(或者)[ - 짜 ] 「1」, 「명」, 어떤 사람. 『가축이 계속 없어지자 혹자는 산짐승의 소행이라 했고 혹자는 이웃 마을 사람의 소행이라고 했다.』(생략) 「Ⅱ」 「부」, 「1」=혹시01 [1], 「2」=혹시01 [2], 「3」=혹시01 [3].

- 『표준국어대사전』

(38)의 경우는 ‘가끔/간간이/간혹/때때로/시시로/이따금’의 의미 관계를 살펴본다면 얼마나 비체계적인가를 알 수 있다. 단순대치형의 뜻풀이를 이 사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시로’인 경우 ‘가끔. 때때로 이따금’으로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끔’을 찾아보면 아예 ‘때때로’는 제시되고 있지 않고 ‘이따금’만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따금’의 뜻풀이를 보면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얼마씩 있다가 때때로’로 풀이하고 유의어로서 다시 ‘때때로’를 제시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동의어 반복적인 순환식 뜻풀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시로’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 때나 수시로’로 뜻풀이를 함으로써 동의어 반복의 뜻풀이를 하고 있다. ‘수시로’의 뜻을 ‘아무 때나’로 풀이한 것을 보면 이 사실을 뚜렷이 알 수 있다.

(39)에서도 ‘이따금’을 기본 어휘로 해서 뜻풀이를 하고 있으나 어휘 간에 그 유의관계가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며, ‘무시로/수시로’의 뜻풀이도 문제다. ‘무시

로'는 '정한 때가 없이 수시로'로 풀이하였고, '수시로'는 '때때로, 때를 따라'로 풀이하여 두 말의 연관 관계가 어떠한 지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다. '가끔②/종종'의 뜻풀이도 마찬가지이다. '가끔②'는 '횃수를 거듭하는 모양. 종종.'이라고 했지만, '종종'의 뜻풀이를 보면 '가끔②'와 관련된 뜻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40)은 '맞선말, 한뜻말'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사전이지만 이 어휘인 경우는 그러한 정보가 가장 소홀하다. 다른 사전들과 달리 '이따금'과 '가끔'의 일관성이 전혀 없으며, 뜻풀이에서도 '가끔'의 '~ 얼마쯤씩 ~'과 '간간이2①'의 '이따금씩'처럼 군더더기 말 '-씩'을 사용한다든가, '간혹'에는 '간간이. 어쩌다가.'로 단순대치형 뜻풀이를 해 놓고 '간혹/이따금'의 말미에서 '간간이2, 이따금/간혹'을 참고하도록 하여 유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어휘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한뜻말'[동의어]을 보임에 있어 낱말에 따라 그 수에서 차이가 난다. '어쩌다가②'항목에서는 '이따금'과 유의관계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따금'을 보면 '어쩌다가②, 왕왕2'과 '한뜻말'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휘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배열하고 뜻풀이를 하였음을 말해 준다. 의미의 연관관계를 이루는 어휘끼리 상호 비교를 해보면서 체계적인 뜻풀이를 한다면 이런 잘못은 없을 것이다.

(41)의 경우 '가끔'의 유의어로 제시된 '드문드문/때때로/종종'을 찾아보면 '드문드문'은 '이따금'을, '때때로'는 '시시로'를 유의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 뜻풀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가끔/드문드문/이따금/때때로'의 연관성을 알기가 어렵다. 이는 다른 사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끔'을 '동안이 조금씩 뜨게. 드문드문. 때때로 종종.'으로 뜻풀이를 했다면 최소한 '드문드문/때때로/종종'의 단어들을 같이 살펴서 체계적으로 그 뜻풀이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42)의 경우는 '가끔'과 '이따금'이 뜻풀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기본 어휘로 삼으면 된다. 그런데 이 사전에서는 '가끔'의 뜻풀이는 유의어를 나열해서 단순대치형의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 사전에는 '이따금'에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금'을 기본 어휘로 삼아 뜻풀이를 하

면 체계성과 정확성을 갖추게 된다. ‘이따금’의 뜻에는 유의어로 ‘가끔, 때때로, 왕왕’이 제시되고 있으나, ‘가끔’의 뜻에는 ‘때때로, 이따금’ 이외에도 ‘어쩌다가, 드문드문, 종종, 무시로’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무시로’는 ‘일정한 때도 없이. 자주.’의 뜻이므로 ‘가끔’을 간접적 풀이로 뜻을 밝힐 경우에는 ‘가끔(間)=이따금. 가다가. 어쩌다가. 때때로. 드문드문. 종종. 왕왕. 간혹. ⇨무시로’로 뜻 풀이를 함이 좋다. 그리고 ‘가끔’을 ‘무시로/수시로/자주’와 유의어군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무시로’의 뜻풀이에서 제외시킨다.

(43)은 (38)~(42)와는 아주 다르게 뜻풀이를 하고 있다. (38)~(42)에서는 유의어로 다룬 어휘들을 (43)에서는 별개의 어휘로 다루어 뜻풀이를 하고 있다. 간혹 유의어로 대치하여 풀이하는 경우가 있으나 완전한 대치가 아니라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서 대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따금’을 보면 ‘얼마쯤씩 있다가 가끔’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끔’에 ‘이따금’을 언급하여 두 어휘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하나 ‘가끔’에는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따금’을 이용하여 뜻풀이를 하고 있는 어휘가 꽤 되는데, 그 의미가 서로 겹쳐서 정확한 의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계열화, 체계화의 문제와 기준 어휘 설정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43)은 풍부한 용례 제시와 문형 정보 제공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표제어에 따라 원칙이 없이 뜻풀이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의 틀 속에서 어휘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을 제시해 본다.

이따금(間) 조금씩 있다가. 가끔. 때때로. 어쩌다가②. 드문드문. 가다가. 간간이.

왕왕(往往). 종종(種種). 간혹(間或). ¶예문.

가끔(間)=이따금. 때때로. 어쩌다가②. 드문드문. 가다가. 간간이. 왕왕(往往). 종

종(種種). 간혹(間或). ¶예문.

드문-드문(間) ①=이따금. 가끔. 때때로. 어쩌다가②. 가다가. 간간이. 왕왕(往往).

종종(種種). 간혹(間或). ¶예문. ②(공간적으로) 배지 않고 꽤 뜨게. 띄엄띄엄. ¶예문.

때때-로(㉠)=이따금. 가끔. 어찌다가②. 드문드문. 가다가. 간간이. 왕왕(往往).

종종(種種). 간혹(間或). ㉠예문.

어찌다가(㉠) ①뜻밖에 우연히. ㉠- 실수를 저지르게 되다. ②=이따금. 가끔. 때때로.

드문드문. 가다가. 간간이. 왕왕(往往). 종종(種種). 간혹(間或). ㉠예문.

종.종(種種)(㉠) =이따금. 가끔. 때때로 어찌다가②. 드문드문. 가다가. 간간이. 왕

왕(往往). 간혹(間或). ㉠예문.

(이하 생략)

사전 이용자들이 일차적으로 단어를 찾았을 때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차적으로나마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전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길이다.

다른 사전들도 이와 별로 다른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이따금’의 유의어군 뜻풀이는 위에 제시한 뜻풀이 방식에 따라 해야만 그 체계성과 정확성을 갖추게 된다.

#### ④ ‘비슷하다’의 유의어

(44) 고만고만-하다(㉠)(여변) 그저 고만한 정도로 여럿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

만그만하다. (\*‘고만’의 부표제어. - 필자 주. \*고만①고 정도까지만.

\*공부는 ~ 하고 운동 좀 해라. ②고대로 곧. 고냥 바로 \*시간이 없어

~ 가 보겠소 (출판.<그만.)

그만그만-하다(㉠)(여변) 그만하게 그저 어슷비슷하다. \*모인 사람들은 나이

나 학벌이 모두 ~. >고만고만하다.

비슷-하다(㉠)(여변) ①[같은 점이 많아] 거의 같다. \*옥주는 자기 아버지와

와 생김생김이 ~. 그들 형제는 음성이 ~. ②‘……로 추측됨’의 뜻. \*그

가 사탕 비슷한 걸 먹고 있더군. ×비속하다. 비젓하다.

비슷비슷-하다(㉠)(여변)

\*비슷-비슷(㉸) 여럿이 모두 서로 비슷한 모양. \*두 아이가 성적이 서로 ~하다.

저만-하다(㉸)①[크지도 작지도, 또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정도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②정도나 수준이 저와 같다. >조만하다.

-『새우리말큰사전』

(45) 그만그만-하다(㉸)(여변) 더 크거나 작지도 않고 또는 더 많거나 적지도 않고 그저 어슷비슷하다.『그만그만한 나이의 애들. >고만고만하다.

고만고만-하다(㉸)(여변) 서로 비슷비슷하다. 『고만고만한 또래의 아이들. <그만그만하다.

비슷-하다(㉸)(여변) 거의 같다.

비슷비슷-하다(㉸)(여변) 여럿이 모두 비슷하다. 『비슷비슷한 물건.

저만-하다(㉸)(여변) ①크기와 정도가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저만한 크기의 나무. /저만한 미인(美人). ②일이 그 정도에 있다. ③별로 대단하지 아니하다.『그저 ~. ①-③:>조만하다.

-『국어대사전』

(46) 그만그만-하다(㉸)(여변) 그만한 정도로 그저 비슷비슷하다. (비)나이들이 그만그만한 너댓 명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다. (작은)고만고만하다.

고만고만-하다(㉸)(여변)고만한 정도로 그저 비슷비슷하다. ㉸그만그만하다.

비슷-하다(㉸)(여변) 거의 같다. (비) 범은 고양이와 ~. 아버지와 아들이 ~. 생김새가 ~. 책은커녕 책 비슷한 것도 없다. ㉸방불하다<sup>1</sup>①. 유사하다<sup>2</sup>. 의사하다<sup>3</sup>. 의회하다①.

비슷비슷-하다(㉸)(여변) 여럿이 다 비슷하다. (비)비슷비슷한 얼굴들. 연년생인 우리 형제는 키가 ~. 이번 경기에는 실력이 비슷비슷한 팀들이 출전하여 우승을 예측할 수가 없다.

저만-하다(㉸)(여변) ①크지도 작지도, 또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정도가 비슷하다. (작은)조만하다①. ②정도가 저와 같다.(비)상처가 저만하길 다행이네요.(작은)조만하다②.

-『우리말큰사전』

(47) 그만그만-하다(㉸)(여불)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어슷비슷하다.『형제가 셋인데 사는 것이 다 ~. ㉸고만고만하다.

고만고만-하다(㉸)(여불) 서로 비슷비슷하다. 『키가 ~. /오늘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한 네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들인데다가 고향도 엇비슷하고 나이도 고만고만했다<崔一男,서울 사람들>. ㉸그만그만하다.

비슷-하다<sup>2</sup>[-스타-](㉸)(여불) [√빚(비뚱로)+ -웃+하다] 거의 같다. 『말소리가 그의 아버지와 ~. / 그 집 형제는 쌍둥이가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비슷할 수가 있나?

비슷비슷-하다[-스빠스타-](㉸)(여불) [√빚(비뚱로)+ -웃+비슷하다<sup>2</sup>] 여럿이 모두 비슷하다. 『비슷비슷한 키. /실력이 ~. /생김새가 ~.

저만-하다(㉸)(여불) ①형편이나 정도가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 『크기가 저만한 것으로 주시오 /저만하면 괜찮겠다. ②별로 대단하지 않다. 『상처가 저만하기에 다행이다. ㉸조만하다.

-『금성판 국어대사전』

(48) 그만그만-하다(㉸)(여) (정도가) 그저 어슷비슷하다. 『아이들의 키가 모두 ~. ㉸고만고만하다.

고만고만-하다(㉸)(여) 서로 비슷비슷하다. 『실력이 모두 ~ ㉸그만그만하다.

비슷-하다(㉸)(여) 거의 같다. 닳은 점이 많다. 『형제처럼 얼굴이 ~ .

비슷비슷-하다(㉸)(여) 여럿이 다 서로 비슷하다. 『키들이 모두 ~ .

저만-하다(㉸)(여) ①[정도나 수준이] 저 정도만 하다. 『저만한 일은 할 수 있다. ②정도가 비슷하다. 『키도 저만하고, 몸집도 ~ . ㉸조만하다.

-『동아 새국어사전』

(49) 고만고만-하다「형」,「1」,고만한 정도로 여럿이 다 비슷비슷하다. ¶고만고만한 또래의 아이들/실력이 모두 고만고만하다. (생략) § 「2」,사실이나 내용이 고풍고 고풍다. ¶고만고만해서 늦었습니다. §

그만그만-하다「형」,「1」,그만한 정도로 여럿이 다 비슷비슷하다. ¶실력이 그만그만하여 딱히 우승 후보가 누구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2」,사실이나 내용이 그렇고 그렇다. ¶그만그만한 일로 어제 결근을 했습니다. §

비슷-하다02[-스타-]「형」&「1」,【(…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따위가 똑같지는 아니하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이다./선임 하사와 오는 비슷한 체구를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달랐다.《황석영, 무기의 그늘》(생략) §& 「2」,(명사의 단독형 뒤에 쓰여) 「1」정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어떤 대상에 대하여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짐작되는 상태에 있다.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철수 비슷하군./어둠 속에서 불빛 비슷한 것이 보였다. (생략) § 「2」,비교가 되는 대상과 어느 정도 일치되지만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등 너머로 작곡법을 배우더니 노래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며 곡을 들고 왔다./박 씨 부인은 걱정 비슷하게 그러나 우스갯소리같이 말대꾸를 한다.《이기영, 봄》(생략) § 「비」,근사하다01 [1]. [ <이섯하다<두시-초> [←이섯+ㅎ-] / 이섯다<월석> ]

비슷비슷-하다[-스빠스타-]「형」,【(…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비슷비슷. ¶영희의 처지는 영수의 처지와 비슷비슷하다.//그들의 기량이 비슷비슷해 누가 더 뛰어난지 모르겠다. (생략)

비슷-비슷[-스빠슬]「부」,여럿이 다 거의 같은 모양. ¶피차 비슷비슷 닮은 사람들끼리 쌀이라도 한 줍씩 건자고 했다.《이정환, 셋강》§



저만-하다「형」 상태, 모양, 성질 따위의 정도가 저리하다. 『저만한 크기의 나무/상처가 저만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생략)』

- 『표준국어대사전』

(44)~(48)를 보면 사전들마다 ‘비슷하다’의 뜻을 ‘거의 같다.’로 풀이하고 있다. 용례 제시가 풍부하지 않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쓰이는지 알기 어려운 데 - 특히 『국어대사전』은 구체적 용례 제시가 다른 사전보다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 이 말은 ‘모양·생김새·소리·버릇·생각’ 따위의 구체적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에 두루 쓰이는 어휘이다.

- 소나무와 잣나무가 비슷하다.
- 철수와 영수는 걷는 모습이/버릇이/목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 박쥐는 생김새가 쥐와 비슷하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비슷하다’는 ‘N0-이/가+N1(-와/과)+V’, ‘N0-는/은+N1-이/가+Nn-와/과+V’, ‘N0-와/과+N1-이/가(-은/는)+Nn-이/가+V’의 조건에서 실현되는 형용사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뜻풀이에는 이러한 문형 정보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이 낱말은 ‘거의 같다. 많이 닮다. 아주 가깝다.’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비슷하다’를 기본 어휘로 하여 뜻풀이를 할 경우 ‘고만고만하다’는 ‘고만고만하다 = 비슷비슷하다.’로 풀이하고, ‘그만그만하다’도 역시 ‘그만그만하다 = 비슷비슷하다.>고만고만하다.’로 풀이함이 좋겠다. ‘저만하다①’는 ‘크기와 정도가 같거나 비슷하다.’로 ‘거의’를 삭제하고 뜻풀이를 함이 바람직하다.

(49)는 (44)~(48)과 차별화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기본 어휘인 ‘비슷하다’의 뜻풀이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점과 문형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의어 처리를 매우 소홀하게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고만고만하다’와 ‘그만그만하다’는 그 뜻이 같은 말이다. 다만 음성(音相),

곧 어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당연히 ‘고만고만하다<그만그만하다’나 그 반대의 경우로 두 어휘의 유의 관계를 밝혀줘야 한다.

### ⑤ ‘고치다’의 유의어

(50) 고치다(㉠) ① 낡거나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다.

수선하다 \* 헌 옷을 ~. 시계를 ~. ② 형식·모양 등을 바꾸다. \*그 회곡을 소설로 고쳤더니 한결 좋은 작품이 되었다. 그 셔츠를 남방 셔츠로 고쳐 입었다. ③ [이름이나 명칭 따위를] 다르게 바꾸다. \*이름을 고쳐야 잘 살겠소 ④ 틀리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그 원고는 많이 고쳐야 남 앞에 내놓을 수 있겠소 이 옷은 품이 맞지 않으니 고쳐 주시오 나쁜 버릇을 고치시오 ④ 병을 다스려 낫게 하다. \*내 병을 고칠 의사는 없는가 보오

수리-하다(㉠)(여변) : ‘수리(修理)’의 부표제어.

\*수리(修理)(㉠) 낡았거나 고장난 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온전한 것으로 고침.

수선-하다(㉠) — -되다(㉠) : ‘수선(修繕)’의 부표제어.

\*수선(修繕)(㉠) [낡은 것이나 허름한 것을] 손보아 고침.

- 『새우리말큰사전』

(51) 고치다(㉠) ① 헛거나 고장이 난 물건을 손질하여 쓸 수 있도록 만들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 기계를 ~. ② 병을 낫게 하다. ¶ 위장병을 ~. ③ 잘못된 일이나 마음을 바로잡다. 교정(矯正)하다. ¶ 버릇을 ~. ④ 틀린 것을 바로잡다. 수정하다. 정정(訂正)하다. ¶ 답안을 ~. ⑤ 변하다. 변개(變改)하다. ¶ 시간표를 ~. /규칙을 ~. ⑥ 모양이나 위치를 가지런히 하거나 바르게 하다. ¶ 옷매를 ~. /자세를 ~.

수리-하다(㉠)(여변)

\*수리12 【修理】(㉠) 고장난 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

수선-하다<sup>1</sup>툼(여변)

\*수선13 【修繕】툼 낡거나 허름한 것을 고침.

-『국어대사전』

- (52) 고치다<sup>2</sup>툼(남) ①낡거나 헐거나 고장이 나거나 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비) 발동기를 ~. 시계를 ~. 길을 ~. 헌 집을 ~. ②그릇되거나 틀리거나 한 것을 바로 잡다. (비)마음을 고쳐 먹다. 버릇을 ~. 글자를 ~. ③모양이나 태도 따위를 다시 새롭게 가지다. (비)자세를 고쳐 앉다. 넥타이를 고쳐 매다. ④이름, 명칭, 형식 따위를 다르게 바꾸다. (비)시간표를 ~. 한자말식 이름을 우리말 이름으로 고쳤다. 소설을 희곡으로 고쳐 썼다. ⑤병을 다스려 낫게 하다. (비)고치기 어려운 병. 한방 약으로 오래된 췌증을 고쳤다. **한낫우다.**

수리-하다<sup>2</sup>툼(남)(여변) ⇨수리10.(비)헌집을 수리하여 새집처럼 만들었다.

**한가수하다**5. [修理-]

\*수리:10 **이** 건물 따위의 허름한 데를 고치어 말끔하게 함. **한가수**2. [修理]

수선-하다<sup>4</sup>툼(남)(여변) ⇨수선10. (비)낡은 물건을 ~. [修繕-]

\*수선10 **이** 낡은 물건을 손보아 고침. [修繕].

-『우리말큰사전』

- (53) 고치다<sup>1</sup>툼(타) [√ 고치= (<√ 곧=+-히)+-다] ①(잘못이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버릇을** ~. /**답안지를** ~. /**자세를** ~. ②병을 낫게 하다. **위장병을** ~. **x낫우다.** ③못 쓰게 된 것을 쓸 수 있게 만들다. **시계를** ~. /**헌 옷을** 고쳐 입다. ④바꾸거나 다르게 하다. **이름을** ~. /**시간표를** ~.
- 수리-하다<sup>1</sup>툼(타)(여불) **고장난 시계를** ~. /**낡은 집을** ~. 수리-되다<sup>1</sup>툼(자). **기계가 수리되는** 즉시로 작업을 재개하라.

\*수리(修理)툼 고장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것. **~(공)**.

수선-하다<sup>1</sup>툼(타)(여불) **헌 옷을** ~.

\*수선[修繕]ᄃᆞᆫ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는 것.

—『금성판 국어대사전』

- (54) 고치다ᄃᆞᆫ ① 못 쓰게 된 것을 손질하여 쓸 수 있게 만들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시계를 -. ㉡ 병을 낫게 하다. ㉢ 속병을 -. ㉣ 잘못된 일이나 마음을 바로잡다. ㉤ 틀린 답을 -. /버릇을 -. ㉥ 바꾸다. 변경하다. ㉦ 이름을 -. ㉧ 모양이나 위치를 바르게 하다. ㉨ 비뚤어진 자세를 -.

수리- 하다

\*수리(修理)ᄃᆞᆫᄃᆞᆫ[고장이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 ㉠ 집을 -. 하다.

수선- 하다

\*수선(修繕)ᄃᆞᆫᄃᆞᆫ(낡거나 허름한 것을) 손보아 고침. ㉠ 구두 -.

—『동아 새국어사전』

- (55) 고치다01 [고치어[ -어/ -여](고쳐[-처]), 고치니] 「동」&「1」 【…을】 「1」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생략) 「2」 병 따위를 낫게 하다. ㉡ 이 병원은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자자하다.(생략) 「3」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 답안을 고치다/말씨를 고치다.(생략) 「4」 모양이나 자세 따위를 바꾸다. ㉣ 화장을 고치다/그녀는 머리 모양을 고치려고 미장원에 들었다.(생략) 「5」 치질을 바꾸다. ㉤ 팔자를 고치다/복권에 당첨되어 신세를 고치다.§ 「2」 【…을 …으로】 「1」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생략) 「2」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몽고는 국호를 원으로 고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생략) 「비」&<1><1>수리하다02. 「비」&<1><1>수선하다07. &<1><2>치료하다. [ <고치다<용> <가> ]

수리- 하다02 「동」, 【…을】 =>수리14. ㉠ 자전거를 수리하다. (생략) § 「비」& 고치다01& [1] [1] . 「비」수선하다07.

\*수리<sup>14</sup>(修理)「명」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 『사실 그는 일의 종류라면 발달기 수리로부터 도토리 요리까지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친구였다. <<홍성원, 육이오>>(생략)§「비」수선<sup>13</sup>(修繕).

수선-하다<sup>07</sup>「동」, 【…을】 =>수선<sup>13</sup>. 『고장 난 자전거를 수선하다/낡은 구두를 수선하다/언니의 옷을 수선해서 입었다.§「비」고치다<sup>01</sup>& [1] [1] .「비」수리하다<sup>02</sup>.

\*수선<sup>13</sup>(修繕)「명」낡거나 험 물건을 고침. 『옷 수선/수선만 잘하면 이 구두는 새것같이 되겠다.§「비」수리<sup>14</sup>(修理).

- 『표준국어대사전』

(50)~(55)을 보면 ‘고치다①/수리하다/수선하다’의 뜻풀이는 모든 사전이 거의 大同小異하다. 그런데 우리가 ‘고치다/수리하다/수선하다’의 어휘를 사용할 때, (51)·(54)의 경우와 같이 그냥 유의어로서 처리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세 낱말의 경우에는 ‘고치다’와 ‘수리하다/수선하다’는 유의 관계이면서 상하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치다’는 ‘수리하다’와 ‘수선하다’의 의미를 다 갖고 있지만 ‘수리하다’와 ‘수선하다’는 실제 쓰임에서 교체 사용에 제한이 있다. 곧, ‘수리하다/수선하다’ 모두 ‘손보아 고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수리하다’는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다. /낡은 집을 수리하다.’처럼 작고 큼에 관계없이 주로 ‘기계나 건축물을 고치다.’의 뜻으로 쓰이며, ‘수선하다’는 ‘구두를 수선하다. /험 옷을 수선하다.’처럼 ‘주로 작은 물건을 고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물건을 고치다.’의 뜻으로 쓰인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다/수리하다/\*수선하다.
- 험 옷을 고쳐/\*수리하여/수선하여 새 옷처럼 만들었다.
- 낡은 집을 고치다/수리하다/\*수선하다.
- 건물이 낡아 내부를 고치고/수리하고/\*수선하고 있다.
- 아버지가 아들의 버릇을 고치다/\*수리하다/\*수선하다.

위에서 보듯이 ‘고치다’는 구체적 사물이나 추상적 개념에 관계없이 두루 쓰임에 비해, 기계나 건축물인 경우에는 ‘수리하다’가, 작은 물건이나 바느질한 물건에는 ‘수선하다’가 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수선하다’의 경우에 ‘고장 난 자전거를 수선하다.’, ‘낡은 건물의 내부를 수선하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치다①’의 뜻풀이는 ‘①낡거나 고장이 난 기계·건축물 따위의 물건을 손질하여 새롭게 또는 쓸 수 있게 만듦. 수리하다. ②찢어지거나 낡은 옷·구두 따위의 물건을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손질하다. 수선하다.’처럼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풀이함이 더 바람직하다.

## 2) 반의어의 처리 방법과 뜻풀이의 실제

### (1) 반의어의 처리 방법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체계, 곧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작용하는 유기적 구조이다. 그러므로 언어 단위는 체계 속에서 다른 단위와 ‘계열적-결합적’ 관련성에 의해서만 언어적 가치가 획득된다고 한다. 예컨대, ‘따뜻하다’의 의미는 ‘덥다-서늘하다-춥다’ 등과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지 않고서는 불분명하며, ‘소’라는 구체적인 명사의 의미도 ‘송아지’ ‘말’과 같은 체계 속에서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sup>39)</sup>. 따라서 반의어의 뜻풀이도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체계성과 정확성을 띄게 된다.

반의어(antonym)란 ‘어떤 낱말에 대하여 반대되는 뜻을 지닌 낱말’을 말한다. 학자들에 따라서 ‘반대말, 반대어, 반의어, 相對語, 對照語, 對立語, 對稱語, 逆動語, 逆意語, 짝말, 맞섬말’ 등으로 그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과연 이 용어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인지 쉽게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널리 쓰이는 용어 가운데 ‘반의어’라는

39) 임지룡, 『전계서』(1995), 80쪽.

용어를 사용하여 뜻풀이의 체계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반의어의 체계는 형태상·의미상의 유표성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sup>40)</sup>

형태상의 유표성에 대한 성분 분석의 예를 본다면, 'B/a+B' 형과 'B/B+a' 형으로 나눌 수 있다. 'B/a+B' 형은 '도덕/부도덕, 상식/몰상식, 낙원/실락원, 고소인/피고소인' 따위처럼 부정접사에 의해, '수탉/암탉, 남학생/여학생' 따위처럼 성별 표지에 의해 유표성을 갖는 경우이고, 'B/B+a' 형은 '시원하다/시원찮다' 따위처럼 서술어에 유착된 부정어에 의해, '소/송아지, 개/강아지' 따위처럼 어근에 붙은 축소사에 의해 유표성을 갖는 경우이다.

의미상의 유표성에 대한 성분 분석의 예로는, '길다/짧다'의 경우 '길다=[형용사][비교적][길이][기준보다 크다(+극)]/ 짧다=[형용사][비교적][길이][기준보다 작다(-극)]'으로 '+극/-극'에 따라 유표성을 갖는다.

이러한 계열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체계적인 뜻풀이가 가능하다.

반의어의 체계 속에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뜻풀이를 하는데 반의 관계에 놓인 낱말들에 관해 통일된 체계를 세운다면, 한 낱말의 뜻을 알고 반의어인 다른 낱말의 뜻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사전이 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어떤 낱말들을 반의 관계로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이 문제가 된다. 심재기(1984)의 다음 글은 반의 관계를 규정짓는 데 아주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의어는 동질성(同質性)의 조건으로서, 한 언어 사회 안에서 심리적으로

동시 연상이 가능한 한 쌍의 단어이어야 한다.

둘째, 반의어는 동질성의 또 하나의 조건으로, 연상된 공존쌍이 논리적으로 동일

한 유개념(類概念)에 묶이는 동위개념(同位概念)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40) 임지룡, 위의 책, 172~175쪽; 임지룡, 『전계서』(1997), 397~422쪽 참조

셋째, 반의어는 이질성(異質性)의 조건으로 동위(同位)의 공존쌍이 의미의 배타성(排他性 incompatibility: 兩立不能性)을 가져야 한다.

넷째, 반의어의 이질성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대칭적 상반성(對稱的 相反性 symmetrical contrariness)을 가져야 한다.

이는 의미특질로서 ‘共存變과 同位性을 가지는 동질성, 배타성과 대칭적 상반성을 가지는 이질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두 낱말이 서로 반의 관계[반의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적:다2(㉠)[분량이나 수효가] 어느 표준에 자라지 아니하다. 많지 아니하다. \*재미가 ~. ↔ 많다. ⇨ 작다.

많:다(㉡) ①[수나 양이] 일정한 기준 이상이다. \*재산이 ~. ②어떤 표준 정도보다 더하다. \*복이 ~. 경험이 ~. ↔ 적다2.

—『새우리말큰사전』

적:다3(㉢) 많지 아니하다. 어느 표준에 자라지 못하다. ¶ 경험이 ~. / 적은 수입. ↔ 많다.

많:다(㉣) 사물의 수효나 분량·정도가 어느 표준을 넘다. 적지 않다. 수가 넉넉하다. ¶ 말이 ~. / 경험이 ~. / 복이 ~. ↔ 적다.

—『국어대사전』

적:다2[-따](㉤)(수나 양이) 어느 기준 이하이다. ¶ 밥이 ~. / 수입이 ~. / 칼로리가 적은 식품. ↔ 많다.

많:다[만타](㉥)[√만(?) + 하다] 사물의 수효나 분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다. ¶ 자식이 ~. / 밥이 너무 ~. /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 고생이 많습니다. ↔ 적다.

—『금성판 국어대사전』



적다<sup>2</sup>(형)[분량이나 수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다. 모자라다. ↔ 많다.  
 많다[만타](형) ①수효나 분량이 어떤 기준을 넘다. ¶ 인원이 -. /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②정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다. ¶ 유난히 정이 -. /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많은 경험을 쌓다. ↔ 적다.

-『동아 새국어사전』

적다<sup>2</sup>[적 : 따] [적어[저 : 거], 적으니[저 : 그-]] 「형」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수입이 적다/경험이 적다/관심이 적다/적지  
 않은 피해를 입다(생략)「반」, 많다. [<적다<석상>]

많다[만 : 타] [많아[마 : 나], 많으니[마 : 느-], 많소[만 : 쏘]] 「형」 수효나 분  
 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 ¶경험이 많다/사람이 많다/자식이 많다/  
 한이 많다(그 많던 돈을 다 써 버렸다(생략)「반」, 적다<sup>2</sup>. [<만하다<용가>]

-『표준국어대사전』

이 ‘적다/많다’의 경우 ‘적다=[형용사][비교적][수량][기준보다 작다(-  
 극)]/많다=[형용사][비교적][수량][기준보다 크다(+극)]’으로 ‘+극/-극’  
 에 따라 의미상의 유표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적다(○) : 수효나 분량이 어느  
 기준보다 못하다(모자라다). / 많다(○) : 수효나 분량이 어느 기준을 넘다.’를  
 ‘기본뜻’으로 삼아 뜻풀이를 하는 것이 충실하고 타당한 뜻풀이라 하겠다.

## (2) 반의어 뜻풀이의 실제

반의어 처리에서 비체계성을 다음 몇 개의 어휘를 예로 들어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① ‘사다/팔다’의 경우

(56) 사다(○) ①[남의 것을] 값을 치러 주고 제 것으로 만들다. \*책을 ~. ↔ 팔다

①. ①샅을 주고 노력을 얻다. \*날품을 ~. ②[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돈을 장만하다. \*채소를 팔아 돈을 ~. ↔팔다⑥. ③자기 잘못으로 고생이나 욕 또는 병 같은 것을 얻다. \*생으로 고생을사서 한다. ④[자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일게 하다. \*미움을 ~. 악감을 ~. 환심을 ~. ⑤어떤 행동을 하여[남에게서 웃음이나 조소 같은 것을] 받다. \*제 밥 먹고 남의 비웃음을 사다니?

팔다<파니·파오>㉠(㉠변)①값을 받고 물건을 넘겨준다. \*과자를 ~. ↔사다①. ②값을 받고 노력 따위를 제공한다. \*샅품을 ~. ③[부당한 이득을 위해 양심 따위를] 버리거나 무시하다. \*살아가기 어렵다 해서 양심을 파는 날이 온다면, 그건 네 삶의 마지막일 것이다. ④[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끌어다가 핑계를 하다.\*친구를 ~. 이름을 ~. ⑤[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 \*눈을 ~. 정신을 ~. 귀를 ~. ⑥[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사다②. \*조반 지을 쌀을 ~. 연탄을 ~. \*폴다.

—『새우리말큰사전』

(57) 사다㉠ ①남의 것을 값을 주고 제 것으로 만듦다. ㅍ책을~. ②곡식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가지다. ㅍ쌀을 ~. ③제 탓으로 욕이나 병 같은 것을 얻다. ㅍ고생을 사서 하다. /원한을 ~. /웃음을 ~.: ↔팔다.

팔다㉠(㉠변) ①값을 받고 물건이나 노력(勞力)을 주다. ↔사다①. ②이름을 빙자하다. ㅍ친구의 이름을 ~. ③정신이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 ㅍ한 눈 ~가 넘어지다. ④돈을 주고 남의 곡식을 사다. ㅍ쌀 팔러 가다. ↔사다②. ⑤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허락하다. ㅍ몸을 ~.

—『국어대사전』

(58) 사다<sup>3</sup>(움)(남) ①값을 치르고 제 것으로 만듦다. (비) 찬거리를 ~. (맛) 팔다①. ②샅을 치르고 일꾼을 부리다. (비) 품을 ~. 일꾼을 ~. ③곡식을 팔아서 돈을 장만하다. (비)쌀을 팔아서 콩을 사다. (맛) 팔다⑤. ④욕이나

병 같은 것을 얻거나 당하다. (비)경멸과 분노를 ~. 채 고생을 제가 사서 한다. 우환을 샀다. ④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거나 나타내게 하다. (비)호감을 ~. 의심을 ~. 오해를 ~. 미움을 ~. 비웃음을 ~. ⑤좋고 나쁜 정도의 값을 치다. (비)그 분의 아름다운 감정을 높이 ~. 그의 정직한 태도는 높이 살만하다.

팔다(음)(남)(르)벗) ①값을 받고 무엇을 남에게 넘겨주다. (비)집을 ~. 책을 ~. 음식을 ~. 노예를 팔던 시장. (한)판매하다.(맞)사다<sup>3</sup>①. ②값을 받고 어떤 일을 해 주다. (비)품을 ~. 재주를 팔아먹고 산다. ③자기에게 이로우려고 어떤 일에 무엇을 끌어다가 대다. (비)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친구를 팔 수는 없다. 거기 가서는 내 이름을 팔면 된다. ③옳지 않은 이득을 얻으려고 바른 마음을 내버리다. (비)양심을 ~. 지조를 ~. ④정신을 딴 데로 돌리다. (비)한눈을 ~. 어디다 정신을 팔고 다니느냐? 귀를 팔고 앉아 있다. ⑤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비)쌀을 한 말 팔아 왔다. (맞)사다<sup>3</sup>②. [ <팔다].

—『우리말큰사전』

(59) 사다(圖)(타) ①(남의 것을) 값을 치르고 자기 것으로 만들다. 『연필을 ~. ②가진 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다. 『곡식을 팔아 돈을 ~. ↔팔다. ③자기의 잘못으로 고생·욕·병 따위를 얻다. 『남의 비웃음을 ~ / 고생을 사서 하다. ④(상대로 하여금) 자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하다. 『원한을 ~ / 환심을 ~ / 동정을 ~. ⑤가치를 인정하다. 『그의 능력을 높이 ~. ⑥(사람을) 대가를 치르고 부리다. 『사람잡꾼을 ~.

팔다(圖)(타) <파니, 파오> ①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노력을 제공하다. 『음식을 ~ / 집을 ~. / 품을 ~. ②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쌀을 ~ / 매주를 쭈려고 콩을 팔아 오다. ↔사다. ③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허락하다. 『몸을 파는 여자. ④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빙자하거나 등지다. 『남의 이름을 팔아 행세하다. / 양심을 ~. / 지조를 ~. /

일신의 영화를 위해 나라를 ~. ⑤시선이나 정신을 다른 대상에 돌리다.  
 『한눈을 ~. /정신을 떼데 ~.

-『금성판 국어대사전』

(60) 사다(타) ①대금을 치르고 물건이나 어떤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하다. 『농장을 ~. / 품을 ~. ②입금을 치르거나 치르기로 하고 노동력을 얻다. 『짐꾼을 ~. ③돈을 치르고 사람을 청하여 즐기다. 『악단을 사서 여흥을 즐기다. ④물건을 주고 돈을 마련하다. 『마늘 접이나 팔아서 돈을 좀 샀지. ⑤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하다.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 ⑥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일이 자신에게 미치다. 『공연한 말로 원한을 ~. / 반감을 ~. /인축을 ~. ⑦값어치를 인정하다. 『그의 재능을 높이 ~. ①② ↔ 팔다.

팔다(타) ①돈을 받고 물건이나 노력이나 권리를 남에게 주다. 『사과를 ~. / 품을 ~. ②눈이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 『한눈을 팔지 말아라. ③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양식 팔러 간다. ④(이름 따위를) 빙자하다. 『친구의 이름을 팔고 돈을 얻어 쓰다. ⑤(부당한 이득을 위해) 속이거나 배반하다. 『양심을 ~. / 나라를 ~. ⑥(명성을 얻으려고) 이름을 세상에 퍼뜨리다. 『큰 공을 세웠노라고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다. ⑦(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허락하다. 『밤거리에서 몸을 ~. ①③ ↔ 사다.

-『동아 새국어사전』

(61) 사다 [사, 사니] 「동」&「1」【…에서/에게서 …을】(‘…에게서’ 대신에 ‘…에게’가 쓰이기도 한다)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사다/중고 시장에서 자가용을 사다/친구한테서 잔값으로 책을 샀다.(생략) §&「2」【…을】「1」가진 것을 팔아 돈으로 바꾸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쌀을 팔아 돈을 샀다. §「2」(주로 ‘사서’ 꼴로 쓰여) 안 해도 좋을 일을 일부러 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도 한다지 않느냐? §「3」 다른 사람의 태도나 어떤 일의 가치를 인정하다. 『공로를 높이 사다/나는 그 친구의 성실함을 높이 산다./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을 높이 사고 싶다. §「4」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부리다. 『짐꾼을 사서 이삿짐을 날랐다./일꾼이라도 사서 오늘 안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3」, 【…에게서 …을】 (‘…에게서’ 대신에 ‘…에게’나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하다. 『남한테서 의심을 살 만한 일은 하지 마라.(생략) §「4」, 【…에게 …을】 음식 따위를 함께 먹기 위하여 값을 치르다. 『친구에게 저녁을 사다.(생략) §「반」&<1>팔다& [1] [1]. [사다<석상>]

팔다 [팔아, 파니, 파오] 「동」&「1」, 【…에게 …을】 「1」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기거나 노력 따위를 제공하다. 『학생들에게 책을 팔다/정부에 땅을 팔다.(생략) §「2」(주로 '몸'과 함께 쓰여) 여자가 돈을 받고 육체관계를 맺다. 『팔 것이 없는 젊은 여인들은 이국 병정에게 몸도 팔았다. <<홍성원, 육이오>> §「3」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돈을 받고 윤락가나 윤락업을 하는 사람에게 넘기다. 또는 사람을 돈을 받고 물건처럼 거래하다. 『미성년자를 윤락 업소에 판 파렴치한이 체포되었다. §「4」 ('눈', '정신' 따위와 함께 쓰여)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 곳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리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었니? §「2」, 【·을】 「1」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끝어다가 핑계를 대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다. §「2」 옳지 아니한 이득을 얻으려고 양심이나 지조 따위를 저버리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양심을 팔다/지조를 팔다. §「3」, 【·에서/에게서 …을】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아버지는 늘 다니는 가게에서 쌀을 팔아 오셨다./친구에게서 싸게 쌀을 팔아 오는 덕분에 근근이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다. §「반」&<1><1>사다& [1]. [< 팔다<석상>]

(56), (58)은 ‘팔다’에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허락하다.’는 풀이가 없어서 뜻풀이가 부족하다. (57)의 경우는 ‘사다’ 뜻풀이의 끝에 ‘팔다’와 반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팔다’의 모든 뜻풀이 항목과 ‘사다’의 모든 항목을 반의 관계로 보게 된다. 그러나 막상 대비를 해 보면 ‘팔다’의 뜻풀이에서는 ①과 ④의 뜻풀이에서만 ‘사다’의 ①과 ②가 반의어임을 제시하고 있다.

(58)의 경우는 <규범문법>을 무시하고 한글학회에서 제정한 독자적 문법을 사용함으로써 통일된 어법을 추구하는 사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실제 사전 편찬 시에는 이용자들이 시각적으로 단순한 느낌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어의 약호를 사용하기보다는 ‘ㄹ, ↔’ 따위를 이용해서 ‘용례, 반의어’ 따위를 제시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사다’<sup>①⑦</sup>의 “샀을 치르고 일꾼을 부리다.”는 풀이는 ‘팔다’의 뜻풀이와 관련해서 “샀을 치르고 남의 힘을 얻거나 일꾼을 부리다.”로 하는 게 낫다. ‘사다’<sup>②</sup>의 용례는 그 뜻풀이에 적절하지 못하다. ‘쌀을 팔아서 콩을 사다.’라고 하면 ‘팔다’의 뜻이 ‘①값을 받고 무엇을 남에게 넘겨준다.’인지 ‘⑤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만약에 ①의 뜻이라면 반의 관계로서 ‘사다’의 뜻은 ‘①값을 치르고 제 것으로 만듦다.’이므로 이 항목에 대한 용례로 제시되어야 하고, ‘팔다’의 뜻이 ⑤의 뜻이라면, 이 용례 문장은 ‘쌀을 팔고 콩을 사다.’로 해야 바람직하다. 덧붙여서 국어사전의 표제어 뜻풀이는 단순히 그 낱말의 뜻풀이에 그치지 않고 통사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개별 낱말에 대한 통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팔다’가 ⑤의 뜻으로 쓰일 경우 ‘N0+V0-고(나서)+Nn+Vn’의 조건에서만 실현되고, ‘N0+V0-어서/아서+Nn+Vn’의 조건으로는 실현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사 정보가 뜻풀이와 함께 제공된다면 사전이용자들은 자기가 찾는 낱말들의 사용 환경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60)의 경우는 ‘사다’<sup>①②</sup>↔‘팔다/ 팔다’<sup>①③</sup>↔‘사다’로 반의어 표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다’<sup>①②</sup>와 ‘팔다’<sup>①③</sup>를 반의 관계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막

상 그 뜻풀이를 보면 이는 전혀 맞지 않다. ‘사다①’과 ‘팔다①’은 반의 관계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다②’인 경우는 사전 편찬 작업에서 ‘사다④’의 오류가 아니라면 - ‘사다④’가 ‘팔다③’과 반의 관계에 놓임을 알 수 있다. - 이는 너무 무성의하고 소홀하며 비체계적인 뜻풀이이다. ‘사다②’의 ‘임금을 치르거나 치르기로 하고 노동력을 얻다.’에 해당하는 ‘팔다’ 항목의 뜻풀이가 ‘임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노동력을 주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풀이 항목이 없다. 물론 이러한 뜻이 모든 문형에서 동등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품을 사다/팔다.’처럼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의 관계를 살펴서 뜻풀이를 해야 한다.

또한, ‘사다①’의 ‘대금을 치르고 ~’는 ‘돈을 치르고 ~’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팔다⑦’의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허락하다.’의 풀이가 있으나 ‘사다’의 뜻풀이 항목에는 없다. 엄연히 ‘돈을 주고 여자의 몸을 제공받다.’는 행위를 ‘여자를 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풀이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 ② ‘안/밖’의 경우

(62) 안[圖] ①[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 \*장~에는 온갖 비단 옷감이 가득 들어있다. x안악.  
↔바깥①. 밖①. ⇨내(內). 내부(內部). ②일정한 표준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한 정도 \*사흘 ~에 끝난다. ③집안에서 부인들이 거처하는 방. 내실(內室). 안방②. ④→ 안짱. ⑤‘아내’를 낮게 이르는 말.

밖[圖] ①어떤 선이나 경계를 넘어선 쪽. \*트랙 ~으로 뛰어라. ↔안①. ②어느 물체의 겉이 되 는 쪽, 또는 그러한 부분. \*뒷주머니 ~으로 내어민 게 뭐요? ③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미치지 않는 부분. \*그 ~의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요 ④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 \*네가 온다는 것은 정말 예상 ~의 일이야. ④안 사람이 ‘바깥어른’을 이르는 말. ~에서 하시는 일을 안에서 무얼 압니까? ⑤[‘밖에’형으로 쓰여] 그것을 빼면. 그

것이 아니면. \*오직 하나~에 없는 아들. 남아 있는 사람은 나~에 없군.

⑥→바깥.

-『새우리말큰사전』

(63) 안<sup>1</sup>□<sup>2</sup>○<sup>3</sup> ①사물이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곳이나 쪽<sup>1</sup>~으로 들이다. \* 내부<sup>3</sup>(內部). ②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곳. 속.<sup>1</sup>입 ~에 넣다. ①②: ↔ 밖. ③어느 표준 한계에 미치지 못한 정도 이내(以內). <sup>1</sup>일주일 ~에 마치다. ④집안에서 부인들이 거처하는 곳. 내실(內室). <sup>1</sup>~방. ⑤<sup>1</sup>안짱. (\*<sup>1</sup>/<sup>2</sup>: 준말의 원말 앞에 - 필자 주) ⑥<속> 아내. □<sup>2</sup>○<sup>3</sup> 「여자」를 가리키는 말. <sup>1</sup>~주인. /~사돈.

밖<sup>1</sup>○<sup>2</sup> ①무슨 테나 금을 넘어선 쪽. 외(外). <sup>1</sup>대문 ~. /금 ~으로 나간다. ↔안 ①. ②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 <sup>1</sup>~은 노랑, 안은 빨강. ↔②. ③정해 놓은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 것. 이외(以外).<sup>1</sup>그 ~의 사람들. ④<sup>1</sup>바깥. <sup>1</sup>~에 나가 놀아라.

-『국어대사전』

(64) 안<sup>1</sup>(이) ①어떤 공간이나 물건의 둘레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 부분. (비)방 ~. (맞)밖 ②.<참고>내부<sup>3</sup>. 속<sup>1</sup>①. ②일정한 기준이나 한계에 못 미치는 정도 (비)사흘 ~에 끝내자. (한)내6. ③ = 안짱①. (비)무명 ~을 넣은 저고리. ④ = 안방<sup>1</sup>②. (비)~에 들어가더니 소식이 없다. ⑤ ‘아내’를 일컫는 말. (비)변변하지 않지만 제 ~의 솜씨입니다. ⑥ ‘여자’의 뜻. (비)~ 사돈. ~ 주인. (맞)바깥③.

밖<sup>1</sup>(이) ①겉이 되는 쪽이나 부분. (비)날숨은 몸 ~으로 내보내는 숨이다. 헤어진 양말 ~으로 내민 엄지발가락. <참고> 속<sup>1</sup>①. ②테두리나 경계선 따위를 벗어난 쪽. (비)창 ~을 내다보다. 성 ~으로 나간다. 이 금 ~으로 물러나시오 천 리 ~에서 일어난 일. (맞)안<sup>1</sup>①. ③어떤 범위나 한도에 들지 않는 것. (비)그 ~의 일. 규정 ~의 문제. 당신 ~에도 다른 사람이 더 있지요 뜻 ~에



만남 사람. 예상 ~의 일. (한외)<sup>4</sup>. ④'밖에는' 꼴로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 ①임자씨 아래에서, '오직 그것 뿐임'을 나타냄. (비)너 ~에 없다. 하나 ~에 없는 자식. 한 분 ~에는 안 계신 어른. 세 명 ~에는 안 왔다. ①어찌 말 아래에서,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할 뿐임'을 나타냄. (비)그렇게 ~에 할 수 없다. 이 차는 수원까지 ~에 안 간다. 일을 이 따위로 ~에는 못 할까 ②주로 '- 르(을)' 매김꼴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거나 그러할 뿐임'을 나타냄. '- 르 수 밖에 없다.'의 줄어진 꼴이다. (비)참을 (수) ~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저렇게 착하니 천사랄 (수) ~에 (없지). ⑤=바깥①. (비)~에 나가서 놀아라. ⑥=한데<sup>2</sup>. (비)~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⑦=바깥 주인. (비)~에서 하시는 일을 아낙이 어찌... [<밖>

- 『우리말큰사전』

- (65) 안[안] ①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곳이나 쪽[서랍 ~/극장 ~으로 들어간다. ↔밖. ②일정한 표준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한 정도 [1시간 ~에 일을 끝낼 예정이다. /성적이 5등 ~에 들다. ③집안에서 부인들이 거처하는 방. 내실(內室). [~ 주인. ④'안짱'의 준말. [저고리에 명주로 ~을 넣다. ⑤'아내'를 낮게 이르는 말.

밖[박] ①(자립)①속이나 안의 반대되는 쪽. 또는, 그러한 부분. [~에서 놀다. ②어떠한 선이나 경계를 넘어선 쪽. [창 ~. /사대문 ~. /골 라인 ~으로 벗어난 곳. ↔안. 2(의존) 일정한 범위에 미치지 않는 부분. [그 ~의 문제는 내 알 바 아니다. /예상 ~의 문제가 나온다.

- 『금성판 국어대사전』

- (66) 안(명) ①어떤 곳이나 물건의 둘레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 부분. [사무실 -. /옷장 -. ②[시간이나 공간·수량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열흘 -에 돌아오다. /이 -에서 고르다. ③'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제 -이 그러하였습니다. ④<안짱>의 준말. ⑤집안에서

부인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나온다.

밖(명) ①담이나 벽 따위로 둘러서 가린 장소를 벗어난 쪽이나 곳. 바깥 『사무실 -으로 나가다. /-에서 기다리다. ②[‘속’에 대하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쪽이나 부분. 『감정을 -으로 드러내다. ↔ 속. ③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곳을 벗어난 곳. 『공이 라인 -으로 나가다. ④어떠한 범위나 한계를 넘어선 부분. 『상상 -의 일. ⑤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떨린 데가 아닌 다른 데. 『저녁 식사를 -에서 하다. / 일거리를 -으로 돌리다. ①③↔안  
-『동아 새국어사전』

(67) 안이「명」,「1」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 『건물 안극장 안에 들어가다/지갑 안에서 돈을 꺼내다.(생략) §2,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않은 정도 『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생략) §3, =안방02 [2] . 『아버지께서 사랑에서 안으로 들어가셨다. §4, =안짱 [1] . 『저고리에 명주로 안을 낳다. §5, '아내'를 이르는 말. 『변변치 않지만 제 안이 차린 음식입니다. §6, 조직이나 나라 따위를 벗어나지 않은 영역.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회사 안에서 처리하시오(생략) §7, 반, <1>바깥 [1] . [<안>용가]

밖[박] [박이[바깥], 밖만방-] 「명」,「1」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밖을 내다보다/이 선 밖으로 나가시오(생략) §2, 겉이 되는 쪽. 또는 그런 부분. 『옷장 안은 깨끗했으나, 밖은 굵힌 자국으로 엉망이었다.(생략) §3,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그녀는 기대 밖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생략) §4, 무엇에 의하여 둘러싸이지 않은 공간. 또는 그쪽. 『밖에 나가서 놀아라/밖은 추우니 나오지 말고 집 안에만 계십시오 §5, =한데02 [1] . 『당장 머물 곳이 없으니 밖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판이다. §6, =바깥만 [1] . 『밖에서 하시는 일을 안에서 어찌 알겠습니까? § [<밖>용가]

(62)을 보면 ‘밖①’의 뜻풀이는 “어떤 선이나 경계를 넘어선 쪽”으로 되어 있고 ‘안①’과 반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안①’의 뜻풀이는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으로 되어 있어 서로의 반의 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점은 ‘안⑤’와 ‘밖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밖①’의 뜻을 기본의미로 한다면 ‘안①’은 “어떤 선이나 경계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이라 해야 하며, ‘안⑤’는 “=[주로 낮게 이르는 말] 아내”, ‘밖④’는 “[아내가 남편을 이르는 말] 바깥어른”으로 풀이함이 체계적인 뜻풀이가 된다.

(63)는 ‘안①’이 ‘관형사’로 쓰임을, (64)은 ‘밖’이 ‘밖에(는)’의 꼴로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이는 용법을, (65)은 ‘밖’이 ‘의존명사’의 구실이 있음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사전들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 모든 정보를 국어사전들마다 모두 제시하여야 하는데 기존 국어사전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두루 갖춘 것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호 비교를 해 봄으로써 각 사전들마다 부족한 뜻풀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헤아릴 수 있다.

(66)의 경우 ‘밖①·③’ 항목이 ‘안’-정확하게는 ‘안①·②’이다.-과 반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었으므로 ‘안①’의 뜻을 기본의미로 삼을 것인가, ‘밖①’의 뜻을 기본의미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안①’의 뜻을 일반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의미로 삼고, 이에 따라서 ‘밖①’을 ‘어떤 곳이나 물건의 둘레 가운데서(로부터) 벗어난 쪽이나 곳’으로 뜻풀이함이 타당하다. 뜻풀이의 실체는 모든 사전이 꼭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편찬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쉽게 설명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밖③’의 뜻풀이와 반의 관계에 놓이는 ‘안’의 뜻은 ②항목이겠는데, ‘안②’의 뜻은 [시간/공간/수량]N-에/에서/으로+V 조건에서 실현되지만 ‘밖③’은 [공간]N-으로+V의 조건에서만 실현되므로 이러한 통사 정보가 뜻풀이와 함께 제시되어야 사전이용자들이 낱말의 정확한 사용 환경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67)은 ‘안’과 ‘밖’이 반의관계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없다. ‘안’의 반의어로 ‘바깥’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과 ‘밖’의 뜻풀이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안’은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으로, ‘밖’은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는 (6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체계성으로 갖춰 뜻풀이를 해야 한다.

### ③ ‘가다/오다’의 경우

(68) 가다(움×제)(거라뻬) ①이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다. (비)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부산에 언제 가니? 서울에 가거든 그를 만나 보아라. 말을 타고 간다. (맞)오다<sup>2</sup>①. ②종사하거나 배우거나 일보기 위해 있던 곳에서 어디로 옮기다.(비)군대에 ~. 학교에 ~. 동사무소에 간다.(맞)오다<sup>2</sup>②. ③소식, 연락, 말 따위가 어디, 누구에게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비)연락이 ~.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한다. (맞)오다<sup>3</sup>③. ④(대상을 기준으로) 어떤 정도에 이르다. (비)소년의 키는 그의 허리쯤에 갈까 말까 했다. <참고>오다<sup>2</sup>④. ⑤시계 따위의 기계가 움직이다. (비)오래된 시계지만 잘 간다. ⑥(한 쪽으로) 물체가 기울어지거나 치우치다. (비)기둥이 왼쪽으로 좀 간 듯하다. (맞)오다<sup>2</sup>⑥. ⑦보는 눈이 어디로 쏠리다. (비)눈길이 ~. (맞)오다<sup>2</sup>⑦. ⑧어떤 시간, 날, 달, 철 따위가 지나다. (비)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맞) 오다<sup>2</sup>⑧. ⑨(나중의) 어떤 때에나 지경에 이르다. (비)결국에 가서는 ... 내일쯤에 가셔야 개표 결과가 나올 듯하다.(맞)오다<sup>2</sup>⑨. ⑩상태, 형편 따위가 계속되거나 유지되다. (비)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 건물은 앞으로 50 년은 간다. ⑪마음이나 느낌이 어디로 쏠리다. (비)관심이 ~. 동정이 ~. 나도 그런 느낌이 간다. <참고> 오다<sup>2</sup>⑩. ⑫이해, 짐작, 판단 등이 되다.(비)이 해가 ~. 짐작이 ~. 그렇게 판단이 가지만...<참고>오

다<sup>2</sup>⑩. ⑬금, 줄, 흙, 주름살 따위가 생기다. (비)금이 간 항아리. 잔주름이 간 치마. ⑭끼인 때 따위가 사라져 없어지다. (비)빗물에 때가 잘 간다. ⑮불이 꺼지다. ⑰전깃불이 꺼지거나 전기 따위가 통하지 아니하다. (비)전기가 ~. (맞)오다<sup>2</sup>⑬. <참고>나가다⑨. ⑰불기운이 사위어 없어지다. (비) 화롯불도 가 버렸잖아? ⑰본래의 맛, 성질 따위가 변하거나 없어지다. (비)입맛이 ~. 김치맛이 갔다. ⑰사람이 죽다. (비)선생님께서 졸지에 가시다니.... 비명에 간 사람들. ⑱손질, 품, 비용 따위가 들다. (비)손질이 많이 가는 일. 올 농사는 시절이 좋아서 품이 덜 든다. ⑲어떤 값이나 정도에 이르다. (비)쌀 한 가마에 오만 원 간다. 이 들의 무게가 얼마나 같까? ⑳(남에게) 차례지거나 몫이 지다.(비)첫째 가는 일. 둘째가라면 섰다지. 그에게 한 개가 더 갔다.(맞)오다<sup>2</sup>⑭. ㉑운수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없어지다. (비)이미 가 버린 행운. 그러한 세도는 어디로 갔는지.... (맞)오다<sup>2</sup>⑮. ㉒재산이 거덜이 나 없어지다. (비)그 많던 재산 어디로 갔는지? ㉓손해, 피해 따위를 입게 되다. (비)손해 갈 장사를 누가 하겠나? 네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하마. ㉔목적하는 일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비)새 역사의 갈 길. 그러한 시비 논쟁이 어디까지 갔던가? (맞)오다<sup>2</sup>⑯.

- (남)(거라뻬) ①(떠나는 쪽에서) 어떤 일을 하러 어디로 움직이다. (비)나무를 ~. 구경을 ~. 문병을 ~. (맞)오다<sup>2</sup>①. ②(떠나는 쪽에서) 어떤 길을 통하여 어디로 움직이다. (비)밤길을 ~. 시골길을 ~. 가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하였다. (맞)오다<sup>2</sup>②.

오다<sup>2</sup>(움)(제)(너라뻬) ①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움직이다. (비)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서울에 언제 오니? 그가 오거든 이 책을 주어라. 가마를 타고 왔다. (맞)가다①. ②종사하거나 배우거나 일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다. (비)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 대학에 와서 더욱 열심히 하였다. 세무서에 왜 왔소? (맞)가다②. ③소식, 연락, 말 따위가 어디, 누구에게서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비)전보가 ~. 전화가 ~. 편지가 ~. 연락이

- ~. (맞)가다③. ④(자기를 기준으로) 어떤 정도에 이르다. (비) 시냇물이 무릎까지 왔다. 가슴까지 오는 갈대숲 사이로 걸어갔다. (참고) 가다④.
- ⑤비, 눈, 서리, 이슬 따위가 내리다. (비)단비가 왔다. 첫눈이 ~. 때 아닌 서리가 와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 ⑥(이 쪽으로) 물체가 기울어지거나 치우치다. (비)기둥(경계선)이 이리로 더 온 듯하다. (맞)가다 ⑥. (참고) 나오다②. ⑦(자기에게로) 보는 눈이 쏠리다. (비)여러 사람들의 눈길이 내게로만 오는 것 같았다. (맞)가다⑦. ⑧어떤 시간, 때, 날, 달, 철이 되다. (비)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새 날이 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도다. (맞)가다⑧. ⑨어떤 때에나 지경에 이르다. (비)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오늘에 와서야 깨닫게 된 일. (맞)가다⑨. ⑩말, 생각, 판단, 느낌 따위가 떠오르다. (비)얼른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문맥의 뜻이 잘 오지 않는 걸. 들어 봐도 별다른 느낌이 오지 않았다. (참고) 가다⑩ ⑫. ⑪어떤 원인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일어나 현상이 나타나다. (비)일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미워하는 데서 오는 오해. 오래만의 만남에서 오는 반가움. 우리나라 말 이름 가운데는 몽고어에서 온 것이 많다. 그러한 환난이 또 올까 무섭다. ⑫잠, 졸음, 몸살, 감기 따위에 들거나 들기 시작하다. (비)졸음이 ~. 몸살이 오려는지 어슬어슬 추워진다. ⑬전깃불이 켜지거나 전기 따위가 통하다. (비)전기(전깃불)가 왔다. (맞)가다⑬⑦. ⑭(자기에게) 차례지거나 몫이 지다. (비)마침내 내 차례가 왔다. 나한테 한 개가 더 왔으니 돌려 드리겠습니다. (맞)가다⑭. ⑮운수나 보람 따위가 나타나다. (비)그에게 행운이 오는가 싶더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노력 끝에 성공이 오는 법이다. (맞)가다 ⑮. ⑯목적한 일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비)군축 협상이 어디까지 왔다? (맞)가다⑯.
- (남)나라뻘 ①(다다른 쪽에서) 어떤 일을 하러 어디로 움직이다. (비)구경을 ~. 면회를 ~. 문병을 ~. 견학을 왔다. (맞)가다①. ②(다다른 쪽에서)어떤 길을 통하여 어디로 움직이다. (비)밤길을 도와 왔다. 시골 길을 오느라고 고생했지? (맞)가다②.

- (도움)(나라벗) 풀이씨의 ‘-아/ -어’꼴 뒤에 쓰이어,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이제까지 또는 이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가까와짐을 나타냄.  
(비)여기서 10년이나 일해 왔다. 날로 발전해 온 과학 문명. 고향을 떠난 지 10 년이 되어 온다. 날이 밝아 온다. (참고)가다.

- 『우리말큰사전』

- (69) 가다<sup>1</sup>(가거라)(자)(거라) ①이 곳에서 저 곳으로 옮겨 움직이다. 『학교에 -.  
②[있던 자리를] 떠나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③[직업·학업·복무 따위로 해서] 몸 둘 곳을 옮기다. 『군대에 -. / 대학 교수로 -. ④[정보·기별·소식 따위가] 전하여지다. 『기별이 -. ⑤[움직이는 성질이 자연물이] 흘러 움직이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⑥[어떤 지경이나 처지에] 이르다. 『임종에 가서야 입을 열다./ 어려운 지경에 가서야 잘못을 깨닫다. ⑦몹으로 분배되다. 『나한테는 세 개가 왔는데, 너에게는 다섯 개가 갔구나. ⑧[바로 서야 할 것이] 한 쪽으로 쏠리다. 『기둥이 왼쪽으로 좀 갔다. ⑨[시간·세월·계절 따위가] 지나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다. ⑩[어떤 시기·처소·경우에] 이르다. 다다르다. 『끝판에 가서는 비극으로 바뀐다. ⑪[어떤 통로나 목적지로] 통하다. 『통일로 가는 길. / 비상 통로로 가는 길. ⑫[어느 시기·지경까지] 이어지다. 유지되다. 『이 구두라면 3 년은 가겠지. / 오래 못 갈 목숨. ⑬[손해·이익 등의 말에 이어 쓰이어] 입다. 받다. 『많은 손해가 -. ⑭[금·얼룩·구김살·주름 따위 말에 이어 쓰이어] 생기다. 『금이 간 유리컵. / 바지에 주름살이 -. / 잔주름이 많이 간 얼굴. ⑮[맛·입맛·음식 이름 따위 말에 이어 쓰이어]상하다. 변하다. 『김치 맛이 갔다. ⑯[얼룩이나 때가] 지워지다. 빠지다. 『이 비누를 쓰면 때가 잘 간다. ⑰[불·등불·전기 따위가] 꺼지다. 『전깃불이 -. ⑱[눈길·관심·짐작 따위 말에 이어 쓰이어] 그 방향으로 돌려지다. 『눈길이 -.

/ 주의가 - . / 호감이 - . ①[품이나 손질이]들다. 『손이 많이 가는 제품. ②<죽다>의 속된 말. 『송 영감도 이젠 가고 없다네. ③<까무러치다> · <지다>의 속된 말. 『그는 어퍼컷 한 방을 맞고 완전히 갔다. ④[값이나 무게가] 그 정도에 이르다. 『체중이 100kg이나 가는 거구. / 이 물건은 시가로 얼마나 가나? ⑤[차례나 등급 따위가] 그만한 정도가 되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자라네. ⑥[타동사적 용법] 어떤 기준에 따르거나, 목적을 향하여 행동한다. 『들길을 - . / 정도(正道)를 - . / 시집을 - . ↔ 오다!

가다<sup>2</sup>(조동) 보조적 연결 어미. ‘-아’ · ‘-어’ · ‘-여’ 아래 쓰이어, 동작이나 상태가 앞으로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사과가 붉게 익어 - . / 배를 저어 - . / 날이 어두워 - .

오다<sup>1</sup>(오너라)(자)(너라) ①(도착점 쪽으로) 움직여 이동하다. 『친구들이 집에 - . ②[때 · 기회 · 계절 · 사태 등이] 이르다. 딱치다. 『결단할 때가 - . / 새봄이 왔다. ③(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이르다. 『물이 가슴까지 오는 강물을 가까스로 건너다. ④[비 · 눈 · 서리 · 이슬 등이] 내리다. 『함박 눈이 - . ⑤[병이나 줄음 등이] 들거나 시작하다. 『줄음이 - . / 어제 어슬어슬 추운 것이 감기라도 오려나. ⑥[전동 · 가스 · 수도 등이] 켜지거나 통하다. 『전기가 - . ⑦(어떤 일을 하는데) 차례나 순서가 되다. 『내 차례가 왔다. ⑧[관념 · 표상 · 기억 등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다. 『멋진 아이디어가 머리에 왔다. ⑨[편지 · 전보 · 전갈 · 소식 등이] 전하여지거나 알려지다. 『편지가 - . / 전갈이 - . ⑩[‘-으로 오다’의 꼴로 쓰이어] 어떤 직책이나 소임 따위를 띠고 부임하다. 『이 분이 이번에 교장으로 오신 분이다. ⑪[‘와서 · 와서는’의 꼴로 쓰이어] ‘이르러’, ‘이르러서는’의 뜻을 나타냄.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거요 ⑫[‘-에서, -로부터’ 등에 이어 쓰이어] 말미암아 생기다. 유래하다. 『우리의 승리는 총화 단결에서 온 것이다. ⑬[타동사적 용법] 그 목적으로 음을 뜻함. 『면회를 - . / 근친(親親)을 - . ↔ 가다!



오다<sup>2</sup>(오너라)(조동)(너라)[용언 어미 ‘-아·-어’ 밑에 쓰이어] ①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하여 진행됨을 나타냄. 『십년을 하루같이 살아 온 잉꼬 부부.』 ②일정 기간이 차게 됨을 나타냄. 『고향을 떠나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온다.』 ③어떤 상태나 현상이 시작되거나 비롯됨을 나타냄. 『동녘 하늘이 밝아 온다. / 가슴 뿌듯한 기쁨이 복받쳐 온다. ← 가다2.]

- 『동아 새국어사전』

- (70) 가다1 [가, 가니, 가거라] 「1」 「동」 & 「1」 【...에/에게】 【...으로】 【...을】 「1」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산에 가다/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간다.//아버지는 아침 일찍 서울로 가셨다.(생략) §「2」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그 섬에 가는 배가 없다.(생략) §「3」,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다. 『내일 시사회에 갈 거니.//친구들 만나러 동창회 관으로 가는 길이야.(생략) §「4」,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다/공책을 빌리러 친구에게 가다.(생략) §「5」, 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군대에 가다.//그는 이번에 외국 지사로 가게 되었다고 좋아했다.(생략) §&「2」, 【...에/에게】 【...으로】 「1」,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 『그는 알뜰게도 부장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경쟁 회사에 갔다.(생략) §「2」, 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누구에게 옮겨지다. 『책상 위에 있던 돈이 어디에 갔지?(생략) §「3」,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날이 더우니까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간다.(생략) §「4」,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생략) §「5」, 「(손해) 따위의 명사와 함께 쓰여」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난다. 『자기에게 손해 가는 장사를 누가 하겠어?(생략) §&「3」, 【...으로】 「1」, 어떤 상태나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다.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2」, 한쪽으로 흘러가다. 『회의가 엉뚱한 쪽으로 간

다.(생략) §3, 동력원으로 하여 작동하다. ¶이 차는 전기로만 간다.(생략) §4,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액자가 왼쪽으로 좀 간 것 같다. §4, 【...에】 §1,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다. ¶옷에 주름이 가다/눈가에 잔주름이 가다.(생략) §2, ('무리', '축'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건강에 해가 되다.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삼가시오/너무 무리하다가는 몸에 축이 간다.(생략) §3,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르다. ¶검사 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다.(생략) §4, 일정한 대상에 미치어 작용하다. ¶고장난 기계에 그의 손이 가면 멀쩡해진다.(생략) §5, ('손', '폼'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들다. ¶조그만 조각품에는 손이 많이 간다.(생략) §5, §1, 어떤 대상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라지다. ¶나는 조금 있다가 갈 거야.(생략) §2, ('시간' 따위와 함께 쓰여) 지나거나 흐르다. ¶좋은 시절도 다 갔다.(생략) §3, 기계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다. ¶싸구려 시계가 잘 간다.(생략) §4, 외부의 충격이나 영향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되다. ¶그는 상대 선수의 주먹을 한 방 맞고 완전히 갔다.(생략) §5, 전기 따위가 꺼지거나 통하지 않다. ¶전깃불이 가서 들어오지 않는다. §6, (완곡하게) 사람이 죽다. ¶젊은 나이에 간 친구/억울하게 간 님을 추모했다. §6, 【...이】 §1,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 ¶바뀐 세상이 실감이 가니(생략) §2, 【...에】 ('...이'나 '...에' 대신에 '중간 정도', '최고' 따위와 같은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가치나 값, 순위 따위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 ¶이 집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2억 원이 간다.(생략) §3, ('물', '맛'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원래의 상태를 잃고 상하거나 변질되다. ¶생선이 물이 갔다./콩나물무침이 시큼하게 맛이 갔어. §4, ('때', '얼룩'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때나 얼룩이 잘 빠지다.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녹물이 잘 가는 세제가 있을까? §7, 【...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움직이다. ¶길을 가다(생략)

§&「8」【…에/에게 …을】【…으로 …을】「1」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동물원에 구경을 가다.(생략) §「2」노름이나 내기에 서 얼마의 액수를 판돈으로 걸다. ¶한 판에 10만 원을 잤다.//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쪽으로 큰돈을 가는 것은 질 가능성이 큰 만큼 따면 큰돈을 만들 수 있다. §&「9」【(…을)】(기간을 나타내는 ‘며칠’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이나 가겠니?//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이 결국 사흘도 못 갔다.//새 신발이 한 달을 못 가다니.(생략) §「10」「동」「보」(주로 동사 뒤에서 ‘-어 가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책을 다 읽어 간다.(생략) § 「반」< I >&< 1 >< 1 >오다이『I』& [1] [1].「반」< I >&< 1 >< 2 >오다이『I』& [2] [1].「반」< I >&< 2 >< 2 >오다이『I』& [2] [2].「반」< I >&< 2 >< 3 >오다이『I』& [2] [3].「반」< I >&< 2 >< 4 >오다이『I』& [2] [4].「반」< II >오다이『II』.[가다 <용가>]

오다이 [와, 오니, 오너라] 「I」「동」&「1」【…에/에게】【…으로】【…을】「1」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 ¶나에게 오너라./군에 간 친구가 휴가를 받아 학교에 왔다.(생략) §「2」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학업 따위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옮기다.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왔다.(생략) §&「2」【…에/에게】【…으로】「1」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말하는 이가 있는 쪽을 향하여 운행하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곳에 오는 배편이 없으니 모두 돌아가세요.(생략) §「2」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자기에게 옮겨지다. ¶사과가 나에게 두 개나 더 왔다.(생략) §「3」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말하는 사람에게로 쏠리다.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따가운 시선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생략) §「4」소식이나 연락 따위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전하여지다. ¶집에 편지가 왔다./어머니에게 소포가 왔다.

(생략) § 「5」 전기가 흘러서 불이 켜지거나 몸에 전하여지다. 『전기 기구를 다룰 때에는 손에 전기가 올지 모르니 장갑을 꼭 끼어라.(생략) § 「3」

【…에/에게】 「1」 운수나 보람, 기회 따위가 말하는 사람 쪽에 나타난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 「2」 느낌이나 뜻이 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다. 『얼핏 보니 그에게 감이 오고 있는 것 같았다.(생략) § 「3」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다. 『이제 네 엄마에게 다 왔으니 그만 올라라.(생략) § 「4」 어떤 대상에 어떤 상태가 이르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도 평화가 왔다. § 「5」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기다. 『너 동창회에 올 거니? 내 생일잔치에 오지 않을래? § 「6」 건강에 해가 되다. 『몸에 무리가 오는 심한 운동은 삼가십시오.(생략) § 「7」 (‘…에’ 대신에 ‘…까지’가 쓰이기도 한다) 길이나 깊이를 가진 물체가 어떤 정도에 이르거나 닿다. 『네 살짜리 아이가 내 허리에 올 정도로 키가 크다.(생략) § 「8」 (주로 ‘와서’ 꼴로 쓰여) ‘…에’ 대신에 시간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말하는 때나 시기에 이르다. 『오늘에 와셔야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생략) § 「4」 【…으로】 물체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다. 『액자가 이쪽으로 좀 오지 않았어요? 선이 우리 쪽으로 더 온 것 같다. § 「5」 「1」 비, 눈, 서리나 추위 따위가 내리거나 닥치다. 『비가 온다./벌써 추위가 왔다.(생략) § 「2」 질병이나 졸음 따위의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기다. 『갑자기 졸음이 왔다.(생략) § 「3」 어떤 때나 계절 따위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닥치다. 『여름이 벌써 왔다./오는 일요일이 내 생일이다.(생략) § 「6」 【…에서/에게서】 (‘에서/에게서’ 대신에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1」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다.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생략) § 「2」 어떤 현상이 다른 곳에서 전하여지다. 『우동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생략) § 「7」 【…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기다. 『어두운 산길을 왔더니 너무 힘들다.(생략) § 「8」 【…에/에게 …을】 【…으로 …을】 「1」 (‘…

을' 성분은 주로 서술성이 있는 명사가 온다) 어떤 목적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말하는 이가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긴다. 『남자 아이가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다.(생략) 『2,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여 그 집안의 식구가 되다. 『그녀는 나에게 시집을 오고 싶어 했다.(생략) 『Ⅱ, 『동, 『보,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오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날이 밝아 온다.(생략) 『반, 『<Ⅰ><Ⅰ>가다01『I』& [1] [1]. 『반, 『<Ⅰ><2><Ⅰ>가다01『I』& [1] [2]. 『반, 『<Ⅰ><2><2>가다01『I』& [2] [2]. 『반, 『<Ⅰ><2><3>가다01『I』& [2] [3]. 『반, 『<Ⅰ><2><4>가다01『I』& [2] [4]. 『반, 『<Ⅱ>가다01『Ⅱ』. [오다<용가>]

- 『표준국어대사전』

(69)에서 보면 표제어의 설정에서부터 뜻풀이까지 얼마나 체계 없이 사전을 편찬하였는가를 볼 수 있다.

‘가다<sup>1</sup>’에서는 마지막 항목 뒤에 반의어 ‘오다<sup>1</sup>’를 밝혔으나 ‘가다<sup>2</sup>’에서는 반의어를 밝히지 않았다. ‘오다’의 표제어와 비교해 보면 ‘오다<sup>1</sup>’, ‘오다<sup>2</sup>’에서는 각각 반의어가 ‘가다’임을 밝히고 있다. ‘가다<sup>2</sup>’에서는 반의어를 밝히지 않고, ‘오다<sup>2</sup>’에서는 반의어를 밝히고 있으므로 사전 편찬의 체계성을 잃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뒤에 반의어를 밝힘으로써 ‘가다/오다’의 모든 항목의 뜻풀이와 ‘오다<sup>1</sup>/가다<sup>1</sup>’의 모든 항목의 뜻풀이가 서로 반의 관계인지, 아니면 ‘가다<sup>2</sup>⑭’와 ‘오다<sup>1</sup>⑬’의 타동사적 용법에 한해서만 반의 관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같은 사전의 (60)에서 마지막 항목 뒤에 뜻항목을 제시하고 반의어 표시를 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전 안에서도 이처럼 비체계성이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는 다소 장황하고 번거로운 것 같지만 (68)에서 보듯이 각 항목마다 반의어를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러한 반의어 처리 문제는 사전마다 들쭉날쭉하다. 사전마다 편찬자가 다르고

편찬자의 기준에 따라 사전 편찬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사전 편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논의하는 ‘반의어’뿐만 아니라 ‘유의어·동음이의어·다의어’ 등의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전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전 이용자들을 위한 친절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사전을 이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전마다 제각각이면 사전 이용자로서는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표제어의 뜻풀이를 보면 (69)이 체계적이지 못함을 이미 언급했다. (68)에서는 독자적 문법 용어를 쓰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뜻풀이가 그래도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의어 항목을 비교하더라도 (69)에 비해 그 뜻의 이해가 쉽고 용례 사용이 수월하다. 그런데 (69)에서는 ‘가다’와 ‘오다’를 같이 살펴보면 반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의 뜻풀이가 (68)처럼 금방 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가다’ ①과 ‘오다’ ①이 반의 관계임이 분명한데 그 뜻풀이는 ‘가다’ ①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옮겨 움직이다’, ‘오다’ ① :도착점 쪽으로) 움직여 이동하다.’로 되어 있어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전 이용자들에게는 ‘가다’ ①과 ‘오다’ ①이 반의 관계임을 쉽게 인식시키지 못하므로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없다.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이익환(1992)이 제시했듯이 “표제어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며, 순환성을 꾀한다.” 는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반의 관계임이 뚜렷한 ‘가다’ ①, ‘오다’ ① 항목의 뜻풀이는 ‘가다’① 항목을 찾고 ‘오다’ ① 항목을 찾았을 때, 서로 반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가다’①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옮겨 움직이다’, ‘오다’ ① :저 곳에서 이곳으로 옮겨 움직이다.’로 풀이해야 한다.

그리고 표제어 설정에서도 사전마다 견해가 다르다. 조동사 ‘가다/오다’에 대하여 (69)에서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였고, (68)에서는 ‘다의어’로만 다루었다. 이렇게 사전마다 기준이 다르고 풀이가 비체계적이다. 말이란 의미 분화가 되면서 많은 뜻을 갖는데, (69)의 ‘가다1’, ‘가다2’를 살펴보면 이기동(1992)의 연구에서 보듯이 ‘가다1’이나 ‘가다2’의 원형적인 뜻은 ‘어느 한 곳

에서 다른 곳으로 **움아가다**/ 움직이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다'의 표제어 설정은 (68)처럼 '다의어'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다의어 처리에 관해서는 제3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70)은 반의어를 마지막 항목 두에 한꺼번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숫자나 부호를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고, 뜻풀이 항목의 숫자 부여 시 부호 사용 방식과는 다르게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반의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가다'의 어느 항목과 '오다'의 어느 항목이 서로 반의관계인지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전에 사용하는 부호들을 통일하여 사전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다'와 '오다'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가다<sup>1</sup>(자)X(거라) ①이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아** 움직이다.¶학교에 ~. 서울에 가든 그를 만나 보아라. ↔ 오다<sup>1</sup>①. ②[직업·학업·복무 따위로 해서] 있던 곳에서 어디로 **움기다**. ¶군대에 ~. ↔ 오다<sup>2</sup>. ③[정보·소식·말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기별이 ~.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 ↔ 오다<sup>3</sup>. (하략) …

오다<sup>1</sup>(자)X(너라) ①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움아** 움직이다.¶친구들이 집에 ~. 서울에 언제 오니? ↔ 가다<sup>1</sup>①. ②[직업·학업·복무 따위로 해서]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움기다**. ¶새로 오신 선생님. 동사무소에는 왜 왔소? ↔ 가다<sup>2</sup>②. ③ [정보·소식·말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전보가 ~. 전화가 ~. 편지가 ~. ↔ 가다<sup>3</sup>③. ④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이르다. ¶물이 가슴까지 오는 강물을 가까스로 건넜다. (하략) …

이와 같이 반의어군 어휘끼리는 상호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관련 풀이 항목을 같은 항목 번호로 배열하여 뜻풀이하거나, 빈도수에 따라 풀이 항목 번호가 달라지더라도 그 풀이 방식은 서로 쉽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체계성을 갖춘 뜻풀이를 해야 한다.

## 3)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처리 방법과 뜻풀이의 실제

## (1)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처리 방법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고 認知가 발달함으로써 어휘들은 자연스럽게 복잡한 事象을 담기 위해 다의성을 갖게 된다. 맨 처음에 한 낱말이 하나의 사상을 뜻했다라도 그 '본뜻'에서 점점 '확장된 뜻'을 가지게 됨으로써 다의어(polysemous)가 된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homonym)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는 것은 어휘의 의미 해석에 따라 다의어로 처리하거나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어사전들을 보면 한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이 실린 낱말이 많은데 이 여러 개의 뜻을 한 낱말의 뜻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하나를 별개 낱말의 뜻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규일(1988)의 연구에 따르면 고유어 '뜻'의 의미는 "①표시하다[나타내다], ②意味, ③概念, ④定義, ⑤本意, 참뜻[本義], ⑥숨은 뜻[은유], ⑦기본 의미, ⑧암시, ⑨상징, ⑩명령[지시], ⑪觀念, ⑫가치, ⑬意義, ⑭중요, ⑮意向, ⑯意思, ⑰意圖, ⑱計劃, ⑲目的[目標], ⑳意志, ㉑決心, ㉒각오, 포부, ㉓大志, ㉔희망, 꿈, ㉕소망[소원], ㉖思考, ㉗關心, ㉘집착, ㉙意中, ㉚속셈, ㉛기미[김새], ㉜생각, ㉝마음[속마음], ㉞정신, ㉟취지, ㊱취미, 재미, ㊲志操[氣概], ㊳감정, ㊴기분, ㊵정서, ㊶主張[要望], ㊷豫想[期待], ㊸辭緣, ㊹영문[理由], ㊺말[소리], ㊻것=의미의推移化, ㊼앞의 말을 대신하여 가리킴, ㊽화제[주제]의 내용, ㊾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관용적 의미]"<sup>41)</sup> 등등 여러 의미가 있음을 밝혔는데, 현행 국어사전들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

- (71) 뜻(圍) ①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 \*~을 품다. ~이 맞다. ②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속내. 의미(意味). \*무슨 ~인지 모르겠

41) 최규일, 「우리말 {뜻}의 의미 기능」, 『국어국문학』 100(국어국문학회, 1988), 332쪽.



다. ③[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의의(意義). \*~깊은 일. ⇨ 뜻하다. ※(⇨: 참고 되는 말 앞에, 또는 가 보라는 뜻으로 풀이를 한 말 앞에. -필자 주)

-『새우리말큰사전』

(72) 뜻[뜻] 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을 세우다. /~대로 되다. \*의지(意志). ②말이나 글의 가진 속내. 의미(意味). 의체(義諦). 『~이 통하지 않는 말. /그런 ~으로 --- -하다[타](여변) ①무엇을 할 마음을 먹다. ②의미하다.

-『국어대사전』

(73) 뜻[뜻] ①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비)~을 품는다. ~이 맞는다. [한]의도5. 의지5①. 의향2. 지의10. ②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속내. (비)아무 ~도 담지 않는 글. 낱말의 ~. [한]의미. ③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비)~ 깊은 일. [한]의의5 ②.

-『우리말큰사전』

(74) 뜻[뜻] ①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 『~이 굳다. /~을 이루다. /네 ~대로 해라. ②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속내. 『말~. /글이 어려워 아무리 읽어도 ~을 모르겠다. ③[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가치나 의의(意義). 『참가하는 데 ~이 있다.

-『금성판 국어대사전』

(75) 뜻[뜻] ①[무엇을 이루려고 속으로 다져 먹은] 마음. 의지(意志). 『~을 이루다. ②(말이나 글의) 속내. 의미. 『글의 -이 통하지 않는다. ③[어떤 일이나 행동이 지닌] 가치나 중요성. 의의(意義). 『깊은 -.

-『동아 새국어사전』

- (76) 뜻[뜰] [뜻만[뜰-]] 「명」 「1」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벼슬에 뜻이 없어 초야에 묻혀 살다.』(생략) 「2」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모르는 낱말의 뜻을 알려면 사전을 찾아야 한다.』(생략) 「3」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서 뜻과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생략) 「비」 <1>의도(意圖). 「비」 <1>의사(意思). 「비」 <1>의지(意志) [1]. 「비」 <1>의향(意向). 「비」 <3>의미(意) [3]. 「비」 <3>의의(意義) [2]. [ <쓸<뜰<용> ]

- 『표준국어대사전』

(71)~(76)에서 보듯이 현행 국어사전들에서는 두세 가지 뜻만을 가진 다의어로 처리하여 최규일(1988)의 연구와 비교하면 그 뜻풀이 상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국어학계에서 “어휘의미론”에 관한 연구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증거이다. 앞으로 개별 낱말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그 결과가 국어사전 편찬할 때 많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행 국어사전에 밝혀져 있는 뜻들보다 더 많은 뜻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 뜻들을 사전에서 모두 수용해야 한다면 그 뜻의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의미들은 없는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정순기·리기원(1984)은 “다의어와 소리같은 말을 가르는 데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대상 어휘들의 본래뜻에서 뜻이 갈라져 나오게 된 유래를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어림뜻이 짐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어원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의어로 처리하고 어원을 알기 어려운 것은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기동(1986, 1987)은 “다의어란 단순히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진 낱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서로 관련된 뜻을 갖는 낱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기존 사전들이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뜻풀이하고 있는 표제어

들 중 상당수가 다의어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그는 이런 표제어들에 대해 일반적 풀이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 ‘1, 2, 3 ……’으로 일반적 풀이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예를 수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라이온스(1977)<sup>42)</sup>처럼 다의어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기동은 다의어의 사전적 처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인간의 ‘인지(Cognition)’에 바탕을 두고 어휘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처럼 ‘認知言語學(Cognitive Linguistics)’에 따른 어휘의 뜻풀이는 ‘기본 뜻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뜻의 배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섭(1998, 1991, 1995ㄱ, 1995ㄴ)의 제안처럼 ‘말뭉치’를 이용한 방법이 타당할 듯하다. “문법 이론가의 국어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이지 아니라 확률적일 뿐이다. 확률은 많은 실제 사실들로부터의 귀납의 결과이다. 언어에 대한 개인적 직관이란 결국 개인의 언어 경험에서 귀납된 내용이지, 선형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 언어의 실례의 대량 수집은 그 언어에 대한 판단의 타당성의 확률을 높여 준다.”<sup>43)</sup>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 수집된 ‘말뭉치’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본뜻’을 확정할 수 있고, 어휘의 빈도수에 따라 뜻의 배열 순서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 ‘뭉치언어학’에 의한 방법은 현행 국어사전들의 뜻풀이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여 ‘말뭉치’의 빈도에 따라 언어의 자연 상태를 포착하고 사전 편찬에 적용하려는 실천적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기본뜻’의 확정이라든가, ‘뜻의 배열 순서’ 결정에는 지극히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바로 ‘뜻풀이’ 문제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량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낱말을 포착하더라도 그 낱말의 뜻을 풀이하는 것은 학자의 인지에 따르기 때문이다.

42) Lyons, Semantics. vol.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p.550~569.

43) 이상섭, 『전계서』(1991), 176쪽.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인지’의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어휘의 뜻을 바르게 풀이하고 의미의 연관관계에 놓인 어휘들의 체계를 세우는 일은 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지의미론’과 ‘몽치언어학’적 방법의 통합에 따른 뜻풀이 방식을 제안한다.

첫째로 대량 수집된 말뭉치<sup>44)</sup>들을 이용하여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뜻을 ‘기본뜻’으로 삼는다.

둘째로, ‘본뜻’이 현재 쓰이지 않을 때는 제1의 뜻풀이 항목 앞에 [ ] 안에 본뜻을 밝혀 주고, 현재 쓰일 때에는 그 해당 항목의 뜻풀이 이전에 [ ]를 하여 본뜻임을 명기한다.

셋째, 뜻의 나열 순서는 빈도수에 따라 하되, 意味轉移 방식에 따라 ‘구체적 사물(사실)의 뜻’에서 ‘확장된 뜻(추상적 개념)’의 차례로 배열한다.

넷째, ‘구체적 사물(사실)의 뜻’과 ‘확장된 뜻’은 항목을 달리하여 뜻풀이한다.

다섯째, ‘본뜻’에서 갈라져 나온 유래를 설명할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을 때는 모두 다의어로 설정하여 뜻풀이한다. 곧, 다의어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따른다.

여섯째, 動詞類의 경우에는 동사·형용사의 품사 구분에 따라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뜻풀이한다. 언어생활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품사가 다르면 문장의 쓰임이 이미 다르게 되므로 언어사용자는 서로 다른 어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뜻풀이는 국어사전들 간의 대비를 철저히

44) ‘말뭉치’를 수집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문헌을 이용한 말뭉치 구축을 하고 있는데, 문헌을 선정할 경우에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의 문헌을 많이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의 말뭉치가 가장 일반적인 언어 현상을 담고 있는 말뭉치로 구축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몽치언어학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언어학자들에 의해 꾸며진 언어 정보, 곧 사용례들의 조작성·인위성을 피하여 자연 언어 상태를 포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을 이용한 말뭉치 구축보다 일상생활에서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생한 예문들을 대량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해 나가는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하여 단순대치형으로 풀이가 되어 있거나, 단어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지 못하는 무용한 풀이, 그 뜻을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부족한 풀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 뜻풀이를 하도록 한다. 또한 어원 표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기원을 소급하여 그 어원을 밝히고 문헌상 그 단어의 최초의 출현 연대를 제시하고 그 때의 의미와 그 뒤의 여러 문헌에 사용된 예들을 보여주는 변화된 의미를 풀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 (2)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뜻풀이의 실제

여기서는 5종의 국어사전에서 몇 개의 어휘를 뽑아서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뜻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음이의어로 처리한 어휘 중에서 다의어로 처리해야 할 경우와 다의어로 처리한 어휘 중에서 동음이의어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 관해서 살피기로 한다.

### ① '타다'의 경우

- (77) 타다<sup>1</sup>타 ① 불이 붙어 벌겋게 되거나 불길이 오르다. 연소하다. \*장작이 ~. 숯이 ~. ② [까맣거나 누렇게 변하도록] 몹시 높다. \*장판이 ~. 밥이 ~. ③ 마음이 몹시 달다. \*속이 ~. 간장이 ~. ④ 심히 그을다. \*얼굴이 ~. ⑤ 바삭 마르게 되다. \*뱃모가 ~.

타다<sup>2</sup>타 ① [차·배·항공기 따위] 탈것이나 짐승의 몸 위에 몸을 올려놓다. \*차를 ~. ② 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겨우 가다. \*줄을 ~. ③ [산등성이 따위의 어떤 위를] 밟아 다니거나 오르내리다. \*산을 ~. ④ 어떤 조건이나 기회를 포착하다. 때를 이용하다. \*야밤을 타서 기습하다. ⑤ [바람·구름·소리 따위를] 이용하여 실리거나 날리다.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 ⑥ [스케이트·스키·썰매 따위를] 이용하여 미끄러지다. \*로울러 스케이트를 ~. ⑦ 그네 따위의 위에 올라앉거나 서거나 또는 앞뒤로 흔들려 왔다갔다하다. \*그네를 ~.

타다<sup>1</sup>ㄷ ①일정한 액체에다가, 다른 액체나 고체 따위를 넣어 섞다. \*약을 ~. 설탕을 ~.

타다<sup>1</sup>ㄷ ①[나누어 주거나 대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 \*켓돈을 ~.  
②[복이나 재주·기운·운명 따위를] 지니다. \*타고난 운명 \*타고-나  
다 선천적으로 받아 지니고 태어나다. \*재주를 ~.

타다<sup>1</sup>ㄷ ①[양쪽으로 갈라서] 줄이나 끈을 내다. \*가리마를 ~. 끈을 ~. ②  
[속을 드러내기 위하여] 베거나 찢어서 쪼개다. \*박을 ~. 생선의 배를 ~.  
③[날알 등을 맷돌 따위로] 부서뜨리다.

타다<sup>1</sup>ㄷ ①풍금이나 피아노·현악기 따위를 다루어 소리를 내다. \*피아노를  
~. ②[숨을] 튀기거나 쳐서 피우다. \*숨을 ~.

타다<sup>1</sup>ㄷ [어떤 것이 끼치게 되는 영향] 잘 받거나 느끼다. \*간지럼을 ~. 가  
뭇을 ~. 더위를 ~. 무서움을 ~. 옷을 ~. 손을 ~.

—『새우리말큰사전』

(78) 타다<sup>1</sup>ㄷ ①불이 붙어 들어가다. 불길이 오르다. 연소하다. ㉠건물이 ~. ②뜨거  
운 열로 하여 빛이 까맣게 되다. ㉡밥이 ~. /별에 탄 얼굴. ③애가 썩어서  
가슴 속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이 나다. 정열이 막 솟아오르다. ㉢애가 ~.  
/타는 가슴. ④빛이 극히 강렬함을 형용하는 말. ㉣타는 듯한 장미꽃.

타다<sup>1</sup>ㄷ ①탈것이나 짐승의 몸 위에 몸을 엮다. ㉠비행기를 ~. ②산이나 나무나  
줄을 올라가다. ㉡줄을 ~. /바위를 ~. ③기회를 포착하다. 때를 이용하다. ㉢혼  
란한 틈을 ~. ④얼음 위를 건너 미끄러져 다니다. ㉣썰매를 ~. ⑤물결·기  
세 등에 몸을 맡기다. ㉤순풍을 ~. /물결을 ~. /리듬을 ~. /전파를 ~.

타다<sup>1</sup>ㄷ 많은 액체에다가 적은 액체나 가루 같은 것을 섞다. ㉠물에 약을 ~.

타다<sup>1</sup>ㄷ ①재산·월급·배급·상 같은 것을 받다. ㉠일등상을 ~. ②복이나  
재주 같은 것을 선천적으로 지니다. ㉡타고 난 재주.

타다<sup>1</sup>ㄷ ①머리를 갈라 붙여 가리마를 내다. ㉠가리마를 ~. ②박 따위를 두 쪽  
으로 가르다. ③콩·팥·보리 등을 맷돌에 갈아 알알이 쪼개다. ㉢녹두를 ~.

타다<sup>ㄹ</sup> ① 거문고·가야금 같은 것을 튀기어 소리를 내다. ② 품금·피아노 같은 것을 두들겨 소리를 내다.

타다<sup>ㄹ</sup> ① 독하고 나쁜 기운을 몸에 유난히 잘 받다. ㄹ웃을 ~. ② 부끄럽이나 노염을 유달리 쉬 느끼다. ㄹ부끄럼을 잘 타는 소녀. ③ 시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쉬 받아서 몸이 마르고 해쓱해지다. ㄹ여름을 ~. / 추위를 ~.

타다<sup>ㄹ</sup> 목화를 씨아로 틀어서 씨를 빼 낸 뒤에 활줄로 튀기어 퍼지게 하다. ㄹ숨을 ~.

- 『국어대사전』

(79) 타다<sup>1</sup> [ㄹ제] ① 불이 붙어 벌겋게 되거나 불꽃이 일어난다. (b) 나무가 ~. 종이가 ~. 활활 타는 숯불. 타는 듯 한 장미꽃. ② 열을 받아 누렇게 또는 까맣게 되다. (b) 밥이 ~. 방바닥이 뒹다. [참고] 논다. ③ 햇볕에 몹시 그을다. (b) 구릿빛으로 탄 얼굴. 검게 탄 살갗. ④ 바삭 말라붙다. (b) 가물어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탄다. 목이 타서 물을 찾는다. ⑤ 마음이 몹시 달다. (b) 마음이 ~. 가슴이 ~. [참고] 간이 타다. ⇨ 간1. 속이 타다. ⇨ 속1. 애가 타다. ⇨ 애3.

타다<sup>2</sup> [ㄹ제] 탈 것, 짐승의 몸 따위에 오르다. (b) 배에 ~. 차에 ~. 소잔등에 뒹다.

— (남) ① 탈 것, 짐승의 몸, 높은 곳 따위에 몸을 올려놓다. (b) 기차를 ~. 말을 타고 온다. 난간을 타고 앉아 있다. [참고] 목말을 타다. ⇨ 목말1. ② 탈 것, 기구, 짐승 따위에 제 몸을 싣고서 부리다. (b) 썰매를 ~. 그네를 ~. 자전거를 ~. 말을 잘 타는 사람. ③ 높은 데를 오르내리거나 길을 밟아 가다. (b)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탄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다. 절벽을 잘 타는 등산가. 논두렁을 타고 질러갔다. ④ 줄을 잡거나 의지하여 움직이다. (b) 밧줄을 타고 계곡을 건넜다. [참고] 줄타기. ⑤ 물결, 바람, 소리 따위에 실리거나 날리다. (b) 종이배는 물결을 타고 흘렀다. 봄바람을 타고 풍기는 꽃향기. 그 소식은 전파를 타고 방방곡곡에 전해졌다. ⑥ 어떤 때나 조건을 이용하다. (b) 기회를 ~. 밤을 타서 도망을 쳤다. 어둠을 타서

포위망을 뚫기로 하였다.

타다<sup>3</sup> [똥(남)] ① 몫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받다. (비)겻돈을 ~. 봉급을 ~. 배급을 ~. 일등상을 ~. 용돈을 타서 쓴다. ② 복, 재주, 운명 같은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아 가지다. (비)복을 ~. 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때를 잘 타야 한다. [참고]타고나다.

타다<sup>4</sup> [똥(남)] ① 들로 갈라서 풀이나 줄 따위를 내다. (비)가리마를 ~. 밭고랑을 ~. ② 속을 드러내려고 베거나 찢어서 쪼개다. (비)박을 ~. 물고기 배를 ~. ③ 낱알 따위를 맷돌에 갈아서 부서뜨리다. (비)맷돌로 콩을 탄다.

타다<sup>5</sup> [똥(남)] 현악기나 건반악기를 다루어 소리를 내다. (비)거문고를 ~. 풍금을 ~.

타다<sup>6</sup> [똥(남)] 어떤 영향을 쉬 입거나 잘 느끼다. ㉠ 독한 기운을 몸에 잘 받다. (비)웃을 ~. 벌을 ~. ㉡ 심리적, 육체적 자극을 잘 받다. (비)노여움을 ~. 부끄럼을 잘 ~. 간지럼을 매우 탄다. ㉢ 철이나 날씨의 영향을 쉬 느끼다. (비)여름을 ~. 추위를 몹시 ~. 가뭄을 잘 타는 농작물. [참고]봄을 타다. > 봄!

타다<sup>7</sup> [똥(남)] 숨을 튀기거나 쳐서 퍼지게 하다. (비)숨을 ~.

타다<sup>8</sup> [똥(남)] 액체에 다른 것을 넣어 섞다. (비)물에 꿀을 ~. 차에 설탕을 ~. 물에 소독약을 ~.

타다<sup>9</sup> 똥(남) → 따다<sup>1</sup> ①. (제주).

—『우리말큰사전』

(80) 타다<sup>1</sup> [똥(자)] ①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난다. ¶마른 장작이 불에 활활 ~. ② 뜨거운 열로 빛같이 까맣게 되거나 누렇게 되다. ¶햇빛에 얼굴이 검게 ~. /불이 세어 고기가 까맣게 됐다. ③ 마음이 몹시 달다. ¶속이 ~. /애간장이 ~.

타다<sup>2</sup> [똥(타)] ①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싣다. ¶자동차를 ~. /비행기를 ~. /말을 ~. ② (산이나 나무나 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지나가다. ¶나



무를 ~. /압벽을 ~. /줄을 ~. /함양에서 남원으로 가는 버스는 지리산 줄기를 넘어 벼랑을 타는 듯한 길을 오르고 내렸다<<李元壽 나그네 手帖>>. ③바람이나 전파 등에 실려 퍼지다. 『바람을 타고 연이 오르다. /뉴스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알려지다. ④(어떤 조건이나 기회 등을) 이용하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을 치다. /어둠을 타서 기습하다. ⑤얼음 위를 건너 미끄러져 단다. 『썰매를 ~. /스케이트를 ~. ⑥그네나 시소 등의 놀이 기구에 올라앉아 앞 뒤, 위 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그네를 ~.

타다<sup>3</sup>툼(타) 많은 액체에 적은 액체나 가루 등을 섞다.『커피에 설탕을 ~. /약을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이다.

타다<sup>4</sup>툼(타) ①재산·월급·상·배급 따위를 받다.『월급을 ~. /상금을 ~. /아버지한테 용돈을 ~. ②선천적으로 복·재주 따위를 지니다.『복(福)을 탄 사람.

타다<sup>5</sup>툼(타) ①(두 쪽으로) 줄이나 끈을 내다. 『가르마를 ~. /발고랑을 ~. /뿔으로 박을 ~. ②(콩·팥 등을) 맷돌에 갈아서 알알이 쪼개다. 『맷돌에 녹두를 ~.

타다<sup>6</sup>툼(타) 악기를 다루어 소리를 내다.『거문고를 ~. /가야금을 ~. /하프를 ~.

타다<sup>7</sup>툼(타) ①독한 기운이 몸에 쉬 받다.『웃을 ~. ②부끄럼·노여움 따위를 쉬 느끼다. 『부끄럼을 ~. ③시절·기후의 영향을 쉬 받다.『봄을 ~. /추위[더위]를 ~. (생략)

타다<sup>8</sup>툼(타) 목화를 씨아로 틀어서 씨를 빼고 활줄로 튀기어 퍼지게 하다.『숨을 ~.

- 『금성판 국어대사전』

- (81) 타다<sup>1</sup>툼 ①불이 붙어 별정계 되거나 불길이 오르다.『장작이 -. /초가 -. ②몹시 높다. 『장판이 -. ③몹시 애가 쓰이거나 걱정이 되어 가슴 속이 불붙는 듯하다. 『속이 -. ④살갓이 햇볕에 그을다. 『해수욕으로 온몸이 고루

- ⑤물기가 없어 바짝 마르다. ¶입술이 -. /기뚨으로 논바닥이 -.

타다<sup>2</sup>① 탈것에 몸을 싣다. ¶버스를 -. ②(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오르거나 지나가다. ¶나무를 -. ③(산등성이 따위를) 밟아 지나가거나 오르내리다. ¶주말마다 산을 -. ④(썰매나 스케이트 따위로) 미끄러져 달리다. ¶썰매를 -. ⑤그네나 올라 앉아 놀게 된 놀이 시설 따위에 올라, 앞뒤로 흔들거나, 돌거나, 오르내리며 놀다. ¶그네를 -. /시소를 -. ⑥(바람이나 연기·소리 따위에) 실리어 퍼지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피리 소리.

타다<sup>3</sup>① 많은 양의 액체에다 적은 양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섞다. ¶물에 설탕을 -.

타다<sup>4</sup>①[예산·재산·용돈·배급·봉급 또는 상이나 상급 따위] 어떤 몫으로 정하여 주는 돈이나 물건을 받다. ¶상여금을 -. ②(복이나 재주·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저이는 본디부터 일복을 탄 사람이다.

타다<sup>5</sup>①(어떤 조건이나 때·틈 따위를) 잘 살피어 얻거나 이용하다. ¶야음(夜陰)을 타고 기습하다. /틈을 타서 찾아가다. ②(운명적으로 알맞은 때를) 만나다. ¶시운(時運)을 탄 영웅.

타다<sup>6</sup>① 줄이나 끈이 지게 양쪽으로 갈라 붙이다. ¶가리마를 -. /고랑을 -. ② 두 쪽이 나도록 쪼개거나 가르다. ¶박을 -. ③(콩이나 팥 따위를 맷돌에 갈아) 잘게 부스러뜨리거나 쪼개다. ¶팥을 맷돌에 -.

타다<sup>7</sup>① 현악기를 튀기어 소리를 내다. ¶가야금을 -. ②(숨 따위를) 활주로 튀기어 퍼지게 하다. ¶숨을 -.

타다<sup>8</sup>①(어떤 기운이나 자극 따위의 영향을) 별나게 잘 받거나 느끼다. ¶웃을 -. /부끄러움을 -. /타관을 -. ②(시절이나 기후·부정 따위의) 독특한 기운이나 영향을 받아 상태가 나빠지거나 해를 받다. ¶가물을 -. /봄더위(추위)를 -. / 부정을 -.

(82) 타다01 [타, 타니] 「동」 「1」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나다. 『담배가 타다.(생략) § 「2」 피부가 햇볕을 오래 쬐어 검은색으로 변하다. 『땡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생략) § 「3」 뜨거운 열을 받아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지나치게 익다. 『고기가 타다/땀 일을 하는 사이 밥이 타 버렸다. § 「4」 마음이 몹시 달다.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타는 이 속을 그 뉘라 일 본인들 알아주오며... <<최명희, 혼불>> § 「5」 물기가 없어 바짝 마르다. 『긴장이 되어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생략) § [< 타다 < 능엄 >]

타다02 [타, 타니] 「동」 & 「1」 【...에】 【...을】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비행기에 타다.(생략) § & 「2」 【...을】 「1」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탄다.(생략) § 「2」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아이들은 야밤을 타 닭서리를 했다.(생략) § 「3」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생략) § 「4」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어떤 기구를 이용하여 달리다. 『스케이트를 처음 탈 때는 엉덩방이를 쫓게 마련이다.(생략) § 「5」 그네나 시소 따위의 놀이 기구에 몸을 싣고 앞뒤로, 위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다. 『그네를 타다.(생략) § 「6」 의거하는 계통, 질서나 선을 밟다. 『연줄을 타다. § [< 타다 < 용가 >]

타다03 [타, 타니] 「동」 【...에 ...을】 다량의 액체에 소량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넣어 섞다. 『커피를 타다/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마신다./엄마는 따뜻한 보리차에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였다. § [< 타다 < 구방 >]

타다04 [타, 타니] 「동」 「1」 【...에서/에게서 ...을】 (‘...에서/에게서’ 대신에 ‘...에게’나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몹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 『회사에서 월급을 타다.(생략) § 「2」 【...을】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복을 타다/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나다.(생략) § [< 타다 < 석상 >]

타다05 [타, 타니] 「동」 【...을】 「1」 박 따위를 톱 같은 기구를 써서 밀었다

당겼다 하여 갈라지게 하다. 『뚝으로 박을 타다』 § 「2」 줄이나 끈을 내어 두 쪽으로 나누다. 『흙을 파서 끈을 탄 다음 씨를 뿌렸다.』(생략) § 「3」 콩, 팥 따위를 맷돌에 갈아서 알알이 쪼개다. 『맷돌에 직접 콩을 타서 만든 콩국수라서 그런지 맛이 일품이다.』 [ < ㄸ다 < 월석 > ]

타다06 [타, 타니] 「동」 【...을】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가야금을 타다/풍금을 타다/그 학생은 거문고 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 < ㄸ다 < 두시-초 > ]

타다07 [타, 타니] 「동」 & 「1」 【...을】 먼지나 때 따위가 쉽게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다. 『먼지가 타다//이 옷은 때를 잘 탄다.』 & 「2」 【...을】 「1」 몸에 독한 기운 따위의 자극을 쉽게 받다. 『옷을 타다.』 「2」 부끄러움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 『노여움을 타다/간지럼을 타다.』(생략) § 「3」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다. 『계절을 타다.』(생략) § [ < ㄸ다 < 월석 > ]

타다08 [타, 타니] 「동」 【...을】 목화를 씨아로 틀어서 씨를 빼내고 활줄로 튀기어 퍼지게 하다. 『이불솜이 한쪽으로 뭉치는 것을 보니 솜을 탈 때가 되었나 보다.』 §

타다09 [타, 타니] 「동」 【...을】 (‘손’과 함께 쓰여) 「1」 사람이나 물건이 많은 사람의 손길이 미쳐 약하여지거나 나빠지다. 『우리 집 강아지는 동네 사람들의 손을 자주 타서인지 잘 자라지 않는다.』(생략) § 「2」 물건 따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자주 없어지다. 『마늘이고 파고 동네에서 좀 한갓진 텃밭 곡식은 언제 손을 타는지 모른다.』(이무영, 농민) §

— 『표준국어대사전』

‘타다’는 사전에 따라 7~9개의 동음이의어로 올려 있다. (77)인 경우 ‘피아노를 타다.’의 ‘타다’와 ‘솜을 타다.’의 ‘타다’를 같은 뜻 항목으로 처리하여 다른 사전들과 다르게 7개의 標題項[동음이의어]으로 되어 있다. 그 뜻풀이를 보면 모든 사전들이 서로가 비슷하다. 이는 서로가 모방을 하면서 사전을

편찬했기 때문이다. (79)의 경우, ‘타다1’은 ‘기본뜻’에서 ‘확장된 뜻’으로 배열하면서 뜻풀이를 해 놓았는데 ‘타다6’은 일반적인 뜻풀이를 제시하고 그 뜻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뜻풀이를 하고 있다. 같은 사전 안에서 이러한 뜻풀이 방식이 서로 차이나는 것은 뚜렷한 뜻풀이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어휘에 따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절에서 밝힌 것처럼 의미의 확장이 ‘구체적 사물(사실)의 뜻’에서 ‘추상적인[일반적인]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뭉치의 수집에 따른 어휘의 빈도수가 측정되지 않을 적에는 뜻의 배열을 ‘기본뜻’에서 ‘확장된 뜻’으로 해 나가야 한다. 곧 현재로서 뜻의 배열 방식은, (1)말뭉치가 수집된 경우에는 ‘기본뜻 → 빈도수가 높은 뜻의 차례로 배열’하고, (2)말뭉치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뜻으로 인지되는 뜻 → 구체적 사물(사실)의 뜻에서 추상적·일반적인 뜻으로 배열’하는 두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타다6’인 경우는 그 뜻의 배열 순서를 바꿔야 한다. 곧, ‘㉠철이나 날씨의 영향을 쉬 느끼다. → ㉡독한 기운을 몸에 잘 받다. → ㉢심리적, 육체적 자극을 잘 받다.’의 순서로 배열함이 타당하다.

그 뜻이 문장 속에서 정확한 쓰임새를 알려 주는 용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정규사전들보다 오히려 특수사전인 『국어용례사전』, 『뉴앙스풀이를 곁한 우리말사전』 등이 더 낫다. 임홍빈(1994)에서는 (79)의 ‘타다4’와 ‘타다7’을 ‘비교적 단단한 덩어리의 물체를 들로 갈라지게 하거나 깨다, 단단하게 뭉친 것을 찢다’로 뜻풀이를 함으로써 다의어로 처리하였다. 이는卓桴이라 하겠는데, 이에 따라서 ‘타다7’은 ‘타다4’의 다의어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의어로 처리할 수 있는 어휘가 또 없겠는가?

‘타다3’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건네주는 것을 받다.’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타다6’도 ‘외부의 사물이나 자극으로 몸으로 받다/느끼다.’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다3’과 ‘타다6’은 서로 밀접한 의미의 연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타다3’과 ‘타다6’은 다의어로 처리할 수 있겠다. 이 경우 ‘타다3’의 뜻이 기본적인 뜻으로 認知되기 때문에 ‘타다3’의

뜻 항목들 다음에 ‘타다6’의 뜻들을 배열하면 된다.

(77)에서는 ‘숨을 타다.’의 ‘타다’를 ‘거문고를 타다.’의 ‘타다’의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아마 ‘활줄을 이용하여 물건을 다루다.’는 의미로 통합하여 이와 같이 처리하였으리라 보이는데, 숨을 타면 숨털과 씨앗이 나누어지고 숨털 덩어리가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다5’의 다의어로 처리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타다7’의 경우에도 단의어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사전들처럼 다의어로 다룸이 좋겠다.

(81)의 경우는 (77)를 많이 모방한 듯이 ‘숨을 타다.’의 ‘타다’를 ‘가야금을 타다.’의 ‘타다’의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전들에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타다5’인 경우 다른 표제어들과 동음이의어로 처리했으나 확장된 의미로 보아 다의어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82)는 가장 최근에 집대성된 국어사전답게 문형 정보와 용례 제시가 풍부하고 항목마다 뜻풀이를 세밀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타다07’의 ‘1’과 ‘타다09’의 ‘2’는 다른 사전에는 없는 뜻풀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77)~(81)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타다’는, “①[자]물체에 불이 붙어 불꽃이 오르거나 벌겁게 열이 나다. ②[타]어떤 물체 위에 올라 몸을 싣다. ③[타]비교적 단단한 덩어리의 물체를 둘로 가르거나 깨거나 단단하게 뭉친 것을 고루 펴다. ④[타]손가락으로 악기줄을 튕겨 소리를 내다. ⑤[타]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건네주는 것을 받다. ⑥[타]액체의 물질에 다른 것을 넣어 섞다.”를 기본뜻으로 하는 여섯 개의 동음이의어로 다룰 수 있다.

## ② ‘차다’의 경우

- (83) 차다<sup>1</sup> ① 이지러진 데가 없이 아주 온전하여지다. \*달도 차면 기운다. ② 가득하게 되다. \*독에 물이 ~. 뒤주에 쌀이 ~. ③ 어떤 공간에 가득히 널리다. \*방안에 찬 달빛. 난초의 그윽한 향내가 차 있는 온실. ④ [조사

- ‘에’의 다음에 쓰이어 그 앞의 명사가 뜻하는 감정이나 생각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 \*감격에 찬 눈물. 사랑에 찬 목소리. 시름에 찬 표정. ③ 어떤 한도에 달하다. \*눈이 무릎까지 찬다. ㉠정한 수효에 미치다. \*정원이 ~. ㉡[정한 기한이나 시간 등이] 제 때에 이르다. \*다섯 달이 ~.
- 차다<sup>2</sup>㉢ ①발길로 내어 지르다. \*공을 ~. ㉣발로 받아 내거나 받아 올린다. \*제기를 ~. ②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어 소리를 내다. \*혀를 ~. ③[속] 거절하여 관계하지 않다. \*사랑하던 여자를 차 버리다. ④사납고 날쌔게 빼앗거나 움켜져 당기다. \*독수리가 병아리를 차고 가듯.
- 차다<sup>3</sup>㉣ ①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 \*주머니를 ~. 칼을 ~. 수건을 ~. ②끈을 달아 팔목에 끼우거나 매다. \*시계를 ~. ③수갑을 팔목에 끼우거나 차꼬 구멍에 발목을 끼우다. ④몸에 지니거나 데리다. \*올 때마다 술병을 차고 오는군. 갔는가 했더니 웬 녀석까지 하나 차고 들어왔군요.
- 차다<sup>4</sup>㉤ ①온도가 낮다. \*날씨가 ~. ②동정심이 없고 쌀쌀하다. 냉정하다. ③<<한의>>[약제에]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다. \*참다.
- 차다[접미] 명사 다음에 쓰이어 그 명사의 뜻을 강조하는 형용사를 이루는 말. \* 이름~. 보람~.

-『새우리말큰사전』

- (84) 차다<sup>1</sup>㉠ ①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뒤주가 ~. ②이지러진 데가 없이 아주 온전하여지다. ¶달도 차면 기우나니. ③정한 수효가 되다.¶정원(定員)에 ~. ④정한 기한에 이르다.¶복무 연한이 차면 만기 체대한다.
- 차다<sup>2</sup>㉡ ①발로 내어 지르다.¶공을 ~. ②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어 소리를 내다. ¶모두가 혀를 ~. ③거절하여 따 버리다.¶에인을 ~. ④날렵하게 채뜨리다. ¶매가 병아리를 차고 가듯.
- 차다<sup>3</sup>㉢ ①끈을 달아 몸의 한 부분에 걸고 늘어뜨리다.¶허리에 칼을 ~. ②수갑 따위를 팔목에 끼우거나 차꼬 구멍에 발목을 끼우고 잠그다.¶시계를

~. ③몸에 지나다. 몸 가까이 거느리어 데리다. **¶**올 때마다 술병을 차고 온다. /올 때면 꼭 누굴 차고 오더라.

차다<sup>1</sup>**㉠** ①물체의 온도가 낮다. **¶**생물이 ~. ↔뜨겁다. ②기온이 낮다. **¶**날씨가 ~. ↔덥다. ③인정이 없다. 냉담하다.

차다<sup>2</sup>**㉠**<방> 짜다<sup>2</sup>①(제주).

—『국어대사전』

(85) 차다<sup>1</sup>**㉠**(제) ①한껏 들어 있게 되다. (b)뒤주는 쌀로 가득 차 있다. 독에는 물이 반쯤 찼다. 자동차와 사람으로 꽉 찬 도시. ②어떤 정도에 미치다. (b)넷물이 무릎에까지 찼다. 배가 차도록 먹었다. ③널리 퍼져 있다. (b)뜰에 가득 찬 달빛. ④이지러진 데가 없이 온전하게 되다. (b)달도 차면 기우나니... ⑤일정한 수요가 다 들어서다. (b)이 학과의 정원은 일차 지망생들만으로도 다 찼다. ⑥일정한 때에 이르다. (b)기한이 ~. 나이가 찰 만큼 찼다. 찬 한 해 만에 수정판을 내게 되었다. [참고] 달이 차다. ⇨달! ⑦어떤 감정, 생각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 흔히 ‘-에’ 다음에 잘 쓰인다. (b)내 가슴은 그대 생각으로 차 있소 분노에 찬 얼굴.(생략) ⑧일부 뿌리나 이름씨에 뒷가지스럽게 쓰이어, 그 뜻의 힘줄을 나타내는 그림씨를 만든다. (b)매물~. 세~. 옹골~. 우렁~. /기운~.(생략) [<차다]

차다<sup>2</sup>**㉠** ①발로 내지르거나 받아 올린다. (b)공을 ~. 제기를 ~. 이불을 차고 일어났다. 수면을 차고 오르는 오리떼. ②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어 소리를 낸다. (b)혀를 끌끌 찬다. ③‘가까이하지 못하도록 따 버리다’의 낮은 말. (b)수많은 여자를 차 버린 바람둥이. [<차다]

차다<sup>3</sup>**㉠** ①몸의 한 부분에 달거나 둘러매거나 걸어서 지나다. (b)명찰을 ~. 시계를 ~. 완장을 ~. 허리춤에 수건을 찼다. 권총을 찬 군인.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이순신>. ②수갑을 팔목에 끼우거나 차꼬 구멍에 발목을 끼우다. (b)쇠고랑을 ~. ③몸네 지니거나 함께 데리다. (b)술 한 병을 차고 왔다. 검둥이란 놈이 웬 개 한 마리를 차고 돌아다녔다.



[<차다<] ]

차다<sup>4</sup> [움(남) 날쌔게 빼앗거나 움켜져 가지다.(비)매가 병아리를 차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갔다. [<차다<]

차다<sup>1</sup> [움(남) → 짜다. (비)비단을 차 보쿠다. (제주).

차다<sup>6</sup> [문] ① 온도가 낮다. (비)날씨가 ~. 방안이 ~. [한냉하다]①. ② =차갑다  
②. (비)사람이 너무 차서 가까이 대할 수가 없다. ③ <<한의>>약제에 몸의 열을 내리게 하는 성질이 있다. [한냉하다]③. [땀뺀다]②.

차다<sup>7</sup> [문] → 짜다<sup>4</sup>. (제주).

- 『우리말큰사전』

(86) 차다<sup>1</sup> [동(자) ①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 [독에 물이 ~. /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다. ② 어떤 공간에 가득 널려 있거나 퍼져 있다. [달빛이 방에 그득 ~. ③ 이지러진 데가 없이 아주 온전하여지다. [달도 차면 기운다.(생략) ④ 감정이나 기운 등이 가득하게 되다. [행복에 찬 나날. / 활기에 찬 생활. / 기쁨에 찬 눈물. ⑤ 정한 수효가 되다. [정원이 차야 차가 떠난다. ⑥ 어떤 한도에 다다르다. [시냇물이 불어 허리까지 찼다.(생략) ⑦ 정한 기한에 이르다. [열 달이 ~.

차다<sup>2</sup> [동(타) ① 발로 내어 지르다. [공을 발로 ~. ② (제기틀) 발로 반복적으로 쳐서 올린다. ③ 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어 소리를 내다. [가없다는 듯이 혀를 끌끌 ~. ④ 주로 남녀관계에서, '절교(絶交)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애인을 차 버리다. ⑤ 사납고 날쌔게 빼앗거나 움켜져 가지다. [매가 병아리를 ~.

차다<sup>3</sup> [동(타) ① (물건을) 몸의 어느 부분에 매어 지니다. [시계를 손목에 ~. / 칼을 허리에 ~. / 노리개를 옷고름에 ~. ② (수갑이나 차꼬 등을) 손목이나 발목에 끼우다. [손에 수갑을 ~. ③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해학적으로 이르는 말. [그는 어딜 가나 술병을 차고 다닌다. / 그는 몇 달 간 종적이 묘연하더니 어느 날 아침 계집을 하나 차고 마

을에 나타났다.

차다<sup>〔圖〕</sup> ①몸에 느껴지는 온도가 낮다. 〔찬 밥. /날씨가 ~. /생물이 차고 달다. /음식을 차게 해서 먹다. ②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냉정하다. 〔얼름장 같이 찬 사람.

차다<sup>〔圖〕</sup> 짜다<sup>①</sup>(제주 방언).

—『금성관 국어대사전』

(87) 차다<sup>〔字〕</sup> ①가득하게 되다. 〔저수지에 물이 -. /쌀독에 쌀이 -. /하나님의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 -. [‘에 찬’ 형으로 흔히 쓰임. 〔기쁨에 찬 눈으로 우러리보다. ②정한 수효에 이른다. 〔정원(定員)이 -. /계획량이 다 -. ③일정한 한도에 이른다. 〔무릎까지 차는 냇물. ④작정한 기한에 이른다. 〔약속한 날수가 -. /정한 기한이 다 -. ⑤[이지러졌던 것이] 온전하여지다. 〔달이 -. ⑥보거나 느끼기에 호뭇하다. 〔눈에 -. /마음에 차지 않다.

차다<sup>〔圖〕</sup> ①발로 내지르다. 발로 세계 건드리다. 〔공을 -. /영덩이를 -. ②(발로 제기를) 다루다. 〔제기를 -. ③(잠자리를) 벗어나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 매정하게 관계를 끊다. 〔오랜 동업자를 차 버리다. ⑤날렵하게 채뜨리다. 〔새 매가 병아리를 -. ⑥(혀끝을) 입천장에 댔다 뗐다 하여 소리를 내다. 〔혀를 끌끌 -.

차다<sup>〔圖〕</sup> ①몸의 어디엔가 끼우거나 걸거나 늘어뜨려 지니다. 〔시계를 -. /권총을 -. /술병을 허리에 -. ②(수갑·차꼬 따위를) 팔목이나 발목에 끼우거나 잠그다. 〔쇠고랑을 -. ③자기 주변에 거느리다. 〔강패 두목이 부하들을 차고 나타냈다.

차다<sup>〔圖〕</sup> ①몸에 느끼는 온도가 낮다. 〔날씨가 -. /개울물이 -. /방바닥이 몹시 -. ↔덥다. 뜨겁다. ②냉정하다. 매정스럽다. 〔마음씨가 -. ↔따뜻하다. —차다(접미) 일부 명사 밑에 붙어, 그것을 강조하는 뜻의 형용사를 만들. [보람차다·희망차다 따위.]

—『동아 새국어사전』

(88) 차다01 [차, 차니]「동」&「1」【...에】【...으로】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따위가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 『독에 물이 가득 차다/바스에 사람이 가득 차다.(생략) §&「2」【...에】「1」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 『실의에 차다/적의에 차다/패기에 차다/금메달을 딴 그는 기쁨에 찬 얼굴로 눈물을 흘렸다.(생략) §「2」 어떤 대상이 마음에 흡족하다.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다. §「3」 어떤 높이나 한도에 이르는 상태가 되다. 『쌍인 눈이 가랑이까지 차 올랐다.(생략) §&「3」「1」 정한 수량, 나이, 기간 따위가 다 되다. 『나이가 꼭 찬 신부/때가 차다.(생략) §「2」 이지러진 데가 없어 아주 온전하다. 『달이 꼭 찼다. §「반」& <1> 비다01& [1] [1]. [<츠다<석상>]

차다02 [차, 차니]「동」【...을】「1」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린다. 『공을 차다/제기를 차다. §「2」 발을 힘껏 뺨어 사람을 치다. 『그는 상대편 선수를 발로 찼다. §「3」 혀끝을 입천장 앞쪽에 붙였다가 떼어 소리를 낸다. 『혀를 끝끝 차다.(생략) §「4」 발로 힘 있게 밀어젓히다. 『선수들은 출발선을 차며 힘차게 내달렸다.(생략) §「5」(속되게) 주로 남녀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다. 『그는 5년을 사귀 여인을 차 버렸다. §「6」 날새게 빼앗거나 움켜 가지다. 『매가 병아리를 차서 하늘 높이 날아갔다.(생략) §「7」 자기에게 베풀어지거나 차례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들어오는 복을 차다. § [<츠다<두시-초>]

차다03 [차, 차니]「동」&「1」【...에 ...을】「1」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 『기저귀를 찬 아이/허리에 칼을 차다.(생략) §「2」 수갑이나 차꼬 따위를 팔목이나 발목에 끼우다. 『죄인은 팔목에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2」【...을】(속되게) 애인으로 삼아 데리고 다니다. 『집 나간 그 녀석은 계집 하나를 차고 돌아왔다. § [<츠다<용가>]

차다04 [차, 차니] 「형」&「1」「1」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찬 음식/바람이 차다/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생략) §「2」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성격이 차고 매섭다.(생략) §「3」『한』 약재(藥材)나 약제(藥劑)의 성

질이 차서 몸의 열을 내리게 하는 작용이 있다. &「2」『복』성격이 끝나면  
 서도 냉철하다. ¶변경속이도 경우가 밝고 대가 찬 녀자이기는 하지만 그  
 렇게 입이 무거운 편은 아닌 것이다. <<415 문학창작단, 대지는 푸르다>>  
 § 「반」&<1><3>답다01 [3]. [<츠다<월곡>]

차다05「형」『방』‘짜다03’의 방언(제주).

—『표준국어대사전』

‘차다’는 방언을 제외하고 4~6개의 동음이의어로 배열하고 있다. (83)의  
 경우 “형태가 같은 말의 차례”를 “표준말을 먼저, 표준말이 아닌 말을 나중  
 에 둔다. 표준말 아닌 말들은 ‘속된말, 낮은말, 방언, 변말, 결말, 잘못 쓰는  
 말’들의 차례로 심는다.”<sup>45)</sup>고 한 편찬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84)와 (87)  
 는 ‘차다’에서 ‘기본뜻’과 ‘확장된 뜻’을 구별하지 않고 뜻풀이를 함으로써  
 체계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84)는 용례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감정이나 기운  
 등이 가득하다.’의 뜻을 ①항목의 뜻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  
 우 ‘사람·물건이 어떤 장소·공간·물건에 가득하게 되다.’는 ‘기본뜻’과  
 이에서 확장된 뜻의 구별이 없게 된다. 이는 ‘구체적 사물(사실)의 뜻’과 ‘추  
 상적·일반적인 뜻’을 다의어로 구분하여 뜻풀이 하는 방식과 어긋나므로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미흡하다.

(83)은 ‘기본뜻’이 다른 사전과 다른데 ‘확장된 뜻’을 독립된 뜻 항목으로  
 배열하지 않고 기본뜻의 하위 항목으로 배열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그 뜻의  
 연관관계를 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나 언중들은 ‘확장된 뜻’은 ‘기  
 본뜻’과 이미 뜻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여 그 뜻을 사용하므로,  
 별개의 뜻 항목으로 배열하여 뜻풀이함이 바람직하다. (85)는 ‘차다1’의 ⑧항  
 목에 접미사를 포함시켜 뜻풀이를 하였는데, 이러한 문법형태소는 (83)이나  
 (87)처럼 별도의 표제어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엄연히 그 뜻풀이에

45)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어문각, 1992), 11쪽.

“일부 뿌리나 이름씨에 뒷가지스럽게 쓰이어, 그 뜻의 힘줄을 나타내는 그림 씨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표제어 배열 방식에도 어긋나고 있다.

그리고 뜻풀이의 실제 문제에서 부정확한 뜻풀이를 본다면 ‘차다’의 ② 항목이다. -(83)은 ③ 항목이다. -대개 뜻풀이가 ‘수갑이나 차꼬를 팔목이나 발목에 끼우다.’로 되어 있고, 용례는 “손에 수갑을 차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차다’는 ‘끼워주다’의 뜻이 아닌가?

- 그는 범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 그는 붙잡혀서 수갑을 차다.

위의 두 문장은 엄연히 행동 주체의 행위가 다르다. ‘수갑을 차다.’의 ‘차다’는 ‘수갑이나 차꼬 따위를 손목이나 발목에 끼게 되다/걸게 되다.’로 뜻풀이를 해야 옳다. 이 항목에 관한 뜻풀이의 오류는 (88)도 마찬가지이다. ‘차다 03’의 ‘2’에서 ‘수갑이나 차꼬 따위를 팔목이나 발목에 끼우다.’로 (83)~(87)과 대동소이하게 뜻풀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87)의 경우는 ‘(수갑·차꼬 따위를) 팔목이나 발목에 끼우거나 잡는다.’로 뜻풀이를 하여 피의자가 스스로 수갑이나 차꼬를 찬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그 어휘가 쓰인 문장 속에서 실현되는 의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결과라 하겠다.

(88)은 위에서 밝힌 문제 외에 (84)와 (86)처럼 접미사 ‘-차다’를 빠뜨렸다는 점과 세밀하게 뜻풀이를 하려다 보니 구태여 별개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지어 뜻풀이를 한 점 등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차아 01’의 ‘2’를 다시 ‘1,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와 ‘2, 어떤 대상이 마음에 흡족하다’로 구분지어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 둘은 모두 행동 주체의 감정이나 기운 등이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85)처럼 한 항목으로 뜻풀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치다'의 경우

(89) 치다<sup>ㄷ</sup> ①[비·바람·눈보라·물결·번개 같은 것이] 세차게 움직이다.

②된서리가 몹시 많이 내리다. ③물결이 일어 설레거나 움직이다.

치다<sup>ㄷ</sup> → 치이다.

치다<sup>ㄷ</sup> ①[손이나 물건으로] 목적물에 세게 부딪다. \*제 손으로 제 뺨을 친다. (생략) ①무엇을 던져 맞히다. \*돌을 쳐서 밤을 따다. ②채찍으로 휘둘러 때리거나 하여 돌리다. \*얼음판 위에서 팽이를 ~. ②소리가 나게 두드리다. \*박수를 ~. 손뼉을 ~. ⑦악기를 타거나 두드리어 연주하다. \*피아노를 ~(생략) ③[손이나 공채 따위로] 공을 때리거나 튕겨 놓다. \*탁구를 ~. 공을 ~ ④전신을 보내다. \*전보를 ~. ⑤공격하다. \*적의 진지를 ~. ⑥공박하거나 논박하다. \*남을 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생략) ⑥두드리어 박다. \*말뚝을 ~. 못을 ~. ⑦시간을 알려려고 종소리나 기타 신호 소리를 내다. \*벽시계가 땡땡 2시를 쳤다. ⑧화두목이나 주패 따위를 양손에 갈라 쥐고 서로 부딪쳐 섞다, 또는 그 놀이를 하다. \*육백을 ~. 트럼프를 ~. ⑨[점이나 선 따위를] 긋거나 찍다. \*중요한 부분에는 빨간 점을 치며 자세히 읽었다.(생략) ⑩날개·꼬리·손발 등을 세차게 움직이다. \*날개를 훨훨 치며 날아가는 기러기. 헤엄을 ~(생략) ⑪체질을 하여 고운 가루를 뽑아내다. \*가루를 ~. ⑫쇠붙이를 달구어 두드리려 연장을 만듦다. \*칼을 ~. ⑬[무엇을] 베거나 자른다. \*잡초를 쳐 준다. ①슈아 베거나 자르다. \*결가지를 ~. 띠꺼머리를 ~. ⑭칼날을 밖으로 하여 열매의 잔털이나 보늬를 깎다. \*밤의 보늬를 ~. ⑭[찌거나 삶은 떡거리들] 안반에 놓고 떡메로 두드리려 짓기다. \*인절미를 ~. ⑮돛자리나 가마니·덕석·떡서리 같은 것을 틀로 짜거나 엮어서 짜다. \*짚으로 가마니를 ~. 떡서리를 ~. ⑯[채로 만들기 위하여] 가늘게 썰다. \*무우를 채로 ~. ⑰피륙·명석·돛자리 등의 가장자리를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다. \*휘감을 ~. ⑱계산에 낸다. \*조

선조 중기의 시조 작가라면 윤선도(尹善道)를 제일인자로 칠 수 있겠다. 이자까지 쳐서 계산하시오 ⑱가량으로 계산한다. \*그 공사를 완성하자면 어렵 쳐서 1주일은 걸릴 거요 ⑳액체나 가루 따위를 끌고루 흩어지게 뿌리거나 끼었다. \*두부는 콩국물에 간수를 쳐서 익혀 만든다. 휘발유를 ~. ㉑[병마나 독기 따위를] 없애 고치다. \*열(熱)은 열로 친다[이열치열(以熱治熱)]. ㉒점괘를 알아 보다. \*점을 ~. ㉓ [술을 술잔에] 따르거나 붓다. \*술을 한 잔 ~.

치다<sup>3</sup>태 ①발이나 휘장 따위를 펴서 늘이다. \*커튼을 ~. ②무엇을 잡으려고 그물 따위를 펴서 벌이거나 밑으로 늘이다. \*그물을 ~. ③신깅기나 대님 따위를 감거나 두르다. \*대님을 ~. 잠방이에 대님 치듯. 제 옷 벗어 남의 발에 감발 쳐 준다. ④[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진을 마련하다. \*포위망을 ~. ⑤병풍이나 포장 따위를 돌려 세우거나 막다. \*병풍을 ~. ⑦모기장이나 천막 따위를 갖추어 차리다. \*천막을 ~. 모기장을 ~. ⑥벽을 만들거나 담을 쌓아 가리거나 막다. \*울타리를 ~. ⑦줄을 가로 늘이거나 매다. \*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새끼줄을 쳐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⑧거미가 거미줄을 늘이다. \*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치다<sup>3</sup>태 ①쌓이거나 메인 불필요한 물건을 파내거나 그러내어 딴 곳으로 옮긴다. \*아궁이의 재를 ~. 도랑을 ~. ②땅이나 나무 등을 파내어, 논이나 물길 또는 흙 등을 만든다. \*물도랑을 ~. ③걸레 따위로 닦거나 문지른다. \*집안을 깨끗이 치고 나니 한결 시원하다.

치다<sup>4</sup>태 ①[동물이 새끼를 까거나 낳거나 하여] 번식시키다. \*새끼를 ~. ②[가축 따위를] 기르다. \*누에를 ~. 닭을 ~. ③식물의 가지나 뿌리를 여러 갈래로 내 뜯게 하다. \*묘목은 어느새 자라 가지를 치기 시작했다. ④[벌이] 꿀을 빚다. \*꿀을 ~. ⑤[주로 영업을 목적하여] 나그네를 숙박시키다. \* 하숙을 ~.

치다<sup>3</sup>태 [어떤 일을] 치르거나 겪다.\*시험을 ~.큰일을 치자니 여러 가지 어려

운 점이 많았다.

치:다<sup>8</sup>[ㄷ] →치우다. \*방 한 모퉁이를 치고 책장을 들여 놓았다.

치다<sup>9</sup>[ㄷ] ①[일부 명사와 함께 쓰이어] 그 명사가 뜻하는 행동을 힘주어 하거나 저지르다. \*땡소니를 ~. 도망을 ~. ②[일부 명사와 함께 쓰이어] 냅다 소리를 지르다. \*고함을 ~. 호통을 ~.

치다<sup>10</sup>[피동] →치이다. \*3개에 30원이면 1개에 10원씩 친 셈이로군.

치다<sup>11</sup>[ㄷ] →춡다.

-치다[접미] ‘-아·-어’형의 일부 동사와 함께 쓰이어, 그 동작을 힘들여 함을 나타냄. \*몰아~. 죄어~. 밀어~.

-『새우리말큰사전』

(90) 치다<sup>12</sup>[ㄷ] ①바람·눈보라·물결·번개 같은 것이 세차게 움직이다.¶눈보라가 ~. /벼락이 ~. ②된서리가 몹시 많이 내리다.

치:다<sup>13</sup>[재] /치이다.¶차에 ~.

치다<sup>14</sup>[ㄷ] ①손이나 물건을 가지고 목적물을 때리다.¶뺨을 ~. /못을 ~. /손뼉을 ~. ②소리를 내기 위하여 무엇을 때리거나 두드리다.¶북을 ~. /피아노를 ~. /시계가 두 시를 ~. ③쇠붙이를 달구어 때리는 동작으로 칼·낫 같은 것을 만들다.¶칼을 ~. ④인절미·흰떡들을 안반에 놓고 떡메로 두드리며 짓기이다.¶떡을 ~. ⑤때려 박아 넣다.¶마치로 못을 ~. ⑥적을 공격하다.¶적을 ~. ⑦남의 단처(短處)를 들어 타박을 주다.¶남을 치기 전에 자기를 반성하라. ⑧손발 또는 날개·꼬리로 공중이나 물에서 세차게 흔들다.¶헤엄 ~. / 날개 ~. ⑨식물의 가지나 잎을 베어 내다.¶가지를 ~. ⑩베개 들어선 물건 속에서 얼마끔을 골라서 깎거나 베어 내다. ⑪무슨 물건을 제대로 두지 않고 손을 대어 매만지다. ⑫잘게 썰어서 채를 만들다.¶오이채 ~. ⑬칼날을 밖으로 날리어 잔 칼질로 밤의 보늬를 깎다. ⑭카드나 화투 등의 패를 손으로 소리 나게 추슬러서 고루 섞이게 하다. 또 카드·화투·딱지놀이 하다.¶화투를 ~. /딱지 ~. ⑮칼을 날려 목을 베다.¶목을 ~. ⑯목표를



이루다. 성공을 거두다.▶히트를 ~.

치다<sup>ㄷ</sup> ㄱ ①붓이나 연필 등으로 어떠한 곳에 점이나 줄을 나타내어 표시하거나 또는 그림이 되게 하다.▶줄을 ~. /묵화를 ~. ②무슨 물건을 표시할 목적으로 인(印)을 찍어 나타내다. ③전신기(電信機)를 눌러서 전보를 송신하다.▶전보를 ~. ④모르는 일을 알아내기 위하여 점괘를 찾아보다.▶점을 ~. ⑤우선 셈을 잡아 놓다. 또, 어떠한 양으로 여기어 두다.▶그건 그렇다 치고 /노는 셈 ~. / 값으로 치면. ⑥시험을 치르다.▶시험을 ~.

치다<sup>ㄷ</sup> ㄷ ①적은 분량의 액체를 따르거나 가루 같은 것을 뿌려서 놓다.▶초를 ~. /소금을 ~. ②체질을 하여 고운 가루를 뽑아내다.▶체에 밀가루를 ~.


치다<sup>ㄷ</sup> ㄷ ①군막(軍幕)· 휘장(揮帳)· 그물· 밭· 줄 같은 것을 펴서 벌여놓다.▶장막을 ~. /밭줄을 ~. /비상선을 ~. ②병풍(屏風) 같은 것을 둘러서 세우다.▶병풍을 ~. ③벽을 만들거나 담을 쌓아 가리우다.▶담을 ~. ④신 갱기를 감거나 내뿜을 두르거나 휘잡 같은 것을 마무리다. ⑤소리를 기세 있게 내다.▶소리쳐 부르다. ⑥장난을 기세 부려하다.▶장난을 ~. ⑦일 부러 기세를 배풀다.▶허풍을 ~. /공갈을 ~. ⑧몸을 흔들어 진저리를 몹시 내다.▶진저리 ~.


치다<sup>ㄷ</sup> ㄷ ①돛자리· 가마니· 떡서리· 덕석 같은 것을 틀거나 엮어 만든다.▶돛자리를 ~. /가마니를 ~. ②끈목을 엮어서 꼬다.


치다<sup>ㄷ</sup> ㄷ ①가축· 가금을 길러 번식시키다.▶닭을 ~. ②식물이 가지를 내뿜게 하다. ③벌이 꿀을 빚다.▶꿀을 ~. ④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퍼뜨리다.▶새끼를 ~. ⑤자선(慈善)이나 영업으로 나그네를 두다.▶하숙생을 ~. /손님을 ~.

치다<sup>ㄷ</sup> ㄷ ①쌓이거나 메인 불결한 물건을 파내거나 그러내어 그 자리를 말끔하게 하다.▶눈을 ~. / 변소를 ~. ②땅을 파 내거나 골라서 논밭이 되게 하다.

치다<sup>ㄷ</sup> ㄷ 수레바퀴 등이 사람 따위를 깔아 누르고 지나가다.▶사람을 치고 뺑소니 친 자동차.

치:다<sup>1</sup>[] /  치우다.

치:다<sup>2</sup>(피동) /  치이다<sup>3</sup>.

치다<sup>3</sup>[] <방> 출다.

- 치다<sup>1</sup> 어떠한 동사의 어간·어근 및 「-아·-어·-우」 등의 어미에 붙어 그 동작의 힘들임을 나타내는 말. 『밀~. / 물아~. / 죄어~. \*--뜨리다.

- 『국어대사전』

(91) 치다01 [치어[ -어/ -여](쳐[ 처], 치니) 「동」 「1」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비, 눈 따위가 세차게 뿌리다.『세찬 눈보라가 치다/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배가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 「2」천둥이나 번개 따위가 큰 소리나 빛을 내면서 일어난다.『벼락이 치다.(생략)』 「3」서리가 몹시 차갑게 내리다.『된서리가 치는 바람에 농작물이 다 얼어 버렸다.』 「4」물결이나 파도 따위가 일어 움직이다.

치다02 [치어[ -어/ -여](쳐[ 처], 치니) 「동」 【…을】 「1」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계 닿거나 부딪게 하다. 『날아오는 공을 치다.(생략)』 「2」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손뼉을 치다/피아노를 치다.(생략)』 「3」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물체를 부딪게 하는 놀이나 운동을 하다.『따지를 치다/볼링을 치다.(생략)』 「4」망치 따위로 못을 박다.『이쪽 벽에 액자를 걸 수 있게 못을 쳤으면 좋겠다.(생략)』 「5」일정한 장치를 손으로 눌러 글자를 찍거나 신호를 보내다.『타자를 치다/본부에 무전을 쳐서 사건 상황을 보고했다.(생략)』 「6」카드나 화투 따위의 패를 고루 섞다. 또는 카드나 화투를 즐기다.『친구들끼리 모여서 트럼프를 쳤다.(생략)』 「7」쇠붙이 따위를 달구어 두들겨서 연장을 만들다.『대장장이가 열심히 칼을 치고 있다.』 「8」떡을 차지게 하기 위하여 떡메로 반죽을 두들기다.『설을 맞아 집집마다 떡 치는 소리가 한창이다.』 「9」시계나 종 따위가 일정한 시각을 소리를 내어 알리다.『벽시계가 11시를 쳤다.(생략)』 「10」날개나 꼬리 따위를 세차게 흔들다.『개는 주인을 보자 반갑게 꼬리를 쳤

다.(생략) §「11」팔이나 다리를 힘 있게 저어서 움직이다.¶혜엄을 치다. §「12」몸이나 몸체를 심하게 움직이다.¶비행기에 이상이 생겼는지 기체가 심하게 요동을 쳤다.(생략) §「13」날이 있는 물체를 이용하여 물체를 자른다.¶망나니가 죄인의 목을 쳤다.(생략) §「14」밤 따위를 칼날을 바깥쪽으로 힘 주어 여러 번 닿게 하여 속껍질을 벗기다.¶아버지가 제상에 올릴 날밤을 치고 계신다. §「15」상대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공격을 한다.¶아군은 한밤중에 적의 심장부를 쳤다.(생략) §「16」웃음을 얼굴에 나타내다.¶그녀는 눈웃음을 치며 인사했다. §「17」큰 소리를 내다. §「18」가늘게 썰거나 저미다.¶김치에 넣으려고 무를 칼로 치고 있다. §「19」달아나거나 빨리 움직이다.¶그녀는 무엇이 바쁘지 불려도 대답하지 않고 종종 걸음을 치며 가 버린다. §「20」속이는 짓이나 짓궂은 짓, 또는 좋지 못한 행동을 하다.¶사기를 치다.(생략) §「21」시험을 보다.¶입학시험을 치다.(생략) §「22」점재로 길흉을 알아보다.¶점을 치다/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 § [ <티다<용가> ]

치다03 [치어[-어/-여](쳐[쳐]), 치니] 「동」, 【…에 …을】 붓이나 연필 따위로 점을 찍거나 선이나 그림을 그린다.¶밑줄을 치다/사군자를 치다/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다./틀린 것에 가위표를 치시오. § [ <티다<능엄> ]

치다04 [치어[-어/-여](쳐[쳐]), 치니] 「동」, 【…에 …을】 「1」적은 분량의 액체를 따르거나 가루 따위를 뿌려서 넣다.¶국에 간장을 치다.(생략) §「2」기계나 식물이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기름이나 약을 바르거나 뿌리다.¶기계에 기름을 치다/병충해를 막기 위하여 농약을 쳤다. §「3」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기름을 두르다.¶전을 부칠 때 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많이 쳐야 한다. §「4」술을 부어 잔을 채우다.¶잔에 술을 치다. § [치다<구찰> ]

치다05 [치어[-어/-여](쳐[쳐]), 치니] 「동」, 【…에 …을】 「1」막이나 그물, 밭 따위를 펴서 벌이거나 늘어뜨리다.¶대문에 금줄을 치다/강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다.(생략) § 「2」 벽 따위를 둘러서 세우거나 쌓다. ¶싸리나 무로 담을 치다.(생략) § 「3」 붕대나 대님 따위를 감아 매거나 두르다. ¶간 호사는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발라 주고 붕대를 쳐 주었다.(생략) § [ <티다 < 두시-초 > ]

치다06 [ 치어[ -어/ -여](쳐[쳐]), 치니 ] 「동」, 【…을】 「1」 돛자리, 멍석, 가마니 따위를 틀로 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돛자리를 친다./김선여는 남들이 다 내는 거름을, 가마니를 치기 때문에 못 내고 있는 것이 걱정되어 말한다. <<이기영, 신개지>> § 「2」 손으로 엮거나 틀어서 만든다. ¶머서리를 치다/주머니 끈을 치다. §

치다07 [ 치어[ -어/ -여](쳐[쳐]), 치니 ] 「동」, 【…을】 「1」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양을 치다/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 「2」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 「3」 동물이 새끼를 낳거나 까다. ¶어젯밤 돼지가 새끼를 쳤다.(생략) § 「4」 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남을 머물러 묵게 하다. ¶학교 주변에는 하숙을 치는 집이 많다. § [ <치다 < 월곡 > ]

치다08 [ 치어[ -어/ -여](쳐[쳐]), 치니 ] 「동」, 【…을】 「1」 불필요하게 쌓인 물건을 파내거나 옮기어 깨끗이 하다. ¶쓰레기를 치다/변소를 며칠 치지 않았는지 냄새가 고약하다.(생략) § 「2」 논이나 물길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내거나 고르다. ¶도랑을 치다/논을 치다. § [ <츠다 < 월석 > ]

치다09 [ 치어[ -어/ -여](쳐[쳐]), 치니 ] 「동」, 【…을】 차나 수레 따위가 사람을 강한 힘으로 부딪고 지나가다. ¶트럭이 지나가는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생략) §

치다10 [ 치어[ -어/ -여](쳐[쳐]), 치니 ] 「동」, & 「1」, 【…을 …으로】 【…을 -게】 「1」, 【…에 …을】 셈을 맞추다. ¶그는 내 땅을 평당 만 원 정도로 쳐서 팔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생략) § 「2」, 【…을 -고】 【…으로】 【-고】(‘…으로’나 ‘-고’ 대신에 ‘-다손, -나다손, -라손’ 따위가 쓰이기도 한다) 인정하거나 가정하다. ¶그는 내 작품을 최고로 쳤다.(생략)

략§ & '2, 【…을 …에】 계산에 넣다. 『너까지 인원에 쳐야 모두 열 명이 다.』(생략§ & '3, 【…으로】(주로 '치면, 친다면' 따위의 꼴로 쓰여)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다. 『종갓집 형은 촌수로 치면 팔촌 형이고 연배로 치면 20여 세 위였다.』(이병주, 지리산<<생략>> §

치다<sup>11</sup> [치어[-어/-여](쳐[쳐]), 치니] 「동」, 【…을】 가루 상태의 물질을 체로 흔들어서 곱게 만들다. 『체를 친 고운 밀가루/체로 쳐서 모래와 자갈을 골라냈다.』[<츠다<월석>]

치다<sup>12</sup> 「동」 『방』 벧단을 말리기 위하여 이삭 쪽을 위로 맞대고 뿌리 쪽은 띄워서 줄을 지어 세우다(충북).

치다<sup>13</sup> 「동」, '치이다<sup>2</sup>'의 잘못.

치다<sup>14</sup> 「동」, 「보」, '치우다<sup>1</sup>'의 잘못.

치다<sup>15</sup> 「동」 『옛』 '1' '봉양하다(奉養-)'의 옛말. 『어미를 치다가 내종내 아니 함며<<번소 9:57<<이제는 만흔 祿을 어드니 뼈 어버이를 치고져 하니 어버이 겨시디 아니 함고<<소언 5:79<</늘근 식어미 치기놀 지성으로 함 더니<<동신 7:83<< § '2' '육성하다(育成-)'의 옛말. 『至極함 사르몬 상네 物을 버리고 道를 아니 모몰 울와 生을 치거든<<월석 12:34<< § '3' '치다<sup>07</sup>'의 옛말. 『伽闍山 苦行애 六年을 안즈샤 마리 우회 가치 샷기 치니<<월곡 61<<畜生은 사르미 지브 서 치는 중시이라<<월석 1:46<< §.

- 『표준국어대사전』

(89)에서 '치다<sup>1</sup>'을 보면 뜻풀이 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①[비·바람·눈보라·물결·번개 같은 것이] 세차게 움직이다.”와 “③물결이 일어 설레거나 움직이다.”는 어떤 뜻 차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구태여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③ 항목은 삭제함이 좋겠다. 그리고 '치다<sup>1</sup>'은 뒤의 '치다<sup>0</sup>'과 의미관계가 있지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독립된 표제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89), (90)·(91) 세 사전 간의 뜻풀이를 보면 큰 차이가 있다. 그 차

이를 구분한다면 (89)은 다의어를 극대화하려 했고, (90)과 (91)은 동음이의어를 극대화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

그 뜻풀이 내용을 보면, (90)에서 동음이의어로 구분한 ‘치다<sup>4</sup>, 치다<sup>5</sup>, 치다<sup>7</sup>’을 (89)에서는 ‘치다<sup>3</sup>’에서 다의어로 처리하였다. (91)에서는 ‘치다<sup>10</sup>’ 항목에 (89)와 (90)에 없는 새로운 뜻풀이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90)의 ‘치다<sup>6</sup>’의 뜻풀이를 (89)에서는 ‘치다<sup>4</sup>’와 ‘치다<sup>7</sup>’로 나누어서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뜻풀이를 해 놓았다. 여기서 우리는 학자들의 인지에 따라 뜻을 배열하고 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연구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뚜렷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러한 항목 구분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치다<sup>3</sup>’의 경우를 보자. ‘치다<sup>3</sup>’의 기본뜻은 “손이나 다른 무엇으로 무엇을/무엇에 때리다/맞히다.”라고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90)의 ‘치다<sup>10</sup>’은 독립된 표제어라야 하는가? “흰색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는 문장에서 ‘치다’의 뜻은 ‘사람에게 부딪다/사람을 때리다.’의 뜻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치다<sup>10</sup>’도 ‘치다<sup>3</sup>’의 다의어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이 ‘치다<sup>3</sup>’의 의미에서 “무엇을 무엇에, 또는 무엇으로 무엇을 내리 치다/누르다/뿌리다.”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90)를 들어 말하자면, ‘치다<sup>3</sup>/치다<sup>4</sup>/치다<sup>5</sup>/치다<sup>10</sup>’은 하나의 다의어로 다룸이 좋겠다. 또한 ‘치다<sup>6</sup>/치다<sup>7</sup>’ 역시 하나의 다의어로 다룰 수 있다.

따라서 ‘치다’의 경우는 기본뜻이, “①[자]무엇이 세차게 내리다. ②[타]무엇으로 무엇을/무엇에 때리다/부딪다. ③[타]무엇을 퍼서 늘이거나 쪼다. ④[타]쌓인 것 따위를 파내어 옮기거나 논밭·도랑 따위를 만듦다. ⑤[타]내뺀어서 수를 늘이다. ⑥[타]값을 매기거나 값어치를 인정하다. ⑦[타]어떤 일을 치르거나 겪거나 하다.”는 일곱 개의 동음이의어로 구분하고, 각각의 표제항에는 이에 연관된 뜻 항목들을 배열하여 뜻풀이함이 바람직하다. 곧 다의어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치다<sup>㉔</sup> ①[비·바람·눈보라·물결·번개 따위가] 세차게 내리다. ㉔예문. ②  
된서리가 몹시 많이 내리다. ㉔예문.

치다<sup>㉕</sup> ①[손이나 물건으로] 무엇을 또는 무엇에 세게 때리다/부딪다. ㉔예문.  
①무엇을 던져 맞히다. ㉔예문. ②소리가 나게 두드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다.  
㉔예문. ③[손이나 공채 따위로] 공을 때리거나 튕겨 놀다. ㉔예문. ④전신을  
보내다. ㉔예문. ⑤두드리어 박다. ㉔예문. ⑥시간을 알리려고 종소리나 기타  
신호 소리를 내다. ㉔예문. ⑦자동차 따위가 사람 따위를 부딪거나 깔아 누  
르고 지나가다. 또는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가다. ㉔예문(\*사람을 치고 뺑소니  
를 친 흰색 승용차). ⑧화투목이나 주패 따위를 양손에 갈라 쥐고 서로 부  
딪쳐 섞다, 또는 그 놀이를 하다. ㉔예문. ⑨쇠붙이를 달구어 두드리려 연장을  
만들다. ㉔예문. ⑩[점이나 선 따위를] 긋거나 찍다. ㉔예문. ⑪날개·꼬리·  
손발 따위를 세차게 움직이다. ㉔예문. ⑫[무엇을] 베거나 자르다. ㉔예문. ⑬  
체질을 하여 고운 가루를 뽑아내다. ㉔예문. ⑭[찌거나 삶은 떡거리들] 안반  
에 놓고 떡매로 두드리려 짓이긴다. ㉔예문. ⑮[채로 만들기 위하여] 가늘게  
썰다. ㉔예문. ⑯숙아 베거나 자르다. ㉔예문. ⑰칼날을 밖으로 하여 열매의  
잔털이나 보늬를 깎다. ㉔예문. ⑱액체나 가루 따위를 골고루 흩어지게 뿌리  
거나 끼얹다. ㉔예문. ⑲점괘를 알아보다. ㉔예문. ⑳[술을 술잔에] 따르거나  
붓다. ㉔예문. ㉑공격하다. ㉔예문. ㉒논리적인 말이나 험한 말로써 상대방을  
몰아세우다. ㉔예문. ㉓[병마나 독기 따위를] 없애 고치다. ㉔예문. \*열(熱)은  
열로 친다. ㉔예문.

치다<sup>㉖</sup> ①발·휘장·그물 따위를 펴서 늘이다. ㉔예문. ②신경기나 대납 따위  
를 감거나 두르다. ㉔예문. ③벚집 따위를 펴서 늘이고 돛자리·가마니·떡  
서리·덕석·끈목 따위를 엮거나 꼬다. ㉔예문. ④병풍이나 포장 따위를 둘  
러 세우거나 벽이나 담을 쌓아 가리거나 막다. ㉔예문. ⑤모기장이나 천막  
따위를 갖추어 차리다. ㉔예문. ⑥피륙·명석·돛자리 등의 가장자리를 풀  
리지 않도록 마무리다. ㉔예문. ⑦[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진을 마련하  
다. ㉔예문. ⑧새끼줄 또는 거미줄을 가로 늘이거나 매다. ㉔예문. ⑨소리를 기

세 있게 내다. ¶예문.

치다<sup>4</sup>㉠ ①쌓이거나 메인 불필요한 물건을 파내거나 그려내어 딴 곳으로 옮기다. ¶예문. ②땅이나 나무 따위를 파내어, 논이나 물길 또는 흙 따위를 만들다. ¶예문. ③절레 따위로 닦거나 문지르다. ¶예문.

치다<sup>2</sup>㉠ ①[동물이 새끼를 까거나 낳거나 하여] 수를 늘이다. 번식시키다. ¶예문. ②[가축 따위를] 기르다. ¶예문. ③식물의 가지나 뿌리를 여러 갈래로 내뻗다. ¶예문. ④[벌이] 꿀을 빚다. ¶예문. ⑤[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나그네들을 머무르게 하다. ¶예문.

치다<sup>6</sup>㉠ ①값을 매기다. 계산하다. ¶예문. ②값어치를 인정하다. ¶예문. (\*조선조 중기의 시조 작가라면 윤선도(尹善道)를 제일인자로 칠 수 있겠다.)

치다<sup>7</sup>㉠ ①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치르거나 겪다. ¶예문. ②장난을 기세 부려하다. ¶예문. ③일부러 기세를 부리다. ¶예문. ④몸을 흔들어 진저리를 몹시 내다. ¶예문. (\*뜻의 배열순서는 임의적이다. 사용 빈도에 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의 국어사전들은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뜻풀이를 하고 있고 서로 모방하면서 사전을 편찬하기 때문에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수 있는 어휘를 다의어로 처리하거나, 다의어로 처리할 수 있는 어휘를 동음이의어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무분별한 혼란을 체계화하여 정확하게 뜻풀이를 하는 방안은 다의어를 극대화하여 동음이의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어휘들이 본래뜻에서 뜻이 갈라져 나오게 된 유래를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계열화하여 다의어로 묶는다. 그리고 의미 분화가 심하여 그 연관을 설명할 수 없거나 동사, 형용사의 품사를 달리 할 때에는 다른 표제어로 설정하여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정확한 뜻풀이를 해야 한다.



#### 4. 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1) 연구자는 우리 국어사전들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연구하고 확립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뜻풀이라 여기고, 올바른 뜻풀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뜻풀이 원칙’을 마련하여 이 원칙에 따라 뜻풀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국어사전들이 지니고 있는 뜻풀이의 문제점들을 살펴서 바람직한 뜻풀이를 위한 ‘뜻풀이 원칙’을 제시해 보았다.

(1) 뜻풀이의 문제점으로는 순환성, 뜻풀이 어휘의 난해성, 뜻풀이 항목의 배열 순서, 잘못된 뜻풀이와 표제어 선정, 용례 제시의 문제를 들었다.

순환성의 문제는 유의어와 관련된 문제로서 서로 올림말을 엮바꾸 가면서 뜻풀이를 함으로써 해당 어휘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뜻풀이 어휘의 난해성의 문제는 표제어보다 어려운 말을 사용하여 뜻풀이를 하는 것으로 사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쉽게 뜻풀이를 해야 한다.

뜻풀이 항목의 배열 순서 문제는 다의어의 뜻풀이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뜻을 어떤 차례로 배열하느냐 하는 것이다.

잘못된 뜻풀이와 표제어 선정의 문제는 전문 용어의 경우 정확한 학문적이고찰 없이 뜻풀이를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뜻을 제시하고 있고, 순화되지 않은 일본식 어휘들을 표제어로 올리고 말의 유래를 밝히지 않고 뜻풀이를 함으로써 국어사전에 오히려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용례 제시의 문제는 뜻 항목에 맞는 알맞은 용례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그 뜻의 쓰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뜻풀이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나 우리 국어사전들은 풍부한 용례 제시가 미흡하다.

(2) 뜻풀이의 원칙으로는 ①체계성, ②정확성, ③간결성, ④용이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체계성은 의미의 연관 관계에 따라 어휘군을 묶고, 기본 어휘의 기본뜻을

확정한 다음 기본뜻을 중심으로 뜻풀이해야 함을 말하는데 계열관계의 유의어·반의어, 복합관계의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체계적으로 뜻풀이를 할 수 있게 한다.

정확성은 뜻풀이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뜻의 내용이 사실에 맞아야 함을 말한다. 이는 사전의 교육적 기능을 생각할 때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간결성은 뜻풀이를 되도록 간단하고 짧게 함을 말한다. 동사와 형용사 따위는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풀이하고, 명사 따위는 정의 형식에 따라 “被定義項(標題項/울림말) = 定義項(意味 明示/뜻풀이)”의 기본 구조로 뜻풀이한다. 그러나 고유 명사, 부사, 관형사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메타언어적인 정의를 하도록 한다.

용이성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어휘를 주로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이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어휘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뜻풀이에 반영해야 한다.

2) 표제어 뜻풀이 방법에서는 의미의 연관 관계에 따라 특정 어휘군으로 묶고 뜻풀이함으로써 체계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뜻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처리 방법과 그 뜻풀이의 실재를 살펴보았다. 현행 국어사전들의 뜻풀이가 비체계적이며 부정확함을 5종의 국어사전을 비교·분석하여 밝히고 체계성과 정확성, 간결성, 용이성을 갖춘 뜻풀이 방식을 제시하려 했다.

(1) 유의어의 뜻풀이 방법에서는 우리 국어사전들이 순환적이거나 부정확한 뜻풀이를 하거나 또는 표제어보다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여 뜻풀이를 함으로써 비체계적이고 부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노르다/흥/이따금/비슷하다/고치다’ 등의 어휘를 통해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체계적이고 정확하면서 쉬운 뜻풀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의어군의 어휘들을 면밀히 살펴서 기본 어휘[핵심 의미]를 설정하고 그 어휘의 ‘기본뜻’을 확정한 다음 미묘한 뜻 차이가 드러나도록 풀이를 하도록 한다. 예

를 들어, ‘노르다’의 유의어인 경우 ①‘노르다/누르다/노랗다/누렇다’ 중에서 ‘노르다’를 기본 어휘로 삼는다. ②그 기본뜻을 ‘할짝 핀 개나리꽃 또는 황금 빛의 색깔이다.’로 뜻풀이를 한다. ③유의어들끼리 유의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노랗다. 매우 밝게/산뜻하게 노르다.’, ‘누르다. 매우 질게 노르다.’, ‘누렇다. 약간 어둡게 노르다.’, ‘노르께하다.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등과 같이 뜻풀이한다.

(2) 반의어 뜻풀이 방법에서는 형태상·의미상 유표성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 확립된 반의어를 서로 연관 지어 뜻풀이함으로써 뜻의 정확한 풀이와 바른 체계를 세울 수 있음을 보였다.

‘사다/팔다, 안/밖, 가다/오다’의 경우 반의어로 제시되고 있는 뜻풀이 항목을 대비해 보면 뜻의 연관 관계를 알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이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뜻 항목이 누락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안/밖’의 경우 ‘안’의 기본뜻을 ‘어떤 공간이나 물건의 둘레에서 가운데를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이라고 하면, ‘밖’의 뜻은 이 ‘안’과 대비를 통해서 ‘어떤 곳이나 물건의 둘레로부터 벗어난 쪽이나 곳’으로 풀이해야 한다.

(3)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뜻풀이 방법에서는 현행 국어사전들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다의어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뜻풀이의 체계성과 정확성 확보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대상 어휘들의 본래뜻에서 뜻이 갈라져 나오게 된 유래를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계열화하여 다의어로 묶고 의미 분화가 심하여 그 연관을 설명할 수 없거나 동사, 형용사의 품사를 달리 할 적에는 다른 표제어로 설정하여[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뜻풀이를 해야 함을 밝혔다. ‘타다/차다/치다’의 예를 통해서 무질서하고 부정확한 뜻풀이를 체계화하여 다의어로 뜻풀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치다’의 경우 ‘①뺨을 치다.’와 ‘②흰색 자동차가 사람을 치고 달아났다.’의 ‘치다’를 기존 국어사전들은 각각 다른 표제어, 곧 동음이의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의 기본뜻은 ‘손이나 다른 무엇으로 무엇을/무엇에 때리다/맞히다.’이며, ②는 ‘자동차로 사람에게 부딪다/사람을 때리다.’의 뜻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 낱말들은 다의어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그 뜻의 배열순서는 (1) 말뭉치가 수집된 경우에는 ‘기본뜻→빈도수가 높은 뜻의 차례로 배열’하고, (2) 말뭉치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뜻으로 인지되는 뜻→구체적 사물[사실]의 뜻에서 추상적·일반적인 뜻으로 배열’하는 두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현행 국어사전들이 뜻풀이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당위성을 얻게 되었고, ‘의미론’의 이론적 근거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간결하고 쉽게 뜻풀이를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의 뜻풀이는 어휘의 의미를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론’에 바탕을 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뜻풀이를 함은 당연한 일이나 현행 국어사전들에서는 이러한 뜻풀이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기존 국어사전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는 노력이 있어 이주 반가운 일이나 정작 국어사전의 2대 영역인 뜻풀이 문제를 가장 먼저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그 밖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여 우려가 된다.

이 연구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어 어휘를 분석하고 말뭉치의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점은 다음에 보완할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辭典類〉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중·하)』, 두산동아, 1999.

- 김광해, 『類義語·反意語 辭典』, 도서출판 한샘, 1987.
-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 남영신, 『국어 용례 사전』, 성안당, 1995.
-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 編, 『朝鮮語大辭典』, 角川書店, 1986.
- 文世榮, 『朝鮮語辭典』, 博文書館, 1938.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974.
- 연변조선족자치주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92.
- 이기문 편,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
-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 임홍빈,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 하우스, 1994.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 홍재성 외,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사전』, 두산동아, 1997.

<著書>

- 김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1993.
- 미승우,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들』, 범우사, 1987.
- 임지룡,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1995.
- \_\_\_\_\_,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 정순기·리기원, 『사전편찬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4.[『북한어학 자료 총서』 411, 탑출판사, 1989.]

2. 논문

- 강신항, 「일본 한자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5.
- 구본관, 「접미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권인한, 「표준 발음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김광해,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유의어」,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_\_\_\_\_,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5.
- 김문창, 「국어대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제4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1994.
- 김민수, 「國語辭典: 그 標題語의 選定과 排列問題」, 『국어생활』 7, 국어연구소, 1986.
- 김슬옹, 「이른바 ‘품사통용어’의 사전 기술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제4집, 탑출판사, 1992.
- 김창섭, 「파생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_\_\_\_\_,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김태곤, 「中世國語의 多義語 研究」, 中央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89.
- 김현권, 「언어사전 정의의 유형과 문법 문제」, 『한글』 제196호, 한글학회, 1987.
- 남기심, 「국어사전 현황과 그 편찬 방식에 대하여」, 『성곡논총』 제18집, 1987.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연세대 한국어사전편찬회, 탑출판사. 재수록)
- \_\_\_\_\_, 「국어사전 자모의 차례와 표제어의 배열순에 관하여」,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1988.
- \_\_\_\_\_, 「표제어 풀이와 표제어 선정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성광수, 「문법 형태소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송 민,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국어연구소, 1988.
- 심재기, 「좋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 고찰」, 『애산학보』 7, 1989.

- (『국어학자료논문집』 제5집 어휘론, 대계각)
- 심재기, 「국어 어휘의미론」,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1994.
- 양인석, 「어휘 의미론」,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1994.
- 유동석, 「조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윤용선, 「종합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5.
- 윤희원, 「의성어·의태어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제3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3.
- 이기동, 「사전 뜻풀이의 검토」,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1988.
- \_\_\_\_\_, 「다의 구분과 순서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_\_\_\_\_, 「인지문법」,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1994.
- \_\_\_\_\_, 「날말 풀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사전편찬학연구』 제5·6집, 탑출판사, 1995.
- 이기문, 「國語辭典의 語原 表示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이병근, 「國語辭典 編纂의 歷史」, 『국어생활』 제7호, 국어연구소, 1986.
- \_\_\_\_\_, 「북한의 국어사전과 사전학」,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지식산업사, 1990.
- \_\_\_\_\_, 「사전 및 사전학」,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0.
- \_\_\_\_\_, 「사전 정의의 유형과 원칙」,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이상복, 「국어사전 편찬과 문법 형태소의 처리-조사와 연결어미의 기술을 중심으로-」,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1988.
- 이상섭,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편찬 원칙과 형성 과정」,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탑출판사, 1987.

- 이상섭, 「몽치 언어학적으로 본 사전 편찬의 실제 문제」,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1988.
- \_\_\_\_\_, 「현대 사전 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인문과학』 62, 연세대학교, 1989. (『사전편찬학연구』 제3집 재수록)
- \_\_\_\_\_, 「몽치 언어학: 사전 편찬의 필수적 개념」, 『사전편찬학연구』 제3집, 탑출판사, 1991.
- \_\_\_\_\_, 「전산 편찬학의 개념과 한국적 실제」, 『사전편찬학연구』 제4집, 탑출판사, 1992.
- \_\_\_\_\_, 「말몽치 : 그 개념과 구현」, 『사전편찬학연구』 제5·6집, 탑출판사, 1995.
- \_\_\_\_\_, 「몽치 언어학의 기본 전제」, 『사전편찬학연구』 제5·6집, 탑출판사, 1995.
- 이용주, 「사전 주석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7호, 국어연구소, 1986.
- 이익환, 「어휘의 의미 변천과 사전」,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1988.
- \_\_\_\_\_, 「국어사전 뜻풀이와 용례」,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이정민, 「언어와 인지」,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1994.
- 이희자, 「접속어 연구 I」, 『사전편찬학연구』 제5·6집, 탑출판사, 1995.
- 임동훈, 「어미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임홍빈, 「복한 사전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제3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3.
- 조남호, 「국어사전에서의 의성 의태어 처리」, 『새국어생활』 제3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3.
- 조재수, 「복한의 국어사전 편찬에 대한 고찰」, 『국어생활』 15, 국어연구소, 1988.
- 채 원, 「의존명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원, 1998.
- 최규일, 「우리말 {뜻}의 의미 기능」, 『국어국문학』 100호, 국어국문학회, 1988.
- \_\_\_\_\_,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3」, 『濟大論文集人文·社會』 38집. 제주대학교, 1994.
- \_\_\_\_\_, 「방송과 신문에 나타난 일본식 말 순화」,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5.
- \_\_\_\_\_, 「국어사전 뜻풀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解放 50주년 세계 속의 韓國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 \_\_\_\_\_, 「국어사전 표제어의 뜻풀이」, 『국어국문학논총』, 태학사, 1996.
- 홍운표, 「古語의 풀이말」,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홍재성,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국어생활』 7, 국어연구소, 1986.
- \_\_\_\_\_, 「현대 한국어 사전과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성곡논총』 제18집.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재수록, 1987.
- \_\_\_\_\_, 「한국어 사전에서의 동사 항목의 기술과 동사 정보」, 『인문과학연세대』 57, 1987.(『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재수록)
- \_\_\_\_\_, 「한국어 자동사/타동사 구문의 구별과 사전-이른바 동족 목적보어 구문의 경우」, 『동방학지』 63,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9. (『사전편찬학연구』 제3집 재수록)
- \_\_\_\_\_,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제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1992.
- \_\_\_\_\_, 「동사·형용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홍중선, 「명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Hartmann, R.R.K. ed., *Lexicography :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 Academic Press, 1983.
- Ilson, Robert. ed., *Dictionaries, Lexicography and Language Learning*, Oxford : Pergamon,

1985.

Ison, Robert. ed., *Lexicography, An Emerging International Profession*,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6.

\_\_\_\_\_, *A Spectrum of Lexicography*, Amsterdam : John Benjamins, 1987.

Lyons, John, *Semantics I,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Sinclair, J. M, *Looking Up : An Account of the COBUILD Project in Lexical Counting*, London : Collins, 1987.

Ullmann, Stephen, *Semantics :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 Basil Blackwell, 1981.